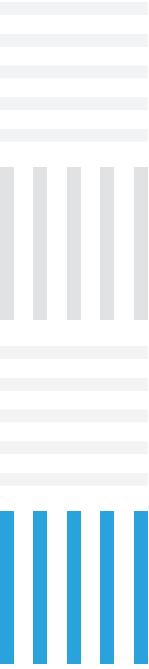




제2편

목포 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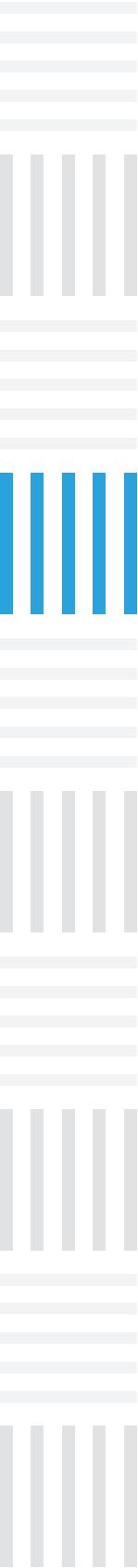
제1절 목포 문화예술계의 산증인

정미영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2절 목포 최초의 서예학원을 설립한 서예가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제3절 목포가 낳은 최고의 배우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제1장 문화와 예술을 꽂피우다

제1절 목포 문화예술계의 산증인

김병고는 1938년 일본 오사카에서 한의사인 아버지 김상옥과 어머니 송순옥 사이에서 9남매(5남 4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4살 무렵 귀국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리에 정착 후 광주 서석초등학교·광주사범설증학교·광주사범학교·광주사범대 미술과를 졸업한다. 초임지인 강진도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안좌·일로·임자남·목포동·목포중앙초등학교 교사를 지낸다. 강진도암초등학교 근무 당시 아내 선금자와 결혼하고 슬하에 1녀를 둔다. 중등교육계로 이동하여 해남 영명·몽탄·무안·목포여자·청호·유달중학교 교사를 지내고 유달중학교에서 명예퇴임을 끝으로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완전한 화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는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이하 목미협) 지부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목포지부(이하 목포예총)지부장, 목포미술협회 이사, 목우회(木友會) 전남지회장 등을 역임한다. 그는 국전 입선 2회(1979, 1980), 목우회 전국공모전 특선 3회(1979, 1981, 1982), 한국예총예술문화대상(2005), 송암창작대상 미술부문 수상(목포, 1983), 남농예술문화대상(목포, 1993), 전라남도문화상(2015)의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 중년에 접어들면서는 예술단체의 고문 및 자문위원과 심사위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제2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양화부문 심사위원장과 전라남도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남농미술대전 수채화부문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한때 목포의 문화예술을 논하는 문주회의 일원이자 현재의 수장이기도 한 김병고는 목포 지역의 문화예술계의 산증인으로 목포 예술사와 비화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있어 『목포예술인들의 빛과 그림자』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한다. 그는 화가이자 문인으로 젊어서는 만능 스포츠맨이자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캔버스에 낭만과 멋을 담아내며 자신의 화폭에 작품을 확대 변형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그는 현재 목포예총고문 및 목포미술협회 고문

과 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⁰¹⁾

1. 어린 시절

김병고는 부모님을 따라 태평양전쟁 말기 무렵 4살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광주 광산 구 송정리에 정착하게 된다. 송정리 서초등학교를 다니다 교육 문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4학년 때 광주서석초등학교로 전학하여 1950년에 졸업한다. 5학년 미술 수업 시간에 그린 수채 사생화를 담임선생이 교실 뒤 작품 게시판에 붙여 놓은 것을 계기로 스스로도 그림에 소질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저는요 태어난 곳은 일본 오사카에서 1938년에, 우리 부모님이 일본에 살 때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한의사였거든요. 내가 4살 때 송정리 광산 쪽에 그 쪽이 고향이라 해서 세계대전 난리를 피해서 와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송정리 서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교육 때문에 광주로 옮겨야겠다고 해서 광주서석초등학교를 4학년 때 전학을 해서 거기서 졸업했어요. 광주서석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이 박병종 선생이라고 그분이 미술시간에 오늘은 야외에서 수업한다. 그래갔고 데리고 간 곳이 광주에 가보면 경양방죽이라고 있어요. 큰 방죽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경양방죽가에 가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라 했는데. 거기서 그렸던 그림을 선생님이 뽑아갔고 뒤에 작품 게시판에 내 것을 딱 붙여 놨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림에 좀 소질이 있는가보다 거기서 느꼈어요. 경양방죽에 가서 처음으로 수채 사생화를 그린 거예요.”

그는 1953년 광주사범학교병설중학교를 졸업하고, 1956년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당시 2년제 였던 광주사범대학 미술과를 1956년에 진학하여 1958년에 졸업한다. 광주사범학교병설중학교시절 미술부 활동 당시 사생대회 우수상을 받으면서 화가로서의 길에 소질이 있음을 인정받았지만 재주가 많았던 그는 광주사범학교에 들어가서는 미술부를 들어가지 않고 악대에 들어가 악대장을 한다.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었으나 광주사범대학교가 생겨나자 광주사범대학 미술과를 진학하면서 미술교사이자 화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초등학교 졸업 후 광주사범학교 병설중학교 때는 미술부를 하게 되었는데 공모전에서 내가 우수

01) 김병고는 2018년 1월 타계하였다.

상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넌 미술에 소질이 있고 화가가 되도 쓰겄다.’ 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광주 사범학교 올라가니까 악대를 6·25 때 없어진 것을 다시 재건했는데 나는 악대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미술부에서 살짝 빠져서 악대에 들어갔는데 학생의 날 같은 작은 행사에 나가게 되었는데 콘닥을 뽑는데 나를 뽑은 거예요. 제가 악대장이 된 거예요. 충장로에 행사만 있으면 광주사범학교가 실력이 좋으니 맨 앞에서 가는데 시민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했어요. 볼거리가 없을 때이니까요. 내가 졸업하고도 충장로에 내가 나타나면 제임스 딘 닮았다는 인기스타가 된 거예요. 쿵 짹 쿵 짹하고 행진할 때 내가 맨 앞에서 오면 시민들이 전부 나와서 양쪽에서 막 박수치고 하니까 광주 충장로에서 내가 스타가 되어 버린 거죠. 악대장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미술부활동은 못했어요.”

2. 초등교육계 교직생활의 시작

1950~1980년대 사이에는 목포 지역의 문인과 화가들 중에는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당시 활동했던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박화성, 최일환, 김학래, 최재환, 박순범 등이 있으며, 화가로는 양인옥, 김암기 등을 들 수 있다. 김병고 또한 교직생활을 하면서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1958~1994년에 목포 및 인근지역인 강진, 무안, 임자 등의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로 활동한다. 교사

초임지는 강진도암초등학교로 1958~1960년 근무했다. 강진 도암초등학교 근무 시 아내 선금자와 결혼한다. 당시 보통의 성인 남자들이 군복무를 3년간 하는 반면, 교직원들은 군대를 단기복무라고 해서 1년간 근무할 수 있었기에 교직에 있던 그도 1960~1961년 1년간 군복무를 한다.



그림 1 첫 발령지 강진도암초등학교 소풍 때
(정면 가운데 김병고)

“1958년 그 당시에는 군(郡)에 고등학교나 하나 있을 정도예요. 졸업했어도 한참 있으면 발령 날까 말까해요. 강진도암초등학교 첫 발령 그때가 20살 이었을까? 1958년 졸업하고 두어 달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발령 신청 냈는데 바로 발령을 받았어요. 나는 광주사범 나왔는데 목포 사범학교 나온 여선생이 나보다 2달 먼저 발령을 받아서 거기에 도암초등학교에 있데요. 선금자 선생이라고 있어요. 한 교실을 쓰게 되었어요. 그때만해도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썼어요. 자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고……. 원래가 목포사범대학 탁구선수였나 봐요. 탁구 잘하지, 연식정구 잘하지 늘 같이 운동도 하다보니까.

어떻게 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자에서 소화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강진도 암초등학교 근무 당시에 군대를 간 거예요. 거기서 2~3년 근무하다가 군대를 갔는데요. 그때는 단기 복무라고해서 선생님들은 1년 교보라 했지요. 이 사람들은 단기니까. 무조건 일선 배치해요 최전방 배치해요. 너희는 1년만 하고 가니까 경험하라 해서 배치해요. 대학생들은 학보라 해서 1년 6개월을 해요. 대학생들이나 학교 선생들은 최전방 수색중대로 배치해요. 딱 1년 되니까 여지없이 제대가 되는 거예요.”

그는 군복무 후 1961~1970년 안좌초등학교, 일로초등학교, 임자남초등학교, 목포동초등학교, 목포중앙초등학교에 근무한다. 복직하고 첫 발령지인 안좌초등학교를 1961년에 부임했으나 안좌도 섬 지역의 젊은이의 시비로 인해 몸에 크게 상처를 입고 1년도 되지 않아 일로초등학교로 재 발령을 받는다. 일로초등학교 근무 당시 김병고의 아내인 선금자는 유달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부부교사를 섬의 분교장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이를 알고 극구 마다하여 한 섬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을 받는다. 김병고는 임자남초등학교에 아내는 임자중앙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한다. 섬에서의 교직생활을 접고 목포로 들어와 목포동초등학교를 거쳐 목포중앙초등학교에서 초등교육계 마지막 교직생활을 한다.

“일로초등학교 있다가 임자남교 섬에서 근무를 했지요. 임자남교하고, 임자중앙교가 제일 가까우니 양쪽에다 아내와 나를 발령을 냈지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로 염전 지나서 임자남교로 갔지요. 1960년대 중반 스물여섯의 나이로 임자남교에 근무할 때 애창곡은 풍금도 치면서 불렀지요. 음악수업 할 때 애창곡으로 초생달을 불렀어요. 그때는 김일로 시인과 인연이 없었으나 책만 보고 했다가 목포 예총을 들어왔을 때 김일로 시인이 예총회장을 잠깐 해서 알았지요. 풍금은 내가 광주사범학교 다닐 때 의무적으로 쳤어요. 아이들을 가르쳐야하니까요. 그리고 사범학교 때 나는 악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악보도 잘 본대다가 풍금도 잘 치고 하니까 학교 간 데마다 풍금 못 치고 하는 선생들은 나한테 와서 교환 수업을 하자고 했지요. 1969년 즈음에 목포동초등학교에서 3년 있고, 목포중앙초등학교로 발령을 받고 초등교육계 마지막 근무처가 되었지요.”

3. 중등교육계 교사를 시작으로 미술학생들을 선도하다

1970년대에는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더욱 높아져 국가의 교육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1971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는 중학교의 수용능력 확대와 평준

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특히 중학교 취학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구실을 하였다.

이 시기 김병고는 초등교육계에 근무하다 의무교육 실시로 인한 도서 및 면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시범사업으로 인하여 중등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1970~1994년에 해남영명중학교, 몽탄중학교, 무안중학교, 목포여자중학교, 청호중학교에 근무한다. 정부에서는 1980년대에는 과밀학급 완화, 과대 규모 학교 분리,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1984년 8월 2일에 교육법을 개정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985년 2월 21일에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서·벽지 중학교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김병고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 당시 정서교육 및 각 학교에 미술부를 신설한다. 자비를 털어가면서까지 미술 공모전에 출전을 시키고 입상의 영예를 안겨주기도 하면서 학생들을 미술학도로 가르친다.

“초등교육계에 있다가 중등계로 옮겼어요. 초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義務教育)⁰²⁾이라 들어가기 쉬웠지만 중학교는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면(面)마다 중학교가 다 세워지면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니까 각 면마다 중학교를 하나씩 세워서 학교는 늘어났는데 선생님 수는 적어서 발령을 기다리다가 미술교사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1970년에 해남군 문내면에 위치한 해남 영명중학교를 갔지요. 영명중학교에 있다가 군마다 학교가 새로 생기니 무안몽탄중학교에 1학년만 있었는데 새로 생긴 학교라 1학년만 모집 한 거죠. 학생 수에 비해서 1학년이 5개 학급이 있었는데 5개 학급에 맞

는 선생님만 배치하다보니까 도에서 과목마다 선생님을 줄 수가 없어요. 도에 가서 교장이 미술과 장학사에게 사정을 야기하고, 나를 몽탄중학교에 모셔간 샘이죠. 내가 몽탄중학교 딱 1년만 있다가 옮겼어요. 일로에 있는 무안중학교라고 아주 큰 학교가 있었어요. 남녀공학인데. 학생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미술선생이 나뿐만 아니라 한 명 더 있었어요. 거서 미술부를 내가 키웠어요. 무안



그림 2 무안중학교 미술부 작품전

02) 6·25전쟁으로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행이 지연되었다가 1953년 7월에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무 교육의 추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1954~1959학년도의 6개년에 걸쳐 6~11세 학령이동의 96%를 취학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 취학률 96%를 웃도는 데 성공하였다.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는 문교예산의 75~81%를 의무교육에 충당하였고, 임시토지소득 세환부금제도, 교육세, 의무교육 재정 교부금법 등의 제정을 비롯하여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서 의무교육의 완성에 역점을 두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91).

중 미술부가 전국학생미술대회에 나가면 언제나 금상, 최고상 다 쓸어가지고, 무안중학교 미술부는 전국적으로 유명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흥대 같은 데 다 졸업해가지고 신촌 부근에서 미술학원도하고 유명했죠.

내가 1973년에 목포여자중학교로 와서 5년을 근무하면서 미술부를 또 조직해서 키웠어요. 조직해서 키운 사람들이 미술협회 화가 서술래, 이미경 이런 화가들이죠. 그때 다녔던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도 좋았고 정서교육을 해가지고 미술부도 키워냈고, 목포여자중학교 전통으로 중앙극장을 빌려서 어버이날 행사로 어머니들 다 모셔가지고 연극, 무용 할 것 없이 공연도 하면서 정서지도를 참 잘 했어요. 목포여자중학교 뒤에 목포청호중학교로 갔지요. 5년 이상 한 학교에서 근무를 못해요. 청호중학교에서 5년 근무하니까 목포에서 10년이 된 거예요.”

4. 교원생활을 접다

-『광야(廣野)의 아침』발간-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목포도 민주화 열풍이 강하였다. 청호중학교에 근무하던 김병고는 김암기, 자운당 유택수 등과 함께 시위대에게 격려문을 보내기도 하고 시가행진에 동참하기도 한다.

“청호중학교 있을 때인 1980년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요. 날마다 목포역전에서 청중들, 군중들 월기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동아약국 그 누군가가 주로 주도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 역 앞에 천지다방이라는 다방이 있었어요. 그 주인과 우리들이 친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돈을 줄게 검정 천을 좀 사다주라.’ 그래서 ‘검정 천을 사 가지고 와서 리본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온 사람마다 채워주라. 광주서는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계엄군한테 죽어가고 있다.’ 어떤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는 길 앞에까지 가서 채워주고 그랬어요. 그만큼 역전에서 열기가 막 돌았어요. 나하고 김암기선생님하고 자운당 유택수 사장하고 막 글을 써요. 그럼 본부에서는 방금 시민들이 격려문이 왔다고 낭독해주고, 시가행진을 막 따라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김암기 선생이 마리아회고에 있었어요. 나하고 같이 격려문을 썼던 김희웅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청호중학교 앞에 교문에서 나를 찾아요. ‘지금 그때 주동자를 물색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전부 다 뒤집어주고 내가 어디로 피난떠날 거니까 돈 좀 주쇼.’ 해서 뒤져보니까 돈이 2만 원에서 3만 원 밖에 없었어요. 학교 앞에 학용품사는 데 가서 빌려서 지금 돈으로 같으면 한 20만 원 돈 될까 하는 돈을 봉투에 넣어서 쥐어주며 ‘잘 숨어있으라’고 하고 보내고 그랬어요. 그때 데모에 열렬했던 사람들은 다 잡아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가 다 조용해져 벼렸어요. 몇 일간 조용해지더니 경찰들 다 다시 오고 그렇게 목포도 시

끄러웠어요. 목포 시민의식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김병고는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무안중학교에서 근무하며 미술부를 창설하고 전국미술대회에 자비를 털어가면서까지 출전시키고 전시회를 열어주기도 하면서 그의 열정을 쏟아붓는다. 그는 5년의 무안중학교 근무를 마치고 청호중학교로 옮긴 뒤 중등교육계 마지막 학교인 목포유달중학교에서 명예퇴직을 끝으로 교원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인 화가의 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1994년 퇴직 당시 『광야의 아침』이라는 본인이 쓴 글과 지인들이 써준 글을 엮은 자서전이 나온다.

“목포에서 교직생활을 10년 이상 못하니 시골에 갔다 와야 해요. 그래서 또 무안중학교로 1983년에 가서 1988년까지 근무하는데 암만해도 그 정도 되니까 도 장학사도 인정하고 하니까 원하면 가까운 통근거리로 해주세요. 이곳에서도 미술부를 창설하고 전국미술대회에도 박봉을 털어가며 출전시키기도 하고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지요. 난 학교에 있으면서 화가로써 활동 할 테니까 가까운 통근거리로 내주라고 했죠. 무안중학교에서 다시 청호중학교로 갔는데 5년이 되니까 유달중학교로 옮겨갔어요. 그때 내가 기념 문고로 광야의 아침이라고 1994년에 자서전⁰³⁾을 냅니다.”

5. 김암기를 만나 미술에 빠지다

그가 초등교육계에 근무할 당시에는 학생들을 보내놓고 방과 후에 조금씩 혼자 그림을 그렸으나 중등교육계에 미술선생으로 발령을 받아 들어오면서부터는 목포미술협회 회원전도 나가야 하고 출품도 하기 위해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다. 목포에서 직접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은 목포여자중학교 근무시절인 1973년 즈음에 김암기를 만나 현장스케치를 다니면서 부터라고 한다. 삼학도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그를 미술에 빠지게 만든 김암기는 제일 친한 사이가 되어 전국 방방곡곡 현장스케치를 함께 다니게 된다.

“1973년 즈음에 목포여자중학교에 근무했을 당시에요. 삼학도에서 바라보는 유달산 쪽으로 제분 공장 있는 그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 대놓고 그리기가 참 좋았어요. 나 혼자 나가서 그렸죠. 점심시간쯤 되었는데 누가 뒤에 와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구요. ‘선생님 실례지만 테레

03) 김병고의 저서로는 『광야의 아침』, 『목포예술인들의 빛과 그림자』, 『문주회(文酒會) 이야기』가 있다(『2016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기념 고야 김병고전 카탈로그』, 2016).

핀을 조금 더 섞으시는 것이 부드럽게 더 잘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이야기 해 주더라구요. 베레모 쓴 화가 선생이요. 제가 일어서서 ‘감사합니다.’ 했죠. 좀 있다가 ‘술이나 한잔 합시다.’ 하고 권유하더라구요. 그 양반도 내 뒤쪽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문태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양기탁 선생님이 놀러오니까 주막이 많았던 삼학도 쪽에서 술 한 잔 마시려고 가면서 내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술 한 잔 하려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점심 때 되니까 같이 갔지요. 첫 만남인데. 그런 거예요. 선술집에서 인사를 드렸지요. 그 사람이 목포 서양화를 끝내 지킨 김암기 선생이에요. 동양화는 남농 선생이 지켰다고 하면 서양화는 김암기 선생이 지켰어요. 주막에서 술을 먹었는데 여간 통하더라구요. 나하고 여섯 살 차이니까 내가 형님이라고 불렀고. 그 뒤로 친해져서 양인옥, 김암기, 김병고, 전국 스케치를 많이 다녔어요. 전국 방방곡곡 김암기 선생님하고 제일 많이 다녔어요. 안 가본 데 없이 설악산이고……. 정말 김암기 선생이 나를 미술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김병고는 김암기와 함께 다녔던 현장스케치 여행 중 대홍사 스케치 여행을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대홍사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교직에 있던 두 사람은 대홍사 현장스케치를 다닐 때 방학기간을 기점으로 자주 다녔다.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선창주변을 돌면서 삼학도에서 유달산을 주로 그렸다고 한다.

“목포여자중학교 근무 당시에는 내가 어디서 살았냐 하면은 죽동 올라가면 고갯길이 있는데 죽동 육골에서 좀 올라가는 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윗 골목길에 김암기 선생이 살았어요. 그렇게 알게 된 뒤로 내가 시골인 몽탄중학교에 근무 할 때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에 목욕이나 가고 좀 쉬려고 하면 우리집 대문에서 여지없이 문을 두드려요. 제가 작은방 살이 할 때인데요. 딱 화구 짚어지고서 ‘어이 동생 김선생, 김선생 얼른 화구 가지고 나와. 스케치 가게.’ 그럼 난 쉬려고 했다가도 김암기 선생님이 재촉을 하니까 얼른 화구 챙겨 가지고 나와서 대홍사를 갈라고 하면요. 그때는 배타고 다녔어요. 배타갖고 용댕에서 내려서 막 사람들은 달려요 버스 타려구요. 무거운 것 들고 놀 데도 없고 공중에 뜨다싶게 끙끙거리고 서서 한참가면 고생 고생해서 해남읍에 가서 버스를 갈아타요. 중간에서 내리는 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리더라구요. 사람들이 산정장 같은 데서 내리면 자리가 좀 있구요. 해남읍에 가면 대홍사 가는 버스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걸 타고 대홍사 도착했죠. 그때는 참 한가하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때가 40전후해서 다녔죠. 김암기 선생하고 나하고는 형제간보다도 더 친한 형제가 되 가지고 함께 많이 다녔지요. 대홍사 스케치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김암기 선생하고 추억이 제일 많죠.”

그는 1971년 목포미술협회 가입 후 1986년 3월부터 1989년 3월까지 3년간 목포미술협회(이하 목포미협) 지부장을 지낸다. 목포미협 지부장 활동 당시인 1988년 3월 20일 봉황예식장에서 지난 8년간 끊겼던 목포미술인의 밤을 재개했고, 목포미술인상도 제정하였으며,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야외 연수회를 만들기도 한다.

“내가 1986년부터 목포미협 지부장을 하던 시절에 만든 것이 목포미술인의 밤⁰⁴⁾을 만들었어요. 연말 되면 목포미술인상을 만들어서 그 해에 가장 활동이 왕성했던 사람에게 주는 상, 신인상 등 상을 몇 개 만들어서 신안비치 호텔에서 하기도 했어요. 목포미협 지부장 할 때 첫 목포미술인상을 탄 사람이 흥순모라고 목대 조각가가 탔어요. 그리고 야유회인 단합대회를 만들었어요. 반드시 일년에 한번은 버스 대절 해 가지고 목포미협 회원들이 순천 정원박람회를 간다든지 그렇게 여행을 일년에 한번은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잘 해나가고 있어요. 야외 연수회는 김정재 지부장이 할 때 한 번 했었어요. 그건 한번 했는데 가까운데 갔다 왔고 대홍사 쪽인가…… 정례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은 나부터 했죠.”

그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나 도전(전라남도미술대전)에 입선을 해야 들어올 수 있었던 목포미술협회(이하 미협) 회원이 최근에는 누구나 미협 회원이 되고자 하면 활동과 함께 되는 것을 보고 미협 회원이라는 자부심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만 해도 목포미협 회원수가 몇 몇 없었어요. 그리고 회원 되기가 어려웠어요. 목포미협 회원 되려면 국전이나 도전이나 그렇게 입선을 3회 이상 한다거나 해야 들어왔어요. 목포미협 회의에서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나 말다툼이나 하고 들여놓으면 시끄럽다 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풀려버렸는가 하면 지금 전국 예총 회장하는 임농 하철경씨가 전국 미술협회 이사장으로 나갈 때 아무라도 그림만 그리면 미술협회에 들어오게 자기가 당선 되기 위해서 뭉뚱 끌어놔 버렸더니 미술협회 이사장도 되었어요. 그 전에는 전문가하고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일요화가회를 거쳤어도 미협 회원이 되기 어려웠었죠. 지금은 조금만 그림 그린다 하면 모두 미협 회원이에요. 장점과 단점은 있죠. 질이 떨어지는 그림들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마추어

04) 목포미술인의 밤은 1979년 12월 27일 오거리에 있던 YMCA회관에서 김암기 지부장에 의해 송년의 밤이 열렸었다. 그러나 그 이후 8년 동안 자금난으로 열지 못하다가 1988년 3월 20일 봉황예식장에서 김병고 지부장에 의해 재개되었다. 이때에 목포미술인상이 제정되었다. 목포미술인 중에서 당해년도에 가장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한 작가에게 목포미술인 전체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상이다. 1988년 제 1회 수상자는 조각가 흥순모였다(김병고, 「제5장 미술」, 「목포시사(1980~1994)」Ⅲ, 1997, 512쪽).

이제 시작한 사람도 미협 회원이 되버린 거예요. 지금은 구별이 없어요. 전시장 가보면 확 차이가 나 버려요. 아무나 미협 회원이 되버리니까.”

1988년 목포 3호광장 분수대 위에 세워졌던 목포상징 조형물은 홍순모, 김창세, 김광진의 합동작으로 똑같은 시민상 4개를 만들어 동서남북에 설치해 놓은 것이다. 서구식 시민상이 아닌 서민의 모습을 한 시민상을 못마땅하게 여긴 시민들의 항의로 향토문화관 한 쪽에 세워지게 된다.

“1988년 3호광장 분수대 위에 세워졌던 목포 상징 조형물은 조선내화 이훈동 회장이 1억을 칠순기념으로 1억 원 정도를 시청에 줬는데 그 돈으로 3호광장에 목포시민상 조각상을 거기다 세우자 했어요. 당시 3호광장에는 분수대가 있었어요. 목포대학교에 있던 홍순모 조각가, 목포 출신 김창세, 부산에 있던 김광진 이 세 분이 합동작으로 해서 똑같은 시민상 4개를 뽑아서 동서남북에 세웠어요. 그걸 세웠더니 목포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컸어요. 그 조각상을 보고, 로뎅이나 그런 서구식 조각상이 아닌 키도 작고 아주 촌스럽게 생기고, 음…… 서민 그야말로 서민상으로 세웠어요. 시민들의 불만은 이제 목포도 서해안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지난한 목포에서 이제는 좀 밝은 도시의 이미지를 줘야 할 텐데 어디 노름판에서 돈 다 잃어버리고 아침에 후줄근하게 나온 사람 마냥 그것도 한손은 호주머니에 손도 넣고 있고…… 어떻게 불만이 컼었는지 그렇게 어렵게 세운 조각상을 철수하고 분수대도 없어지고, 오늘날과 같은 3호광장이 되었어요. 그것을 저기 저 갓바위에 향토문화관 한쪽 구석으로 옮겼어요. 작품으로서는 내가 보기엔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해서 치우라 해서 치웠는데 서양에서도 ‘칼레의 시민상’ 같은 조각품을 보면 굉장히 후줄근하게 생긴 군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도 작품이라 인정하는데, 그 당시 목포 시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 되어 조각상을 옮긴 그런 에피소드가 있지요. 지금도 목포시민상은 그쪽 한쪽 구석에 보존되어 있죠.”

6. 목포예총과 예총회관, 예술제 이야기

전국문화단체연합회 목포지부가 1951년 1월 27일에 결성된다. 1958년 9월 15일 목포방송국 공보관에서 재목 예술동인 50여 명이 참석하여 목포문화협회(현 목포예총)가 창립되고, 초대 회장에 남농 허건을 추대한다. 이후 1962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목포지회(이하 목포예총)로 개명하게 된다. 김병고는 1971년 목포미술협회에 가입 후 목포예총에 자연스럽게 가입하게 된다.

“목포문화협회를 토대로 해서 목포예총이 생겼죠. 그러니까 한국예총이 생기기 전에 먼저 목포에

서 만든 것이에요. 목포예총이 먼저 생겼지요. 그러니 목포가 예향 일번지라고 하지요. 목포예총은 남농 허건 선생이 초대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차범석 선생의 친동생 차재석 선생이 오거리의 아주 터줏대감이에요. 차재석 선생이 남농 선생 밑에서 예총 사무국장을 했지요. 그때 나는 목포예총에 안 들어왔지요. 내가 목포미협에 1971년도에 가입되니까 목포예총에 자동으로 가입이 된 거죠. 목포예총은 8개 협회가 있지요.”

목포예총은 1959년 6월 22일 무안동 오두막 2층에 예총회관을 마련한 뒤 1964년 9월 5일 무안동 1번지 남교동 공설시장 2층으로 회관을 이전한다. 다시 1970년 8월에 남교동에 위치한 목포교육청이 사용하던 건물인 목포시 무안동 5번지로 회관을 이전하였다가 1977년 8월 13일 무안동 10-15번지를 매입하여 1977년 10월 17일 예총회관을 이전한다. 이후 예총회장이었던 김암기가 송재구 시장에게 전시실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여 목포시로부터 남교동 111-9(공무원매점)의 공간 90평을 전시장용으로 예총에 사용 승인을 해준다. 1989년 3월 20일 남교동 111-9 시민회관 자리에 목포예총회관이 이전한다. 1997년 목포문화예술회관 개관과 함께 목포예총도 예술회관 1층에 자리를 잡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차재석씨가 예총회장 할 때 전시회 다 뭐다 할 때 남교동에 가면 목포교육청이 있었어요. 그가 있었을 때 이사를 갔는데 목포예총에서 그 건물을 샀어요. 당시 비도 새고 할 때인데 목포교육청은 좋은 곳으로 옮겨 갔고 현 낡은 목조건물을 산거예요. 나중에 서울 가서 활동했던 연극협회 김길호라는 사람이 사무실을 지키고 살았는데 회의가 있어서 가보면 비가 올 땐 바케스에다 물을 받고 할 정도였어요. 거기서 사무보고 회의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피아노가 한 대 있어서 내가 여렷이 놀려 가면 「목포의 눈물」 피아노로 치고 술 한 잔씩 먹고 그랬어요. 차재석 씨가 그 사무실을 팔아가지고 저기 저 중등포 가는데 쪽에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갔는데 그 돈을 우선 썼어요. 예총이 있던 교육청 자리 그 판 돈을 개인적으로 잠깐 썼어요. 그것을 누가 고발을 했어요. 공금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지었다고 그래서 차재석씨가 목포 교도소를 가서 그때 김암기 선생님하고 면회도 가고 했는데 결국 나왔죠. 그건 아니다 라고 판결은 났어요. 차재석씨도 지금은 돌아가셨고 초창기에 그분이 목포예총 행사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내가 첫 개인전 할 때도 날마다 와서 ‘김병고 선생 그림 좋아요, 그림 좋아요’ 하며 차도 사주고 하면서까지 활동 많이 하셨죠.”

목포예술제는 목포문화협회 창립과 더불어 1959년 11월 1일 제1회 목포예술제가 열린 뒤 현재는 목포시민의 날인 10월 1일 전날에 목포예술제 전야제를 하고 있다. 한국예총 목포지부는 국악협회,



그림 3 37회 목포예술제 미술실기대회 시상식



그림 4 목포개항 100주년기념 목포예술제 백일장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사진협회, 연예협회, 음악협회 이렇게 8개의 협회가 소속되어 있었다. 2013년부터는 한국예총 목포·신안지회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속 협회로는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연극, 사진, 연예, 음악, 수석, 평양예술단, 신안문인, 신안사진 12개 협회이다. 목포예술제는 이러한 협회 단체 회원들의 창작 예술 활동과 청소년 및 지역민들의 예능적 재질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차재석 선생은 남농 선생 밑에 있으면서 목포예술제를 만들었어요. 1959년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술제는 목포예총 소속 8개 협회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하지요. 10월 1일이 목포시민의 날인데 전날에 목포예술제 전야제를 하지요. 지금은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하는데 그때만 해도 장소가 없으니까 선창에 가면 노동회관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런 곳을 빌려서 전야제 및 예술제를 했지요. 노동회관에서 했을 때는 1970년대죠. 지금 임점오는 수석협회 그런 것도 예술제에 넣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술입니까. 창작이 아닌 있는 그대로인데 그런 것까지 세워놓고 예술제 가 보면…… 딱 8개 협회만 하면 되는 것을 말이에요. 목포예술제 전야제를 치루기 위한 시화전 같은 것도 해마다 했고, 송년의 밤이라 해서 거기에서 공로상도 주고 하지요. 또 10월 1일 앞에 9월 30일 날은 목포예술제 전야제를 하면 남농 예술상, 우하 예술상 등의 상을 주지요. 그럴 때 비용이 필요한데 그림을 몇 점 내놔 가지고 그 부상으로 주기도 하고 또 예총회장이 목포미협 회원들에게 부탁해서 한 점씩 기증해라 그래갖고 부상을 주기도하지요.”

목포 지역의 문학 발전에 기여한 소청 조희관을 기려 제정한 소청문학상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목포교단문학회 창립회장, 한국문인협회와 목포예총 지부장 등을 지낸 박순범은 1978년 목포예총 지

부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당시 목포미협 지부장이었던 김암기와의 예술제 운영관련 말다툼으로 인하여 목포미술협회와 연극협회는 1978년 목포예술제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 이후 미술협회는 수문당 2층에서 목포미협전을 따로 가진다.

“박순범 선생이 예총회장 할 당시인 1978년 즈음에 김암기 선생하고 엄청 대립이 있었죠. 그때 역 전파출소 앞에 황실 다방이 있었는데 김암기 선생하고 나하고 들어가니까 박순범 선생하고 그때 음 협 지부장하고 음악협회 발표회인 음악행사에 혜인여고 학생들을 많이 넣어 뒀어요. 예술제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김암기 선생이 ‘아니 프로들이 하는데 자기학교 학생들을 넣어서 하면 뭔 예술제냐’ 이야기 했지요. 김암기 선생이 ‘그럼 나 미협전 때 우리학교 미술부 마리아회고 미술부 학생들 막 같이 하면 쓰겠느냐.’하고 말했지요. ‘당신들 학생들은 콩클하고 우린 학생 사생대회 따로 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랬지요. 그러자 아산 박순범 선생이 ‘목포미협은 어쩜 예총행사를 그냥 트집 잡고 그러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김암기선생과 다퉁어요. 나중에는 어떤 기자가 목포 예술제에 대해서 썼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기사화 해버렸어. 그러니까 짐작으로 박순범 선생이 김암기 선생이 다음 예총지부장을 하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그냥 기사를 쥐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김암기 선생이 마리아회고에 있을 때인데 ‘내가 정년퇴임 해갖고 그때 하면 하지 지금은 지부장 안한다.’ 그러면서 둘이 입 다툼이 있었어요. 결국은 목포미협 이사회에서 ‘박순범 선생이 회장에 있는 한 우리 목포미협은 예술제에 참가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의를 해갖고 우리하고 연극협회하고 예술제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섯 개 협회에서만 했어요. 우리는 따로 수문당 2층에선가 목포미협전을 따로 가졌어요. 그 뒤로는 언제나 8개 협회가 행사를 했어요.”

7. 목포예총 회장 당선 일화 및 비화

김병고는 프로 화가의 길을 걸으면서 목포예총을 이끌어 가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교원 명예퇴직을 하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제11대 목포예총 회장을 한다. 그는 완전한 화가로서의 길을 걷고자 했던 결단의 결과 현재 지역의 최고 미술계 원로로서 인정받고 있다.

“내가 1995년 목포예총 지부장 당선될 때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당시에는 무용을 하셨던 최진열 선생이 예총회장



그림 5 김병고 한국예총 목포지부장 취임식

을 내 앞에 했어요. 최진열 선생이 두 번 하려고 했어요. 선배들 얘기인즉 현직에 있으면서는 하지 말고 반드시 사표를 내야 하고 학교에 있으면 교육청 산하에 들어가니 예총회장은 교육장하고 같이 행사를 할 때 테잎을 끊고 다니는데 수백 명 예술계의 제일 어른이 교육장한테 굽신하고 다니면 예술인들이 뭐가 되겠느냐 해서 명예퇴임으로 사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출마해서 최진열 선생에게 이긴 거예요. 미술 선생님 하면서 화가 노릇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프로가 아니에요. 나는 완전한 화가가 되련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 스스로 없이 내려놓고 화가의 길을 걸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포를 대표하는 원로 화가가 되었죠. 원로 화가라 해서 실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목포에서는 미술협회 행사나, 목포예총 행사를 가면 내가 언제나 최고 원로에요. 목포예술제를 한다든지, 송년의 밤 전야제를 한다든지 하면 내가 언제나 맨 앞에 가서 격려사를 하거나 축사를 하는 그런 정도로는 되었어요.”

김병고는 완전한 화가가 되고자하는 신념과 우하 김정재의 예총 회장 자리 양보가 있어서 예총 회장에 선출될 수 있었다. 그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제12대 예총 회장 선거날이 돌아오고 김정재가 후임으로 당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12대 예총 회장은 최일환 시인이 당선된다. 이후 김정재는 교육위원에 나가 당선 되었으나 당선의 기쁨을 뒤로 하고 추락사로 운명하게 된다.

“예총회장으로 나갈 때 조건이 있었어요. 김정재 시인이 산정초등학교 교장인데 ‘삼년 후에 내가 퇴임을 하게 되면 내가 하려니까 자네 한번만 하게.’ 하셨어요. 김정재 시인이 광주사범학교 선배거든요. ‘그럼시다. 형님 나 딱 3년만 할라요. 그 다음은 형님이 하쇼.’ 그랬죠. 그래서 전 3년을 지켰어요. 근데 우하 선생의 불행한 일로 연결되지요. 1998년 즈음에 최일환 시인하고 김정재 시인 둘이 내 후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딱 한 표차로 우하선생이 떨어졌어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교육위원으로 나갔어요. 당시 나는 목포서부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투표권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운영위원장에게만 선거권이 한 표씩 있었어요. 지금 시청 옆에 있는 KBS가 투표장 소가 되었죠. 나도 김정재 우하 선생을 뽑았죠. 당선 돼 가지고 축하 전화도 하고 방문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하 선생 집 지붕이 조금 새었던가 봐요. 지붕을 수리하려고 올라갔는데 사다리가 흔들려서 떨어져 벅쳤지요. 문병을 갔는데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총회장에 당선이 되셨으면 교육위원도 안 나갔을 것이고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텐데……. 운명이란 것이 그런 것 이에요.”

김병고는 1995년 예총회장에 당선되고, 예총회장의 역할로서 김현문학비 제막식이나 목포개항

100주년 기념 문화예술회관 개관식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연설 및 기념사를 낭독한다. 김현문학비 제막식은 1990년 48세라는 젊은 나이로 타계한 불세출의 목포 출신 평론가 김현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문학과지성사 김병익 대표를 비롯한 김현문학비 건립위원회 주최로 1995년 4월 15일 향토문화관 뜨락에서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하, 최하림 시인의 문학 강연과 활동규, 황지우, 김혜순 시인 그리고 목포 거주 시인들의 시 낭송회가 있었다. 아울러 제막식이 끝난 후 김병익 대표는 목포문학 중흥을 위해 창작기금 1천만 원을 목포문인협회에 전달한다.

“1995년 예총회장으로 있을 때쯤에 김현문학비 제막식에도 참여했는데 김현 선생이 문학평론가로서는 유명하신 분이죠. 그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난 목포에 묻히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분의 문인 친구들이 목포시청에 요구했어요. 목포 출신인데 ‘목포에 묻히고 싶다. 묘지를 좀 주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 생긴 것이 향토문화관이었는데 향토문화관 뒤쪽으로 돌아가면 언덕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에 묻혀 놨죠. 서울에서 상당한 문인들이 버스 대절해서 참석하려고 내려왔어요. 그때 제막식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 목포문화협회에 천만 원을 주었어요. 최재환 시인이 문협지부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것을 ‘목포 문학발전에 쓰시오.’하고 줬어요. 이에 보답한다고 최재환 시인이 나를 조른 거예요. ‘인사를 해야겠는데 예총회장이 그림 한 점 내 놓소.’해서 내가 그림 한 점을 드렸더니 서울에서 고맙다고 1천만 원 주신 분이 편지를 보내고 그랬어요.”

1997년 목포문화예술회관 개관식 행사 때 김병고 예총회장의 연설을 듣고 감동받은 보해양조 창업주 임광행 회장이 500만 원을 기부한다. 기부 받은 돈으로 시화전을 열고 시화집『목포의 고향시』를 발간하여 시청에 기증한다.

“목포개항 100주년 기념 목포문화예술회관 개관식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권이담 시장, 김홍일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그리고 나 이렇
제 네 사람만 축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맨 나중에 올라가서 상당히 열을 올렸죠. ‘이 건물 하나만 있으면 뭐하냐. 여기서 전시도 앞으로 해야 하고 무대에선 공연도 해야 하고 하니까 길 확장도 하고 버스도 다니게 해라 시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해라.’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임광행 회장이 내



그림 6 보해양조 임광행회장으로부터 500만원과 감사패 전달 장면

가 축사하는 것을 본부석에서 다 지켜봤어요. 임광행 회장이 ‘아, 연설 잘 들었다’고 악수를 하면서 내게 500만 원을 드리겠소, 했어요. 그 당시 김홍조 시인이 예총 사무국장 하고 있을 때인데 내가 김홍조 사무국장을 보냈더니 500만 원을 타갖고 왔어요. 내가 생각하기를 지금 에어컨도 너무 오래되어서 못 쓰겠고, 컴퓨터도 그렇고 시설을 할까 하는데 사무국장이 ‘그렇게 써 봤자 나중에 없어져버려요. 우리가 뭐하나 책자로 남긴다던지 그림을 남긴다던지 그렇게 씁시다.’ 하데요. 그래서 우리가 목포 출신 시인들을 열 몇 명을 선정하고 화가도 김암기 선생을 비롯해서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시화전을 냈어요. 그래서 나도 그때 황의돈 선생님하고 세 작품을 했었어요.”

목포는 전시공간이 부족하여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에는 주로 다방을 전시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전시공간으로 주로 애용했던 다방은 미네르바, 밀풀, 돌, 용, 미로, 새마을 다방이 있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미술협회 회원전을 비롯한 단체전이나 전시에 이용했던 전시공간으로는 황실, 세종, 목우, 해태 다방, 중소기업은행 목포지점 3층, 1980년 세워진 보광당 3층의 목포 현대화랑과 해목화랑, 예총화랑 등이 있다. 1970년대 다방이 전시공간으로 사랑을 받았음을 증명하듯 김병고의 첫 개인전도 1977년 5월 오거리 청예다방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오거리에 있는 다방에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애용된 것이 목포역 전파출소 건너편에 있는 황실다방이에요. 그때는 다방 아니면 할 데가 없었다니까요. 황실다방은 최마담이 경영을 했었는데 미리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해놔야지 다 차례가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전람회한다고 하면 자리가 없어요. 벽이 괜찮은 데는 한 40점 그러 안 하면 한 30점 걸어요. 너무 가깝게 불이면 안 되니까. 벽을 잘해놔요. 다방에서 전시장으로 이용하면은 대관료도 내고, 또 찻값도 매상도 오르고 하니까 벽 도배를 질하죠. 전시장 벽지처럼 좋게 해주고 조명도 딱 좋게 해놔야 해요. 그림은 빛이 생명이라서 빛이 딱 거기다 때려줘야 살지요. 전시회를 하면 미술부 학생들이 들어 올 때도 있어요. 학교 미술선생님이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들어와서 쭉 감상하고 나가더라도 손님들도 다 이해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평화극장 앞에 세종다방이라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도 했어요. 큰 작품이 있을 때는 중소기업은행 목포지점 3층에서 했고, 보통 소품전 할 때는 다방에서 했어요. 시민회관 생기고 나선 시민회관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그것도 먼저 선약을 해놔야 할 수 있어요.

목포 현대화랑은 최대양이라는 사람이 목포MBC에 근무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 퇴직금을 받아서 세웠어요. 해목화랑은 콜롬방 돌아가는 데서 최영일이라고 운영했어요. 주로 그룹전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목포쪽 사람보다 광주 화가들이나 이런 그룹들을 초대

해 가지고 초대전을 많이 했지요.”

목포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주로 다방이나 화랑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1983년 세워진 향토문화관 전시장은 개관 당시에는 시내에서 떨어진 위치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한 편이었고 대관 절차도 복잡해서 개인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룹전이나 단체전이 가끔 개최 되었었다. 1988년까지는 갓바위 향토문화관 전시실에서 전시회가 열렸으나 관람자 수가 많지 못하였고 전시 공간마저도 몇 년 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1992년 미술협회는 전시 공간 확장을 위한 남도작가 초대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1993년 5월 6일 서울공평아트센터에서 향토문화관 미술 전시 공간 마련을 위한 남도작가 초대전을 1주일간 개최하여 1억 5천만 원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돈도 시청 통장에 보관되어 있을 뿐이다.⁰⁵⁾ 전시공간의 부족 부분을 메꿔주길 기대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곳이 되어버렸다.

“목포향토문화관은 1983년 7월 1일에 개관했지요. 지금은 예술의 거리가 되었지만 갓바위가 그때는 뭐 아주 촌이었어요. 시골이었는데 제일 먼저 생긴 공공건물이 향토문화관이에요. 거길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화가들이 그림을 한 점씩 기증 했어요. 나도 그때 30호 짜린가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 출신 재경 화가들도 몇 사람 참여해서 한 30점에서 40점 정도해서 서예까지 하면 더 될 거예요. 그 작품을 기증해서 향토문화관이 생겼는데 그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었냐하면 돌, 조개 그런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전시실에 있던 작품들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기증한 작품들이 시청 창고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향토문화관을 뭐로 쓰고 있는가 몰라요.”

8. 김암기 예총 회장과 송재구 시장

김병고는 미협지부장 시절에 만난 송재구 전 목포시장을 1990년을 전후해서 목포시에 재임했던 관선시장으로서 예술계 대표들을 시장실에 초대하여 환담을 나누거나 자문을 구하는 자세와 예의를 갖추었던 시장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김암기 예총지부장이 목포예총을 이끌고 있을 당시인 1989년 2월 송재구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전시회장이 없어 다방에서 작품 전시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을 이야기한다. 이에 송재구 시장은 시민회관 내에 있던 공무원연금매장을 회관 밖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90평 규모의 전시장과 예총사무실을 마련해준다. 1989년 3월 24일 ‘목포예총회관 및

05) 김병고, 앞의 글, 500쪽.

예총화랑 개관식'이 이루어진다.

“예총화랑은 1989년 송재구 시장 때인데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2층에 시민회관이 있었어요. 시민회관이 여간 컸지요. 송재구 시장한테 김암기 선생이 예총회장 할 때 우리 예총 사무실도 주고, 전시장도 좀 주쇼. 거가 커갖고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베니어판으로 막아버리면 방 하나씩 생겼으니까. 예총사무실도 거기에 처음으로 생겼고 아래에는 장사하는 곳이고 2층은 시민회관이었어요. 연극 발표며 전시회랑 시화전, 목포미협전, 사진작가들 전람회 등 거기서 많이 했어요. 거기서 상당기간 있었지요.”

1989년 말 노태우 대통령의 목포방문이 있을 당시 송재구 시장은 김암기 예총지부장에게 목포에 문화예술회관을 세울 수 있도록 건립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 말을 제안하고 이에 수긍한 김암기 예총지부장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 말을 전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목포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도록 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약속 이후 건립을 추진하여 1997년 9월 29일 목포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게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목포를 오게 되었어요. 김암기 예총회장한테 송재구 시장이 당신이 목포시민 한 사람으로서,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어서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달라. 목포에 유력인사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서 김암기 선생이 ‘대통령각하’라 한 것 같아요.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를 가면 예술전당이 있어서 그리스 문화를 꽂피웠는데 우리나라 목포에 그런 큰 전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국비를 좀 지원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의 말을 했어요. 즉석에서는 대통령이 대답 안했어요. 인사 끝난 다음에 참모들 불러서 의논을 하더니 가면서 30억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때 30억 컸어요. 송재구 시장하고 김암기 예총회장하고 얼싸안고 뛰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문화예술회관이었는데, 어떻게나 공사하는 동안에 30억 갖고 안돼요. 그래갖고 완공하기까지 7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목포예술회관이 탄생하기까지요. 시에서도 그 뒤에도 돈을 많이 투자하고 예총에서도 기금을 마련해서 돋는다고 전람회도 해서 그럼 판 돈을 거기다 넣고 그렇게 해서 목포문화예술회관이 생긴 거예요.”

9. 목포 미술동호회

목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 동호인 조직은 일요화가회, 목포사생회, 지금은 없어진 동양화가 모임인 탐진회, 삼목회(森木會), 청유회 등이 있다. 김병고는 일요화가회의 지도교수와 삼목회의 초창기 멤버이자 회장으로도 활동한다.

“1978년경 만들어진 목포 일요화가회는 김암기 선생이 조직했어요. 김암기 선생이 회장이고, 그때 나보고는 지도교수라고 해서 했고, 아마추어들이 다니거든요. 대개 전문 화가들이 지도교수라 해서 들어가 같이 사생화를 그리러 야외에 나가요. 일요일에만 만나서 그리러 간다 해서 일요화가회가 조직되었는데. 지금은 일요화가회에서 거의 목포미협으로 들어와 버려서 전문 화가들하고 이제 시작한 사람하고 구별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일요화가회는 지금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몇 번 나도 현장에 나갔는데 야외 사생을 내가 점점 줄이면서 화실 중심으로 하면서 잘 안 나가요. 2000년 정도에 만들어진 청유회라는 단체는 처음에는 삼목회 안에서 활동했지요. 목포와 연고가 있는, 목포 출신 서울 작가들이에요. 목포에서 10년 이상 활동했거나 서울로 옮겼거나 목포가 고향이거나 목포에서 미술대학을 나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회원으로 해서 처음에는 같이 했어요. 그런데 작품 보내기도 어렵고, 복잡하니 우리가 청유회라고 따로 만들어 나갈란다 해갖고, 서울사람들은 청유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삼목회는 1980년 12월 김암기, 김용구, 김병고, 최낙경의 겨울 사생 여행에서 잉태되었다. 이들은 목포파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지역 미술의 토착을 위해 개척자의 고뇌를 감수해가며 후배들을 육성해 나가는 열망으로 발기되었다. 1981년 2월 목포 황실다방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회장 양인옥, 부회장 김암기, 총무 김병고 등 14명의 서양화가와 평론회원 최하림, 원동석 2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참가했다.⁰⁶⁾ 삼목회는 목포에서 활동하는 서양화 부분만해서 회원이 30명이 넘는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1981년 만들어진 삼목회는 김암기 선생하고 나하고 돌아가신 김용구 선생이랑 충청도 마곡사 쪽에 그림을 그리러 갔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김암기 선생이 제의를 했어요. 파리에 가면 전원파라고 있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보고 바르미종파라 하는데 밀레나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목

06) 김병고, 앞의 글, 512~513쪽.



그림 7 28회 국전 입선 작품 앞에서

포도 바르미종파 같은 목포 같은 그림을 그리는 전국적으로 목포파 같은 회를 만들자. 목포가 얼마나 그림 그리기 좋은 곳이냐 바다도 있고, 배도 있고 유달산도 있고, 삼학도도 있고 엄청 그림 그리기 좋은 곳인데. 우리도 그런 목포다운 그림을, 특색 있는 그림을 그리는 서양화가들의 모임을 갖자. 내가 그랬어요. ‘목자만 모아서 하자. 나무 목자 네게 가지고 만들면 삼목이 된다. 삼(森)자는 나무 목 세 개가 삼이고, 수풀 삼자다. 거기다 또 목(木)자를 붙이면 목자가 네 개가 되니까 얼마나 목포를 강조한 것이냐. 삼목회라 하면 좋겠다. 우리는 목포를 세 번, 네 번 사랑하는 서양화가 모임입니다.’라고 그랬더니 김암기 선생이랑 모두다 무릎을 딱 치면서 ‘그게 맞네. 자네 말이 맞네.’ 그때부터 삼목회를 했어요. 내가 활동을 쭉 하다가 삼목회 회장하면서 그랬어요. 입회 순으로 회장을 하자. 3년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 입회한 사람이 회장을 하자. 그래 가지고 쭉쭉 내려온 것이 죄영배 씨도 하고 지금은 문충길 씨가 삼목회 회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삼목회는 상당히 오래되어서 삼목회 회원전도 많이 했어요. 보통 가을에 회원전을 많이 합니다. 지금 목포뿐만 아니라 호남 쪽에서 제일 실력 있는 서양화가들의 모임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목포화단의 상당수의 화가들이 공모전에 많이 나가는데 서양화가에는 김암기를 비롯한 김병고, 김용구, 정청용, 최성훈 등이 있다. 이들이 주로 활동한 공모전은 국전, 목우회공모전, 전남도전이었다. 1965년에 생겨난 전남도전은 이 지방 작가 지망생의 유일한 등용문으로 작용하였다. 김병고는 국전 28회, 29회 두 번을 입선하고, 국전이 미술대전으로 바뀌자 더 이상 공모전에 작품을 내지 않고 목우회공모전에 도전한다.

1960년대 양인옥이 목포여자중학교를 거쳐 목포상업고등학교에 재직할 무렵 국전과 목우회전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1965년에 제14회 국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다음해인 1966년에 제15회 국전에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한다. 그보다 먼저 1963년에 양인옥은 제1회 목우회공모전에서 최고상 및 문교부장관상을 받아 목우회원이 되었다. 김암기는 1977년 제14회 목우회공모전에 출품하여 최고상을 수상하고 목우회 회원이 되었다. 이후 김병고는 목우회공모전에 특선 3회 획득(1979·1981·1982, 국립현대미술관)으로 1982년에 목우회원이 되고, 목우회 전남지회장을 지낸다.

“목우회(木友會)는 우리나라의 서양화의 원로들이 덕수궁 나무 밑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위해서 미술단체를 만들자 해서 나무 밑에서 그림 그리는 화우들이 만들었다 해서 목우회라는 설도 있고, 십

팔명 열십자에 팔자를 합하면 나무목이 되고 열여덟 명의 선배 화우들이 만들었다 해서 창립이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목우회 공모전⁰⁷⁾이 아주 세거든요. 목우전 제1회 때인 1963년에 최고상을 양인옥 선생이 받았고, 1977년 14회 때 최고상 받은 사람이 사양이라는 고기를 머리에 얹은 그림을 그린 김암기 선생이에요. 목우회 회원이 되려면 최고상을 받으면 한 번에 되요. 그렇지 않으면 특선을 3번하거나 열 번 입선하면 목우회 회원이 되었어요. 목우회 회원 되었다 하면 실력을 알아주죠.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처음엔 서양화만 하다가 동양화도 회원으로 넣자 그래서 동양화도 공모전에 넣어요.”

문주회(文酒會)는 1980년대 초 술도 마시고 시도 읊으면서 풍류를 즐기기를 원했던 문인들을 필두로 해서 만들어진 동호회이다. 문인들만으로 이루어진 동호회였다가 김병고, 김암기가 들어가서 화가도 포함된 문주회가 되었다. 목포 문화를 논하고 인생을 즐기는 목포 문화계를 주름잡던 문주회의 주령을 김암기가 하다가 작고한 뒤 현재 김병고 주령이 문주회를 이끌고 있다.

“목포에는 또 유명한 동호회가 있어요. 문주회라고 하는데 해양대학교 뒤에 언덕 있는 데에서 시인들이 자기가 먹을 술은 자기가 갖고 와야 되요. 막걸리가 되었던 정종이 되었던, 소주가 되었던 요령계 병으로 가져와요. 안주는 총무가 만들어 가지고 오면 거기서 시 발표회도 해요.

지금 차 없는 거리에 대안주점에서 나하고 김암기 선생하고 자주 갔었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있응께 문인들이 와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문인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화가들도 있으면 더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암기 선생하고 나하고 들어가갖고 화가들도 낀 문주회가 된 거죠. 술 좋아하는 선비정신을 가진 자. 뭐 이런 자격이 회칙에 있어요. 그래서 문주회가 계절에 한 번씩 모이죠.

처음엔 황의돈 선생이라고 MBC 있던 그 분이 초대 주령을 했어요. 문주회는 회장이라 안 하고 술주(酒)자를 써서 주령(酒令)이라고 해요.

문주회에서 2002년에 『뉘라서 이 술잔마다 하리』문집도 냈어요. 문집은 조그만 책으로 나왔는데. 김상범이란 사람이 총무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월매출판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각자 글들을 내라고 해서 나도 두 편을 냈던가 해서 만든 책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말할 때 오히려 당신은 그림보다 글을 써야 빛난다고 말하는데 그 내 사주팔자를 봄준 사람도 글을 써야하는데 할 정도로 청탁이 많이 들어와요.”

07) 목우회 공모전은 비록 민전이기는 하지만 사실주의 화가들에게는 국전에 버금가는 전국 규모의 큰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받거나, 특선 3회, 또는 입선 10회를 한 자는 목우회 회원으로 영입되므로 관심과 열기가 높았다(김병고, 앞의 글, 502쪽).

김병고는 목포는 예향 일번지로서 지역의 어느 곳을 가나 그림 한 두 폭, 붓글씨가 꼭 걸려 있을 정도로 예술과 멋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으며, 목포가 목포예술제를 통하여 많은 예술 인재들을 키워 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교원생활을 시작하면서 목포와 인근에서 50여년을 살아온 그는 목포 및 인근 지역이 그림 그리기에 최적의 조건이기에 화가로 목포에서 커나가는 사람들에겐 참 예향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그는 자신의 화폭에 작품을 확대 변형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넣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마지막 인터뷰 당시 78세를 막 넘기고 있던 그는 희망하기를 팔순(八旬)이 되면 본인의 그림을 모은 화집을 내고 기념전을 가지고자 했다. 그의 희망은 이루어져 현재 화폭에 담긴 팔순의 흔적을 모은 화집을 발간하고 기념전을 열었다.

정미영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2절 목포 최초의 서예학원을 설립한 서예가

유천(儒泉) 서종견은 1936년 곡성 출신으로 1962년 목포와 인연을 맺으며 유달서예원과 유천서예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4차례의 개인전을 가졌고, 목포에서 서예협회를 조직해 운영하는 등 서예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협역으로 지역 서예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의 여러 기념물과 현판에 그의 글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유달산의 ‘대학루’, ‘초의선사 추원비’, 그리고 목포진의 ‘목포지관’ 등이 있다.



그림 1 유천 서종견

1. 어릴 때부터 두드러진 글씨 솜씨

서종견은 1936년에 곡성을 신기리에서 아버지 서해규와 어머니 김초연 사이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위로는 누나와 형이 있었다. 그의 프로필에는 ‘동락현 주인’이란 명칭이 등장한다. ‘동락’은 고향 곡성에 있는 ‘동락산(動樂山)’에서 따왔다. 목포에서 50년 넘게 살면서도 늘 고향 곡성을 그리워한 탓이다. 곡성은 산악이 많고 농경지가 적은 곳이지만, 집안은 비교적 여유 있는 중농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었다. 더군다나 잠업기사로 곡성군청에서 근무한 아버지는 새로운 기술과 사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었다. 아버지는 나중에 곡성군 초대 면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조부는 지역에서는 유명한 한학자인 만송(晚松) 선생이었다. 외조부도 한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곡성 구월리에 사셨다. 곡성군은 비록 작고 가난한 군이지만 유교와 한학의 맥이 잘 전승되는 지역이었다. 서종견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곡성중앙공립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서당에서 고전을 공부 할 수 있었다. 그는 일찍이 글씨와 서예에도 남다른 소질이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람회에 낸 습자가 우수’하여 받은 상장과, 서예를 잘해 받은 상장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처럼 평소 글씨를 예쁘게 쓴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의 연애편지를 대필해주고 빵을 얻어먹은 경우도 많았다.

“내가 글씨 쓰는 재능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안호상 박사⁰¹⁾가 문교부 장관 때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습작 우수작이라고 서예 붓글씨를 잘 썼다고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남보다 글을 좋아하고 잘 쓰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제.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겨울방학이면

01) 초대 문교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재임기간은 1948~1950년이다.

시골 서당을 다녔어요. 나는 조부님이 엄하셔서 거역을 못하고……, 엄한 가훈을 많이 받고 살았지. 방학 때면 그렇게 서당에 가서 순 캄캄한 밤에 암송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야 다음 페이지를 가르쳐 주니까. 순전히 스파르타식으로 외우는 거야. 그렇게 구학문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동몽선습』을 배웠고, 그 다음에 『사자소학』, 『추구』, 『명심보감』, 『소학』, 『논어』 뭐 그런 과정을 배웠어. 『논어』 중간까지 하다가 그만뒀어. 외할아버지도 한학자 집안이었어. 그걸 보면 곡성이 한학 분위기가 진했던 것 같아요.”

서종견은 중학교 2학년 때 6·25전쟁을 맞았다. 이때, 집안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누님이 1950년 경기도 양주로 시집을 갔는데, 얼마 후 전쟁이 난 것이다. 마침 사돈 집안이 군인 가족이었다. 전쟁 와중에도 아버지는 양주에 올라가 딸의 행방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군인가족이라고 이북사람들이 후퇴 할 때 전부 데리고 올라갔다’는 말만 들었다. 결국 하나 밖에 없는 누나는 그렇게 헤어진 후 지금까지도 행방불명이다. 그가 30년 넘게 대한적십자사에 평생 후원회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혹시 살아있다면 88세(2017년 현재)가 될 누나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달라고 신청하지만 성과가 없다. 전쟁을 치른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다.

그가 곡성농고 2학년에 다닐 때였다. 아버지가 친구의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괴로움을 달래다가 결국 환갑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렵인가 아버님 친구 분이 곡성읍에서 아이스크림 빙과류 제작회사라고 할까, 얼음공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설립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보증을 서고 전답을 다 담보로 빌려줬어. 그런데 사업이 망해 부렸어. 그러니까 우리 집도 졸딱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어져 분 것이지. 그래서 대학 갈 엄두를 못 냈지. 그래서 대학을 포기해 부렸지. 그 뒤로 아버지는 거의 술로 생활을 하셨지.”

서종견은 학창시절 성적이 늘 최상위권이었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원망으로 남았다. 열정적인 청년인 그는 대학 진학 대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1957년 국회의원이자 자유당 부총재인 이기붕이 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정치훈련원에서 정식교육을 받기도 했다. 또, 당시 군대에 늦게 가기 위해 초등학교 임시교사를 잠시 맡기도 했다. 이렇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던 그는 결국 군대에 다녀온 후 25세가 되던

1960년 곡성을 떠나 광주로 이주했다.

2. 펜글씨로 맺은 인연, 목포

광주에서 직장을 찾던 서종견은 학원 강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중앙펜글씨학원 강사 자리였다. 그는 평소 글씨를 잘 쓴다고 자신하던 터라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시 학원장은 정연상이었다. 그는 대뜸 글을 써보라고 했다. 그리고 서종견의 글을 본 원장은 두 말 없이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다. 단, 한 달간 자신에게 특강을 받으면 강사로 발령을 내겠다고 했다. 서종견이 평생 글씨를 쓰면서 살게 된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정연상 원장은 서종견을 비롯한 7명을 사범과로 선발해 집중 교육시킨 후 한 달 후 모두 강사로 발령냈다. 동료들은 목포, 순천, 여수에 있는 중앙펜글씨학원 분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서종견은 대인동 광주 본원에 남아 강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1961년 광주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광주 본원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그 사이 목포 분원을 맡은 강사가 사정이 있었는지 그만 두었다. 그 빈자리를 정연상 원장이 직접 목포까지 다니며 강의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원장이 서종견을 목포 분원으로 발령을 냈다. 그는 갑작스럽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목포로 내려가라고 하니 막막했다. 더군다나 목포는 대도시가 아닌가. 그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깡패도 많다는 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목포에 첫 발을 내딛었다.

“목포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는데 뭐냐면, 군대 생활할 때 목포출신들이 참 역세드라고. 같은 내무반에서도 상당한 해제모니를 잡고 있고, 쉽게 말해 계급에 관계없이 좀 깡다구도 있고, 인상이 좋지 않아요. 목포 출신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질했거든요. 한문을 아니까 이해가 빨라서, 자화자찬 같지만 내가 항상 1등, 2등을 했지. 그래서 학생운영위원회장을 했어. 지금 말하자면 학생회장이여. 근데 전남 각 학교 운영위원회들이 모여서 토론한 적이 있어. 교장이 임명장 주고 여비까지 줘서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문태중학교, 목포사범학교 대표가 그렇게 말을 잘하드라고, 그 때 생각했지. 아, 목포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때로서는 목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 큰 도시였지. 또, 나쁜 말로 깡패도 목포에 젤로 많고. 겁먹었지. 그러나 한학에 ‘인자는 덕’이라고 ‘인자위덕(仁者爲德)’이라고 있는데, 어질고 착하면 적은 없다. 인자무적이다.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면 된다는 그 신념만 갖고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살자. 여기서 남한테 잘못하면 거칠나 불 것 아니냐. 그때 내 심정이었지. 목포에 와서 막 느낀 것도 그것이고.”

이때가 1962년으로 서종견은 27살 청년이었다. 펜글씨학원은 중앙시장 앞 2층 건물의 위층이었는데, 그 전에는 코주부당구장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중앙펜글씨학원 목포 분원장 겸 강사였다. 당시 펜글씨학원은 학생들로 만원을 이뤘다. 학원생이 100명 이상, 150명에 달한 적도 있었다. 그는 혼자서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으로 나눠 학생들을 지도했다. 펜글씨 교본이 필요해 그때 직접 만든 교재도 있었다.

그렇게 1년 동안 월급을 받는 강사로 학원을 운영하는데, 광주의 정연상 원장이 ‘직접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해 왔다. 좋은 기회였다. 그는 임대보증금과 학원 시설비 등을 지불하고 학원을 인수했다. 자신이 책임을 지고 펜글씨학원을 운영한지 몇 년이 지나면서 학원생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변화되었던 것이다. 고용주들은 단순히 글씨만 잘 쓰는 것을 떠나 경리 분야까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이것을 파악한 서종견은 1967년 호남극장 앞으로 학원을 옮기면서 새로운 인가를 냈다. 학원명을 ‘중앙글씨경리학원’으로 바꾸고, 과목도 펜글씨, 붓글씨를 비롯해 주산, 부기를 추가했다.

“내가 호남극장 앞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글씨를 배운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글씨만 가지고는 안돼. 경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 가지고 경리를 가르쳐야겠다. 주산, 부기를. 그래서 글씨 경리학원으로 인가를 다시 냈어요. 경리는 내가 전문이 아니니까 강사채용을 했지. 경리 쪽으로 치우치다가 운영을 해 보니까 역시 어려워. 그래 가지고 서예 붐이 날 것 같은 생각도 있고 차원 있는 글씨를 쓰자 해서 1976년도에 교육청에 인가를 낸 것이 서예전문학원으로 내가 최초야. 『내가 목포 최고』라는 책에도 소개됐어. 목포시에서 발행했는데…… 1976년도에는 유달서예원으로 정식으로 독립해서 인가를 낸 거야.”

목포시 최초의 인가를 받은 유달서예원이 개원했지만, 그 이전에도 무인가로 서예를 가르치는 곳은 있었다. 강진 출신의 조경석이 운영하던 ‘청호서도원’이었다. 청호서도원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운영되었다. 당시 전북 이리에서 서예가 최정균⁰²⁾을 매주 1~2회 초대해 지도를 받았는데,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라 여러 가지가 열악한 조건이었다. 결국 최정균이 더 이상 목포에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 된 후로는 지역의 서예가인 월파 김은섭(1924~1985)이 지도하기도 했다. 이 때는 ‘무구회(無垢會)’라는 이름으로 수도약국 2층이 공부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무구회도 무인가로 운영되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말았다.

02) 최정균(1924~2001): 소전 손재형을 사사했으며, 원광대 서예과를 창설하고 교수를 역임함.



그림 2 유달서예원이 1984년 현재의 자리인 대안동으로 옮기면서 그림 3 2차 유묵회전
남농 허건과 함께 기념촬영

서종견은 1963년에 결혼했다. 아내 김금자는 당시 한창 유행이던 양재학원 강사였다. 아내는 결혼 후 ‘라사라양장점’을 운영하며 가정 경제에 큰 보탬을 주었다. 당시 목포에는 양장점 외에도 ‘양복점’, ‘라사’가 많았다. ‘라사(羅紗)’는 비단이라는 한자말이다. 라사는 보통 양복점과 양장점의 기능을 모두 맡았다. 양복점은 남성 의복, 양장점은 주로 여성의 현대 의복을 수공으로 만드는 곳이었다. 이제는 공장의 대규모 생산으로 그런 정겨운 장소가 대부분 사라진 것이 아쉽다. 아내는 양장점을 17년 정도 운영한 후 시댁 조카에게 넘기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았다.

3. 목포 최초의 서예학원과 서예협회 출범

1976년 창평동에 유달서예원을 개원하면서 서종견과 김은섭이 수강생들을 직접 지도했다. 당시 학생과 일반인 수강생은 최대 60명까지 있었으며, 남녀노소 어린 학생들까지 정말 열심히 서예에 매달렸다. 모든 수강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체본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악착같이 노력했다고 한다.

문제는 김은섭과 서종견의 글은 정통서예가 아닌 일명, 서당글씨인 아류형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사회적으로 서당글씨는 아무리 잘 써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이제 정통서예가 필요했다. 하지만 정통서예를 배우고자 해도 목포에는 법첩에 의거해 지도해 줄 선생이 없었다.

“월파 선생을 우리 서예원 강사로 모시고 있었어. 내 선배니까. 강사로 2년인가 모셨어. 당시 목포 서예가 가르치는 체계가 서당글씨를 주로 가르쳤어요. 서예계 전문용어로 말하면 아류형.. 속된 말로 하면 서당글씨.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 반대가 법첩이라고 정통서예를 할라면 법첩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기존 글씨 쓴 것들을 보고 하는 것을 임서라고 하죠. 처음에는 임서를 해야 하거든요. 서예가 중국에서는 ‘서법’이라고 해요. 한국은 ‘서예’, 일본은 ‘서도’라고 그래. 모든 서예에 관한 책이 중국서 나온 것이 법첩이라고 그래요. 서법첩이지. 그 법첩을 해야 정통서예가 되고, 당시 국전이나 도전에서는 법첩에서 나온 글씨를 인정했지. 서당글씨는 법첩을 보지 않고 선생님 체본만 보고 한 것이여. 월파 선생이 그 대표자여.”

서종견이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민하던 중 서울에서 한지와 서예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제공해주는 ‘운림방’ 사장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 운림방 박 사장이 평소 잘 알던 소전 선생의 제자인 학남 정환섭(1926~2010)을 추천해 주었다. 서종견은 그날 이후로 매월 한 두 차례 서울에 올라가 정환섭에게 지도를 받았다. 이때가 1977년이었다.

“나도 그전에까지는 월파 선생님 하는 식으로 가르쳤지. 그런데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고 정통서예를 배워야겠다 하고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 물품을 공급해주는 박 사장에게 고민을 이야기 했어. 그러니까 그 분이 학남 선생님을 소개해주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 갔지. 서울미대 교수도 하시고, 이화여대 교수도 하시고, 원래 미술이 전공인데 서예를 잘하신 유명한 분이야. 소전 손재형 선생 수제자여. 그런데 여기 학원을 운영하면서 서울에 기거를 하면서 있을 수가 없어. 토요일이면 오전까지 학원 수업을 했거든. 그래서 토요일 야간열차를 타고 서울에 가. 일요일 날 아침에 몇 시에 방문할 테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하고 연락을 해 놓고, 생선이나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갔제. 매주 그렇

게 공부를 했어. 시간도 많이 걸리제. 그렇게 왕희지 필법, 구양순 필법, 전서, 예서 같은 것을 그분한테 배웠지. 그 선생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동연회(東硯會)’여. 서울서 전시도 하고 그랬어. 학남의 제자들 모임이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공부했지.”

서종견은 14년간 선생님을 모시고 정통서예를 사사받았다. 처음에는 매주 서울을 방문해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출품할 때 사전에 선생님을 뵙고 승인을 받은 후 출품하곤 했다. 처음에는 열심히 써간 작품을 ‘이것도 글씨냐. 차라리 쓰레기통에나 넣어라’고 눈물 나게 만든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라고 참고 견디며 묵묵히 체본을 받아쓰고, 법첩이 닳도록 글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전해 나갔다.

그렇게 쌓인 실력은 드디어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⁰³⁾에서 입선을 함으로서 빛을 발하게 됐다. 서종견은 지금도 가장 인상적인 수상을 1979년 국전 입선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전국대회인 한국미술대회에 입선한 적이 있었지만, 관전(官展)이 아닌 민전(民展)일 뿐이었다. 국전의 상훈은 특선과 입선 두 가지 뿐이다.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탈락인 셈이다. 국전은 동양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등으로 공모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이 입선작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특선작을 뽑고, 그 안에서 다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문교부장관상을 선정해 수여했다. 서종견은 그 후로도 국전과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입선과 특선을 모두 7회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지금은 국전이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전 단 하나 있을 때였어요. 지금은 공모전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때는 서예 분야에 딱 하나가 있었어요. 처음 입선할 때가 1979년도 일거야. 그때는 입선 하니까 도지사가 축전을 보내고 직원 시켜서 우리 집으로 꽂다발도 보냈어. 그때는 입선이 목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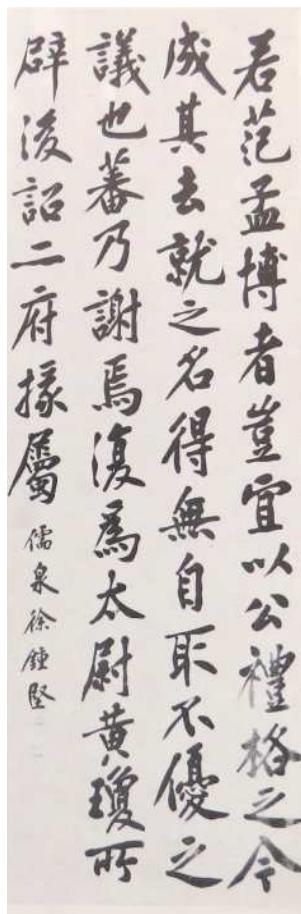


그림 4 서종견의 국선 입선작(1979년)

03) 대한민국미술전람회는 1949년부터 시작되어 한국의 미술 진작에 기여하였으나, 심사위원 선정 및 특선작품 선정 등에 미술계 제도와 권위가 지나치게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어 1981년 제30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고 민전으로 이양되었다.

하나. 나 할 때는 전라남도에서 두 명에서 세 명, 그 정도 밖에 안 돼. 인원이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이지. 지금은 족자로 해서 작품을 출품하기가 편하고, 또 족자도 않고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서 출품하기가 좋지만, 우리가 할 때는 액자로 만들었지. 액자를 만들어서 들고는 못가니까 화물차에 싣고 소화물로 위탁을 해. 그리고 밤에 올라가. 칭칭 포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야간기차를 타고 가. 그 물건도 같은 기차 화물칸에 있어. 서울역에서 내려 그것을 찾아. 그러면 용달차를 빌려, 그것을 싣고 접수부로 들어가서 접수해. 그런 고생을 했어요.”

당시 표구는 시내의 여러 표구사에 의뢰했는데, 1970년대 초 동명동 4차 개발지에 새로 생긴 표구점을 주로 이용했다. 아무래도 장소가 넓어 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곳이 그 정도뿐이었기 때문이다. 종종 서울 인사동에 맡기기도 했지만, 목포에 비해 값이 비싸 자주 맡기지는 못했다. 당시 표구를 맡긴 곳 중의 한곳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유선당이다.

서종견은 목포에서 활동했던 선배 서예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 교수로 있던 목포 출신 평보 서희환(1934~1998)도 소전 손재형(1903~1981)의 제자로 특히 같은 성씨라 친하게 지냈다. 1960년대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서희환이 목포에 올 때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서예 이론에 대해 토론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하 김정재(1930~1998)도 함께 정통서예를 공부했기에 각별한 관계를 맺으며 지냈다. 김정재는 최정균의 제자로 익산까지 다니면서 사사한 인연이 있다.

현재 목포에는 서예학원이나 서예연구원 등이 15개소 정도 있지만, 교육기관끼리의 협회나 모임은 없다. 대신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나 한국서예협회 목포지부처럼 각각의 모임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모임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서종견은 학원을 운영하는 상당수 원장, 강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볼 때마다 안타깝기만 하다. 자체 학원을 통한 수입이 적다 보니 공공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서예반에서 강사비를 받으며 강사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복지관, 자치센터, 문화센터에서 비정기적이고 소규모 서예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체능 분야의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늘면서 그나마 있던 서예반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서예인구가 줄면서 그도 2007년경 유달서예원 등록을 취소하고 유천서예연구원 명의로 만 몇몇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나도 미협 부회장도 하고 그랬어. 미술협회 내에 서양화분과, 한국화분과, 조소분과, 서예분과가 있어. 그런데 서예 인구가 제일 많아. 많은데 분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서예협회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지. 모두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런데 서울의 여초 선생(김응현,

1927~2007) 계열에서 중앙 중진들이 미술협회에서 안 빠져 나온 거야. 미술협회에 계속 있을란다 그런 거야. 그래서 두 갈래로 갈라져부렀지. 나는 서예협회로 독립하자는 측에 속했지. 그래서 내가 미협에서 나와서 서예협회를 만들었지. 전국의 학남 계열은 다 그랬어. 또 한 단체가 여기저기도 안 들어간 파가 있었어. 그 팀이 중개를 하다가 양쪽 다 안 듣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국서가협회를 만들었어. 내가 알기로만 해도 서예조직이 네 쟁가 다섯 개가 있어. 그것이 목포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서종견은 목포미협 서예분과에서 독립해 나와 한국서예협회 목포지부를 설립하고 초대 목포회장을 맡았다. 그리고 한국서예협회 2대 전남회장도 역임했다. 이미 전국적으로 미술협회에 속해 있던 서예인들이 별도의 조직을 꾸리자고 결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가 1989년이다. 그 후 회원들은 열성적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출품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다만, 이로 인해 목포미술협회는 서예협회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는 목포에서 가장 오래 서예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제자들이 많고 그 제자들도 훌륭한 평가를 받으며 작가활동을 하고 있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고 할까, 이제 제자들과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처지이기도 하다. 제자인 죽전 송홍범은 김대중 대통령의 명정(銘旌) 글씨를 쓴 것으로 유명하고, 장성연, 오효탁, 주은일, 김성준, 원주에서 활동하는 김송전 등도 자신들의 영역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장성연은 한글로서 책도 많이 낸 친구였지. 삼학도가 집이었고, 목포해양고등학교를 나왔잖아. 해양대 정문에 목포해양대학교라고 쓴 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쓴 것이야. 오효탁은 목포에서 서협 활동하면서 살지. 아일서예원도 하고 있잖아. 호가 야일이야. 죽전은 나한테 일찍 배워서 학원을 차려 나갔지. 원광대에서 정식으로 서예를 배운 서거라, 박영도 여기 둘이는 죽전의 제자야.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여. 나한테는 손자들인 셈이여. 김성준, 그 친구도 내 제자고. 지금은 오전에만 다섯 명이 나와서 연습하고 있어. 지도도 오전에만 해. 오후에는 건강 때문에 운동 나가고. 가끔 한 달에 한번 와서 ‘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하는 제자들도 몇 명 있지. 열심히 안하는 제자를 보면 안타깝기는 하지. 한자라도 함께 연구하면 좋지. 제자들도 잘 쓰니까 같이 연구해야 돼.”

4. 현신적인 사회활동과 창의적인 예술활동

서종견은 예술 활동에 전념하면서도 사회봉사에 늘 관심을 가졌다. 혼자 힘으로는 힘들지만 단체에 소속되면 미력하게나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림 5 복원된 목포진에 걸린 서종견의 글씨 '목포지관'(2014)

그러던 중 피플투피플(People to people: PTP) 단체를 소개받았다. PTP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차 대전을 종전하면서 설립한 민간단체이다. 사소한 일로 국가 간의 감정이 대립돼 드디어는 엄청난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인류가 만들어낸 재산이 파괴되는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시작된 민간단체다. 각국의 시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대화를 나눈다면 오해도 풀리고, 평화가 올 것이란 믿음을 전제로 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사회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나도 크게 자선을 못 베풀망정 뭔가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고, 각종 서적에서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힘은 어렵고, 단체에 들어가야겠다. 일반 라이온스나 와이즈맨, 로터리클럽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PTP는 그렇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순수한 봉사단체이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달산에 올라가면 PTP 동산도 있어요. 김동석 시장이라고 군 출신인데 5·16 혁명 나가지고 목포시장으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김동석 시장이 PTP 목포 회장이었을 거야. 아무튼, 목포 유지들이 많이 참여했지. 가입해 가지고 꾸준히 있으면서 중앙국제본부에서 내가 30년 근속 표창도 받고 그랬지.”

목포PTP 봉사활동은 주로 광주 송정리와 함평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위로하고 서로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교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서종견은 1980년대부터 10여 년간 목포교도소에서 교화위원으

로 활동하면서 재소자들에게 서예를 가르치기도 했다. 서예 수강생들은 주로 장기수 중에서도 모범 수들이었다. 매주 교화운동의 하나로 진행됐는데, 모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서예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을 인식시켜주고 싶었다.

“서예는 먼저 먹을 갈면서 심신을 간다고 여겨야 돼. 심전이라고 내 마음의 밭을 간다는 뜻이제. 이 붓을 잡을 때는 정신을 일도 한다. 또 글귀를 쓸 때 좋은 글귀를 선택해서 쓴다. 그러면 잡념이 없어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얀 화선지에다가 좋은 글씨를 써. 예를 들어 권선징악을 쓴다 이 말이여. 그러면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읽으면서 교화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좋은 글귀를 그 시간에 전달해서 외우게 만들고 쓰게 만들제. 10년 동안 배운 사람도 있게. 김 모 씨라고, 순창사람이여. 착하기는 엄청 착해. 글도 잘 써. 교도소에 있을 때 출품도 시켰지. 그래갖고 입선도 하고 그랬어. 출소해가지고 여기를 한 번 왔드라고, ‘앞으로 열심히 살랍니다. 선생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하고 갔어. 또 한 놈은 여비 주라고 온 놈도 있었어. 글 쓴 사람이 먼 돈이 있데야? 그러니까 ‘그리면 선생님 작품 2점만 주세요.’ 그런 놈도 있어. 허허.”

서종견은 유달서예원에서 1년 이상 서예를 공부한 수강생들과 학원 출신자들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는 ‘유묵회(儒墨會)’를 조직했다. 전시회장에는 유명 인사들을 많이 초대했다. 남농은 늘 전시장을 방문해 격려해주는 단골 후원자였다. 1980년대 목포에는 변변한 전시장이 없어 교통이 편한 시내의 다방을 많이 이용했다. 자주 이용되던 다방은 황실다방, 밀물다방, 세종다방 등이었다.

서종견은 목포서예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학생휘호대회에 개인으로는 처음으로 장학금을 출연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회에서 한 작품을 선정해 ‘유천서예상’과 함께 부상으로 30만원을 지급했다. 그는 원로로서 뭔가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결심을 했다. 실제, 대회에서 개인이 비용을 내 별도의 상금을 주는 경우가 목포에서는 처음이었다.

서종견은 창의적인 예술 활동에도 전념하면서 목포의 공공장소에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대표적으로 유달산의 대학루 현판, 목포진의 목포지관 현판을 비롯해 금석문으로 유달산공원조성기념비, 남농기념관비, 국도1호선 기점비, 초의선사 추원비 등이 있다. 특히, 금석문의 경우 한 번 기록하면 천년을 남기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이들 작품들은 목포와 인근 지역을 대표할만한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다.

“현판 글씨를 의뢰하는 것은 연고가 깊다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씨체는 누가 쓰더라 그런 것들을 고려한 거지. 대개 이 계통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겠지. 나는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초의선사 추원비를 쓸 때 이재현 무안군수가 직접 찾아 왔드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써주실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하드라고. 비문 글자 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한글하고 섞어서 써야 해요. 서예는 한글만 쓰거나 한자만 쓰는 것은 좋지만 섞어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이 난제였어. 한자하고 한글하고 섞어서 쓰는 것이. 육각형 빙 둘러서 비문이여. 그게 가지고 썼어. 목포진의 목포지관 글씨도 내가 그걸 맘대로 쓴 것이 아니고 원고가 왔지. 대개 현판 같은 것은 주무관서에서 의뢰를 할 때가 있고, 주무관서의 지시를 받아서 시공자, 건축시공자가 의뢰할 때가 있고 그래요.”

한글서예와 한자서예는 기본적으로 볶으로 쓰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한글서예는 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획이 단조롭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글 ‘다’는 세 획인데, 차 다(茶)는 한문으로 열 획이다. 한글로 ‘대한민국’은 획수가 몇 획이 안 되고 단조로운 반면, 한문은 획수가 많다. 어떤 것은 마흔 획이 넘는 것도 있다. 그런 탓에 한자서예는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기가 어렵다. 또한, 한자는 전서체, 예서체, 행서체, 해서체, 초서체가 주로 쓰이고, 더 세분화하면 갑골문자도 있고, 같은 전서라도 금문체 전서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한자의 서체가 너무나 다양한 반면, 한글서체는 판본체와 궁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도 무방하다. 결국 획수와 서체의 종류에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서예인들은 동양의 고전에서 좋은 글귀를 선택해 작품으로 남긴다. 대표적인 고전들로 『논어』, 『맹자』, 『노자』 등이 있지만, 모든 서예인들이 고전 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은 글귀들만 담은 모음집을 보기도 한다. 서예에 20년 동안 전념해도 자신의 창의적인 작품을 하나 선뜻 써내기 어려운 조건에서, 동양고전의 한 분야를 그만큼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이다. 그에게 서예와 고전을 공부하고 자신의 작품을 하나 창작해 낸다는 것은 뼈를 깎는 듯한 과정의 결과물이었다.

“서예 하나만도 20년 꾸준하게 해도 얼른 작품 하나 못 써내요. 그런데 한학도 할라면은 한 20년 공부해야 될 텐데, 어렵지요. 한학을 전문으로 하고 서예도 전문으로 하면 좋지요.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인물들은 드물지요. 양손에 다 떡을 절 수가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 가지에 치우치면 또 한 가지가 약해져요.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나 싶어요. 작품을 하나 낸다는 말은 총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창의적 작품을 만드는 거지요. 자기 머리에서 세상에 아직 안 나타난 것을 새롭게 창안한 것이 작품인데, 모방 작품도 많잖아요. 모방도 예술이니까 임서만 해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다 임서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창작을 하는 거지요. 임서에서 많은 능력을 갖춰내야, 우리나라와야 창작이 나오는 거죠.”

서종견의 예술적 기질은 그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제자들 중에서 서예대전의 초대작가가 되고, 큰 대회의 심사위원이 된 인물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각종 대회에 입선을 할 경우 1점, 특선의 경우에는 3점을 받아 그 점수가 각 대회의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한 점수에 다다르면 초대작가가 된다. 서협의 경우에는 10점을 받으면 초대작가가 된다. 하지만 입선 성적만으로 10점을 따더라도 특선이 한 번 이상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추천작가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심사를 하게 된다. 이때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품까지 평가하는 점이다.

“초대작가에 관한 협회 내규가 있어요. 그리고 초대작가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에 가지고 규정에 맞는가 검토하고, 실적 보고, 또 그 사람 인품도 보고. 왜냐하면 그 지역사회에서 ‘저 나쁜 놈’이라고 지탄 받은 놈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글만 써서 점수를 땐다고 초대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여. 그래서 매년 초대작가 선정 심사가 있제. 그런데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것이 굉장히 엄했어.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너무 남발을 해요, 많은 사람을 초대작가로 만들어부려. 다량생산을 해 분다는 말이여. 그 대회를 운영할라면 출품수가 많아야 할 것 아니여. 연고를 만들라고 그런 수법을 쓰고 있어.”

초대작가가 됐다는 것은 오랜 경력과 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초대작가가 양성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마음이 바르면 글씨가 바르다[心正則筆正]’고 하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서격(書格)을 갖추었지만, 인격을 갖추지 못해 인정받지 못한 현실을 보면 그렇다. 그는 인격과 서격을 겸비한 사람들을 제자로 양성하는 데 그만큼 중요한 방점을 두었다.

5. 필생의 마지막 전시회 계획

서종견은 한중일 국제초대전에 참가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몇 차례 방문했다. 일본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히라가나’를 흘림체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읽을 수도 없고, 소품 위주의 작품이라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한자 서예의 종주국인 중국작품들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기에 충분했다. 일단, 규모 면에서 상상할 수 없는 대형작품들이 많았다. 작품 수준도 높아 ‘한국인들이 그들 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작품도 ‘간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번자체’라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중국도 곧 간자체로 서예를 한다면 지금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본다. 당장 시내에 걸린 간판만 보더라도 간자체가 아니던가. 그래서 그는 틈만 나면 중국어 간자체를 익히며 공부하고 있다. 그의 책상 잘 보이

는 곳에 간자체가 펼쳐져 있다. 늘 보면서 익히기 위해서다. 이처럼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가 대학에서 공부하지 못한 한을 1975년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며 경영진단사 자격증을 딴 것으로 풀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열정의 결과였다.

서종견은 개인전을 모두 4회 개최했다. 공교롭게도 세 번의 전시회가 모두 나이와 관계된 전시회였다. 60세 회갑전, 70세 고희전, 그리고 77세 희수전, 나머지 한번은 2013년 전남문화예술상을 수상한 기념으로 고향 곡성문화원 초청으로 진행된 개인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전을 소개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았나 늘 경계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내가 소문난 것만큼 글을 잘 쓰지 못해요. 필력이 없어요. 전시는 일종의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창안을 했다 하고 세상에 내보낼 때는 자랑삼아서 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랑할 만큼 글이 안 나와, 자신이 없어. 그래서 명분을 찾는 거지. 회갑 하면 모두 잔치하잖아요. 그래서 됐다. 그동안에 글만 써 왔으니까 전시를 하자. 그래서 목포문화방송 전시실에서 첫 전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고희전을 하고 또 희수전을 했지. 고희전, 희수전도 핑계여. 그러면 오픈하는 날 지인들을 불러다가 오픈식도 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따로 가족끼리 고희라든지 그런 행사를 갖지 않고, 전시장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좋아한 분들도 많지만, 목포는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세 번, 네 번 하면 많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전시를 하면 인사차례로 사주는 것도 있고, 또 예의 갖춘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요. 그러니까 일체 희수전부터는 내가 그런 것을 안 받기로 사양해 버렸어요. 그런 것이 폐가 돼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이건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나이가 더 많아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글씨하고 좀 멀어지겠구나,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오면 회고전을 한 번 해볼까 해요. 그 동안에 내 때 묻은 글씨들……. 작품들을 연도별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것이 성스럽게 잘 되련지 몰라도. 그런데 그것만 하면 심심하니까 사자성어를 365일 매일 한 글귀씩 읽어보자는 뜻으로 사자성어 365 글귀를 모아서 한번 그때 전시를 해 볼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의 말대로 회고전이 열린다면 지역의 원로 서예가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당나라 손과 정의 『서보(書譜)』에 ‘인서구노(人書俱老)’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글씨도 쓰다보면 나이와 함께 늙는다는 말이지만, 어느 정도 글씨를 쓰면 서예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참다운 경지에 이른다는 뜻이다. ‘소년 문장은 있어도 소년 명필은 없다’고 하지 않은가. 그의 글은 인생을 오래 산만큼, 더욱 깊어진 삶의 무게가 글을 통해 나타날 터이니 그의 마지막 전시회는 기대해 볼만 하겠다.

서종견은 목포 서예계에 희망을 갖고 있다. 급격히 현대화되는 시대에 젊은이들이 서예에 관심을 갖지 않은 가운데서도 서예를 지도하는 곳이 15곳이 있다. 특히 젊은 작가들이 서예를 전공하고 현대



그림 6 작품에 전념 중인 서종건



그림 7 제56회 전남문화상 수상기념 고향전
(2013년 6월 곡성문화센터)

서예의 한 장르를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했다.

“서예가 중요한 문화 예술적 장르인데 안타깝게도 서예가 급격히 쇠퇴해 가고 있어요. 소위 컴퓨터 문화가 도래하면서부터인데 모든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돌잖아요. 앞으로의 목표 서예는 전문서예... 짧은 작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 하리라고 봐요. 안목이 있고, 대학 석사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그런 교육도 받고, 역량을 충분히 갖춘 짧은 작가들이 있으니까 대범하게 잘 하리라고 보고, 또 해야 만 되고요. 우리시대의 서예는 진짜 조용했어요. 정중동(靜中動)⁰⁴⁾이라고 할까, 오로지 서예에 소문내지 않고 공부하면서 후배들 양성하면서 이것이 정도였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든만. 좀 더 활동적이고, 좀 더 적극적이고,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현대서예라고 해서 기상천외한 작품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나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명칭이 현대서예보다는 조형서예라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

조형서예는 볼거리를 좀 더 자극하는 서예다라고 생각해요. 정통서예만 고집한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글씨를 저것도 글씨냐라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만 현대서예나 조형서예는 전통서예처럼 어설프게 하다가는 망신당해요. 그만큼 철저하게 고민하고 머리를 쓰고 노력해야 발전하는 분야지요.”

원로 서예가의 기대대로 예향 목포에 묵향의 향기가 진하게 남아 오랫동안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그는 1남 3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아내와 대안동 3층 자택에 기거하며, 2층 서예연구원에서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04) 정 가운데 동을 감추고 있는 것이 참된 정이요, 정 가운데의 정은 참된 정이 아니라는 설.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는 뜻(『채근담』).

제3절 목포가 낳은 최고의 배우

김성옥은 1935년생으로 목포 죽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천주교의 영향 아래 성장했다. 그는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국립극단 배우로 시작해 1960~197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 배우로 성공한 것이 목포중고 시절 선생님들의 교육 덕택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는 극단 대표, 무역업, 교수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다 현재는 목포에서 연극계 후배들을 지도하며, 목포의 문화적 자존감을 되살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

1. 천주교의 그늘 속에서 보낸 어린 시절

김성옥의 아버지 김금룡은 1914년 무안군 망운면 태생으로 무안보통학교 졸업 후 목포에서 장사를 하다가 20세가 되던 해인 1934년 박기남을 만나 결혼했다. 김금룡은 장사를 잠깐 했을 뿐 평생을 천주교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으로 보냈다. 연고가 없던 암해도에 들어가 천주교신장공소를 직접 짓고 운영하며 성도들을 보살피는가 하면, 레지오마리애⁰¹⁾라는 천주교에서 아주 활성화된 모임을 대한민국 최초로 조직하기도 했다.

6·25 때 목포의 유일한 성당인 산정동성당이 인민군의 주둔지로 이용될 때였다. 본관 정면 벽에 설치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상을 인민군이 칠거해 팽개쳐 둔 것을 김금룡이 직접 어깨에 메고 집에 가져와 몰래 숨겨두었다. 어린 김성옥이 우연히 다향방 문을 열고 어두운 방에 세워진 십자가상을 보고 ‘사람이 죽어 있는 것으로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김금룡의 신앙심은 인민군의 탄압에도 전혀 굴하지 않았다. 그때 온전히 보존된 십자가 예수상은 현재까지 산정동성당 본관 정면에 그대로 걸려 있다.

김성옥의 어머니 박기남은 경남 하동출신으로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인 박내홍이다. 박내홍은 1897년 하동군 양보면에서 한약국 아들로 태어나 3·1 운동 직후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박중례란 가명으로 활동하기도 한 박내홍은 1920년 일제에 검거된 후 1921년 수감되었다가 1922년 출옥 후 하의도와 목포 등지에서 투쟁을 계속했다. 1935년 다시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에 시달린 뒤 징역생활을 하다가 출옥한 다음해인 1937년 세상을 떠났다. 사위인 김금룡은 장인 박내홍을 목포시 공동묘지에 모셨다가 본인이 천주교 신자가 된 뒤에 산정동성당 본당묘지로 이장했다. 외손자 김성옥은 1995년

01) 가톨릭교회의 평신도 신앙공동체로 '마리아의 군단'이란 의미를 갖고 있음.

박내홍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자 외조부묘를 2000년 10월 19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⁰²⁾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싫었어. 왜냐하면 서울로 대학 가서 하숙도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무런 별이도 안하고 성당에서 봉사만 하니까 속상했지. 사실.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싶었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안은 모두 그렇지. 외할아버지가 하동의 부잣집으로 박영감님 아들 댁이라면 유명한 곳인데, 독립운동 할 때 다 팔아먹어서 할머니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은제 요강 까지 다 팔아먹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사실 나는 잘 몰라요. 우리 집안에서 암도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아버지가 압해도 공소에서 고생했을 것이라는 것만 짐작하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 환갑 때 공소 앞에 이렇게 굽은 벚나무를 보고 ‘누가 심었냐?’고 하니까 ‘내가 와서 심었다’고 그 한마디를 하시든만. 내가 그리(신장공소) 지나갈 때는 꽃다발을 사가지고 가서 성모동상 앞에 놓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환갑잔치를 여기에서 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을 법으로 못하게 할 때여. 호화결혼식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고생해서 짓고 해서 성당 개소식을 우리 아버지 환갑잔치에 맞춘 거야. 그래서 내가 압해도 출신이라고 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그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압해도 전 지역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불편하고 병원에 갈 일이 있는 사람들이면 다 챙기셨어요.”



그림 1 연극을 처음 시작했던 산정동 성당 앞에 선 김성옥



그림 2 일본인들이 다니던 명조유치원에 김성옥도 2년간 다녔다.

02)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불꽃이 향기가 되어』2, 으뜸사랑, 2017.

김성옥은 1935년 목포시 죽동에서 태어났다. 성옥이라는 이름은 할아버지가 짓고, 한자는 독립운동가인 외할아버지가 붙여주었다. 김성옥이 4살 때부터 유치원에 다닌 것을 보면 집안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는데도 손자를 일본유치원에 보낸 것은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는다.

산정초등학교에 입학한 김성옥은 어머니를 졸라 학교 옆 철길 근처의 책방에서 삼학도 전설에 관한 소설책을 사서 읽은 기억이 있다. 유달산과 삼학도 선녀의 이야기는 재미있었지만, 활에 맞아 죽는 처녀들 이야기는 너무 슬펐다. 이렇게 감수성을 키워온 김성옥에게 유달산은 알프스 산보다 더 높고 멋진 곳으로 가슴에 남았다.

김성옥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처음으로 외할머니를 따라 성당에 나갔다. 당시 젊은 외삼촌이 돌아가시자 충격을 받은 외할머니가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후 아버지와 어머니도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천주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열 살 때 ‘도비아’란 세례명을 당시 성당의 신부님에게 받았다. 성당에서 복사⁰³⁾를 맡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라틴어로 기도문을 외우고 도와주는 역할이었다. 복사를 한 경험 때문에 이후 복사를 맡는 모든 아이들을 김성옥이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겨울에 눈이 쌓여 나가기 어려울 때도 새벽에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성당에 나갔다. 무엇보다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극을 접하고, 시작한 것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저는 35년생이고요. 죽동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생가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여튼 일찍부터 조숙해 가지고 4살 때부터 유치원에 다녔어. 일본어 히라가나를 4살 때 다 배웠어요. 그 시절에. 희성유치원이라고 남교동 신안군청 있지요? 그 밑에가 있었어요. 그 유치원을 다녔어요. 거기는 한국인이 운영하는데 곳인데 네 살부터 여섯 살까지 다녔어요. 일본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오거리에서 유달산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위 사거리. 원편으로 교회자리에 있었어요. 이름은 명조(明照)유치원이었어요. 2년 동안 다녔지. 우리 할아버지가 애국자였는데도 나는 일본 유치원 다녔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여덟 살에 산정국민학교에 들어갔지. 내가 산정동성당에서 유명했어요. 복사라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라틴어로 다 했어. 내가 오랫동안 성당에서 복사를 맡은 아이들을 다 갈쳤어. 겨울에 눈이 여기까지 빠져도 새벽에 가. 신부님들이 일어날 때 까지 기다렸다가 복사하고 오고 그랬어. 재수 좋은 날 초코렛을 하나 받으면 가져와서 할머니 드리고 그랬어.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해방이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로 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한 번 써 주라고 해서 내가 3시간 동안에 다 한글을 배웠어. 옛날에는 교회에서 12시가 돼야 성탄미사를 하는데, 통행

03) 가톨릭교회에서 사제의 예식집전을 보조하는 평신도, 어린이들이 주로 맡음.

금지가 있으니까 미리 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성극을 준비한 거야.”

당시 성당의 성극 대본은 김동건 성도가 썼고, 주연과 연출은 학생인 김성옥이 맡아서 진행했다. 연극에 반드시 필요한 음악도 그가 선곡을 했는데, 클래식 곡을 상당 부분 가져다 배치했다. 어린 학생이 음악감독까지 한 셈인데, 아무래도 신부님들과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배운 탓이 아닐까라고 그는 회상했다.

2. 김성옥을 만든 목포의 중고등학교 교육

김성옥은 산정초등학교를 졸업하고 6년제 목포중학교에 입학했다. 당시에는 고등학교가 없었는데, 중학교 3학년을 마칠 때 고등학교 제도가 생겨 시험을 치르고 목포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목포중학교는 5회 졸업생이고, 목포고등학교는 3회 졸업생이 된다.

목포고 동기는 모두 250명이었는데, 그 중 정시채(전 농림부장관), 최영철(전 국회의원), 전석홍(전 전남지사) 등 장관이 3명이나 배출되었다. 그는 중고 시절 철학에 심취해 인간과 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책을 읽기도 했다. 이런 관심은 목포중고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받았다. 당시 목포중교장은 조정두 선생이었다. 조교장은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고시에 합격해 24살에 완도군수를 역임했다. 교장선생으로 올 때는 40대 초반 정도로 기억되는데, 교장선생님이 전국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모셔와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다.

김성옥이 목포고를 막 졸업하고 명동성당에서 열린 한 달 일정의 강습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과정을 마치고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하나님이 계시는 5가지 증명을 논하라.’ 그는 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었다. 오랜 신앙생활과 철학적인 사고를 한 경험이 있어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당히 1등을 했다. 그때 상으로 받은 성모상을 지금도 집에 보관하고 있다.

“기본은 내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선생 밑에서 공부한 거야. 좋은 교장 선생님이 계셨고. 서울에서 보면 광주일고니 경기고니 자랑 많이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어요. 나에게는 목포중학교, 고등학교라는 엄청난 학교가 있었다. 나는 목포의 그런 큰 덕을 보고 큰 사람�이야. 나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굳게 믿어요. 목포가 나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야. 지금은 목포중학교가 이름도 없어졌지만, 그런 것을 잊어버린 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최고의 배우가 되는 자양분을 난 그때 얻었어.”



그림 3 김성옥은 목포고등학교 3회 졸업생이다.



그림 4 「고도를 기다리며」 중

김성옥은 1956년 고려대 사학과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올라갔다. 종교생활에 심취한 탓에 역사 중에서도 유럽의 중세사에 관심이 많았다. 낯선 서울생활이었지만 종교와 르네상스에 집중해 공부하는 시간은 행복했다. 그는 사학과 교수 중 김성식 교수의 강의를 가장 좋아했다. 김성식 교수는 『대학사』, 『독일학생운동사』 등을 집필한 분이었다. 그의 주장이 김성옥의 삶에 큰 지표가 됐다. 문화는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악마의 것도 아닌 인간의 것이다. 이 세 가지 삼각형이 밸런스를 유지할 때 세상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런 개념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대학에 가서 역사학을 하면서 보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문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역사를 그런 눈으로 보게 됐어요. 고테의 작품을 보면 왜 자기를 마귀 메피스트팔레스한테 팔아가지고 맘대로 돌아다니게 해주면 언제까지 목숨을 주겠다는 소설 『파우스트』 있잖아요. 내가 연극공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하느님하고 악마하고 두 개의 뿌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또 하나 있는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밑변이 넓어야 ‘꼭지점이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된 거예요. 밑변이 넓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야 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생각은 거기에 근거를 둔거예요. 세이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샤일록이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대사하는 것이 ‘3친 냥’이라고 말해요. 자산가의 딸 포샤가 구름처럼 몰린 구혼자들을 시험할 때도 금, 은, 동 세 개의 상자를 고르라고 해요. 30일 후에 안 갚으면 살을 3파운드를 떼내겠다고 ‘3’이 자꾸 걸려있어요. 바사나오와 그의 친구 안토나오는 포샤를 두고 삼각관계를 이루고. 그렇게 삼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안정시킨다고 학생 때부터 느꼈어요.”

김성옥은 대학에 입학해 ‘고려대 극예술연구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연극을 해석하는 데 철학적인 사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때 깨달았다. 대학 2학년 때 허무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발표를 한 적이 있다. 학과 동아리에서 공부할 때인데 ‘허무주의에 관한 사적 고찰’ 같은 것이 연극을 이해하고 배역을 맡는데 큰 도움이 됐다. 가령, 부조리에 대한 고민과 사유가 있어야만, 부조리에 맞는 연극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김성옥이 1969년 한국 연극계의 대표작인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블라디미르 역을 맡았을 때, 그는 이미 부조리에 대한 상당한 겸토가 되어 있었기에 그 작품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았던 것이다. 이처럼 연기자는 상당한 사상을 갖기까지의 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연기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기능적인 대사만 하는 것을 ‘드라마적인 사실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연기’가 아니다. 그는 연극의 배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대사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예술이 아니고 그냥 탤런트일 뿐이다.

3. 대한민국 대표 배우로 성공

김성옥은 1962년 대학을 졸업한 후 마침 천주교를 통해 오스트리아로 유학 갈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 기회를 포기하고 곧바로 남산 드라마센터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극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때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다. 1961년부터 텔레비전 송출을 한 KBS에도 출연을 시작했다. 1964년 초에는 국립극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때에는 「베니스의 상인」과 「만선」의 주연을 맡아 열연하였다.

“그때 우리나라 각 도마다 한사람씩 뽑아서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보냈어요. 가난한 나라의 인재들을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내가 천주교에서 유명하니까 전남의 대표로 그때 날 보고 가보겠냐고 해서 가겠다고 하고 준비를 했지요. 그때가 록펠러재단의 지원으로 드라마센터가 막 지어졌을 때예요. 연극계의 원로이신 유치진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연극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스트리아에 가려고 한다.’했더니, ‘여기 있으면 록펠러재단의 지원으로 미국에 갈 기회가 있으니 그때 보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드라고. 그때만 해도 유럽보다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남아서 연극을 했지. 근데 2년이 지나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은 보내면서 말이야. 그러는 사이에 돈벌이도 안 되고, 먹고 살길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국립극단에서 내 연극을 보고 단원으로 오겠냐고 제안이 왔어요. 거긴 월급도 꽤 줬어요. 12,000원인가 받았는데, 문공부 직원들이 7천원쯤 받았나. 그때 그렇게 받았으니까 꽤 받았지요.”

김성옥은 국립극단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으면서 방송계에도 전속으로 진출하게 됐다. 1964년 TBC⁰⁴⁾가 개국하면서 유명한 배우들을 전속으로 계약해 고용할 때였다. 결혼을 앞둔 그는 목돈이 필요해 TBC와 전속계약을 하게 된다. TBC 방송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방송 송출지역이 서울에 한정되었다는 점이었다. 나중에 부산까지 확대되었지만 고향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채널이었다. 이 때문에 김성옥의 인기가 아무리 높아도 목포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그의 활약상을 볼 수 없었다. 김성옥은 2년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재계약을 원치 않았다. 한 방송사에 얹매이지 않고 경쟁사인 KBS나 MBC에도 자연스럽게 출연하면 더 많은 영향력과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TBC의 소유사인 삼성과 소송을 하기도 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배우보다 사업가로 변신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가 하면, 우석레파토리 대표, 극단 신협 대표 등을 맡으며 연극경영에도 관여하였다. 전주우석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겸임교수도 역임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김대중 씨하고 선거하고 붙어 있을 때인데, 사람들이 KBS를 안 보거든. 그래서 당시 인기 있는 배우들을 전속계약해서 드라마를 만들어서 보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남자가 나야. TBC와 전속계약 문제는 서로 양보하면서 없었던 일로 하기로 결정됐어. 그리고 나서 내가 KBS에 다시 출연하게 됐지. 그 전까지 목포 사람들은 나를 안 봤으니까 모르지. 텔레비전에서도 못 보고, 연극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방송계를 떠난 것이 컬라텔레비가 나오기 전이야. 그 후로 조금 한 것은 나중에 와서 1990년 이후 2000년 이때 몇 작품 해보자고 해서 용돈도 필요하고 해서 「왕건」이나 몇 작품 한 거지. 그때서야 목포 사람들이 몇 사람이 보고 안거야. 「고도를 기다리며」, 「만선」 이런 한국 연극사에 남는 작품들이 있었지만, 목포 사람들은 안 봤으니까 모르지. 그 이야기가 나오면 ‘김성옥’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야.”

「만선」은 목포 출신 천승세 작가의 작품으로 목포의 선창, 조기 잡는 배와 어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다. 1964년 명동의 옛 국립극장에서 김성옥 주연으로 초연을 한 후 현재까지도 무대에 올려지는 50년 이상 된 희곡의 교과서적인 작품이다. 「고도를 기다리며」 또한 극단 산울림이 1969년 사뮈엘 베케트의 원작을 처음 무대에 올릴 때 김성옥이 블라디미르연을 맡았다. 이 연극은 부조리의 고전이자 노벨문학상 작품으로 현재도 무대에 올려 질 정도로 인기가 있는 작품이다.

04) 동양방송. 1964년 서울에서 개국한 방송국으로 삼성이 경영한 국내 최초 민간상업방송국이다.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동양방송은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 JTBC로 부활하였다.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텔레비전에서 본 일이 없어요. 1997년 10월 목포문화예술회관이 생겼을 때 김영자 화백의 초청으로 우리가 「만선」이라는 연극을 개관축하 공연으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공연할 때 우리 어머니가 내 연극이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하여튼 개관할 때 마이크 장치도 제대로 안 돼 있을 때인데 MBC 중개차를 갖다 놓고 조명장치를 했어요. 최고의 배우들인데, 커텐콜을 할 때 내가 나와서 인사하면서 객석에다 대고 우리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평생 내 작품을 본적이 없다고 그랬어. 우리 어머니를 소개할 때 박수 한번 쳐달라고 한 것이 전부예요.”

1963년 이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세상은 무서웠다. 표현의 자유가 극히 제약 받을 때였다. MBC에서 「임꺽정」이란 작품을 촬영할 때였다. 김성옥이 임꺽정 역을 맡았다. 의협심이 강한 내용이라 시청자들은 재미있게 보는데 곧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주제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었고, 이것을 정부가 위험한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 김성옥이 ‘대원군’을 맡아 KBS에서 방영하는데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권불십년이라’ 이런 대사를 사용할 수 없었다. 중앙정보부에서 늘 내용을 검열하고 불순한 내용이 있으면 삭제를 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에게 권불십년이나 혁명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대상이었으리라.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 전 국민의 애창곡인 적이 있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때는 공교롭게도 김성옥이 태어나던 1935년이었다.

“「목포의 눈물」은 1935년 작입니다. 내가 태어나던 해에 생긴 노래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난영 씨가 일본에 취입하러 갈 때 돈 낼 때 나도 좀 내놨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포 청년들이 돈 모아서 보내줬어요. 일본에 갈 때. 1965년 이난영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흑산도 아가씨」를 작곡했던 박춘석 씨네 이 양반들이 상여를 메고 광화문으로 나갈라고 했어요. 그때 「목포의 눈물」을 부를려고. 그런데 이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데모는 제일 질색을 할 때여. 절대로 허락을 안 하지. 그래서 가요계 원로들이 가서 하게 해 달라. 그렇지 않게 분위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허락을 받고 「목포의 눈물」을 부르면서 동아일보사 앞을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예향 목포의 정서라는 생명이 잠깐 움튼거야. 그러다가 광주 야구가 해태타이거즈 이때는 이겼다고 하면 「목포의 눈물」을 불렀다고. 그때는 유난히 많이 이겼어. 그러니까 「목포의 눈물」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런데 이제는 「목포의 눈물」을 안 부르잖아. 그때는 호남사람들이 다 불렀고. 음으로 양으로 전국의 사람들이 동조를 했지. 이제는 그것도 아니야.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것은 목포 사람들 뿐이여. 전국 사람들이 「목포의 눈물」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목포 사람들의 착각이야.”

그는 연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1969년 노벨상을 받은 작품인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극무대에 올려, 이 작품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나 친해졌다. 연극이 3개월 전에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당시 김대중이 국회의원에 갓 당선되어 연극을 보러 왔다. 그 때 인연이 되어 부부간 모임도 갖고 깊은 교류를 갖게 되었다.

4. 결혼과 사업, 그리고 귀향

김성옥은 30세인 1965년 9살 연하인 대학생 손숙과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손숙은 결혼 후 연극배우이자 방송인으로 활약했고,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환경부장관을 맡기도 했다.

김성옥이 손숙을 처음 만난 것은 연극 때문이었다. 1962년도에 설립된 남산의 드라마센터(현 남산예술센터)는 설립 첫해부터 연극의 부흥을 위해 '전국남여중고등학교 연극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연극지도와 연출은 드라마센터에서 한명씩 파견하는 방식이었다. 김성옥이 배치된 곳은 풍문여고였다. 바로 손숙이 재학 중인 학교였다.

“당시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연극경연대회를 해. 근데, 극단에서 돈을 십원도 안줘. 날 보고 고등학교에 가서 연극 연출을 하나 하라고 하드라고. 그래서 배정받은 것이 풍문여고야. 손숙이 있는 데 였어. 가수 김상희도 거기 나왔어. 가서 보니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모였어. 내가 스물일곱 살이었어. 쪽 리딩을 시키면서 발음은 어떤지. 능력은 어떤지, 무슨 역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데 손숙은 경상도 사투리가 조금 있어. 밀양에서 초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로 와서 돈암동 초등학교 다니고 풍문여고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있을 수밖에. 인물은 춘향이 감인데 발음이 안 돼. 시킬 수도 있었는데. 안 되겠다 너는 배우는 못하고 조연출을 해라. 그리고 2학년에 박인희라고 있어요. 「모닥불」,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을 부른 예쁘장한 가수예요.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 가수가 됐드라고. 그때 박인희가 춘향이를 했어. 그리고는 국회의원을 한 김을동은 방자를 시켰어. 모두 친구들이여. 다 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탤런트가 됐지.”

김성옥은 풍문여고 연극 연출을 마친 후 다시 방송 일에 전념하면서 해가 바뀌었다. 김성옥은 방송 출연의 바쁜 와중에도 10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고려대 동문들의 합동연극공연에 참여하게 됐다. 그 연습에 자주 나가지는 못했지만,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손숙을 다시 만나게 된다.

“손숙은 당시 글을 많이 썼어. 고려대에 입학할 때 신입생 총 대표로 신문에 글을 썼어요. 나는 고

대에 있다가 여석기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합동공연을 해라 그거야. 10년마다 한 번씩 해. 내가 50주년부터 110주년까지 한 거야. 하지만 나는 바쁘니까 연습에 못나가요. 연출자가 학생들을 데리고 나 일하는 데까지 데려왔어. 보니까 손숙이가 있어. 고려대에 들어 왔다는 거야. 너 의과대학 간다고 안했느냐? 그랬어. 걔도 고려대 사학과에 들어왔어. 나랑 같은 과지. 그래서 연극을 같이 하게 됐어. 그러니까 밤낮 붙어 다니게 됐어.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지. 손숙이 2학년 때 결혼했어. 그래 가지고 3학년 때 복학을 했어. 그런데 잘 안 되드라고. 공부를 열심히 안하게 돼. 결혼하니까.”

결혼할 즈음 김성옥은 ‘저건 100년에 하나 나올만한 배우’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자랑할 때였다. 국립극단에 처음 들어갔을 때 흥보 간판에 사실적인 그림을 못 그릴 때였는데, 거기에 김성옥이 주연하는 샤일록의 「베니스의 상인」 간판은 예외일 정도였다.

손숙은 결혼 이후 적극적으로 연극을 하지는 않았지만, 김성옥과 몇 편의 작품에 함께 출연한 적은 있었다. 손숙은 단역을 맡았고, 그는 단연 주인공 역할을 했다. 시간이 흘러 손숙이 국립극단에 단원으로 들어갈 때에는 김성옥은 연극계를 떠난다.

“장민호 선생이 국립극단 단장으로 계실 때인데, 문 모라고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 근데, 국립극단에서 연극을 하는데 과학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배우가 힘들어해. 결국 하다가 안하겠다고 나갔어. 그러니까 공연은 보름인가 얼마 앞두고 큰일 난거지. 손숙은 아직 연기는 어린데 총명하기는 하거든. 그래서 장민호 선생이 와 가지고 ‘니 마누라 손숙을 연극 좀 시키자.’ 그래서 손숙이 국립극단에 들어가서 연극을 한 거야. 그래서 단원이 된 거야. 난 관두고 난 뒤였는데. 그 무대는 같이 안 섰지. 손숙이 하고 나하고는 연극을 서너 편 했나? 차범석 선생의 지리산에서 「산불」 가지고 했고, 대학교에서 합동공연 할 때 했고. 극단에서도 몇 작품 했구나. 그때는 손숙은 단역을 할 때고, 나는 주인공을 맡고, 손숙이가 국립극단 들어갈 때 난 이미 연극계를 떠났죠.”

1970년 이후 더 이상 배우 안하겠다고 선언한 김성옥은 사업을 시작했다. 마침 정부에서 새마을공장을 짓는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 9천만 원을 응자 받아 ‘삼진전자’라는 공장을 짓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목포의 친구들이 많이 올라와 관리자로 취업하기도 했다. 삼진전자는 카세트테이프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당시 카세트테이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에 근무하는 미군들이 간단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용도 정도였다. 그러다보니 시장이 미국과 일본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뉴욕지사와 일본지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았다. 그 후에도 가게를 운영하거나, 완구공장을 새로 시작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1970년대 후반에는 사우디와 영국에서 7년간 ‘유원건설’ 회사의 런던지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배우를 하면서 매니지먼트(경영)에 눈을 떴어요. 미국에는 시어터매니지먼트과가 있어요. 연극경영학이라는 과. 우리는 지금도 없어요. 내가 군대에서 2군단 부관부에 있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소위 매니지먼트는 군대가 제일 발달 됐드라고. 경영이, 기업이 그 다음이라. 군대 다음이야. 그래서 한국연극계는 경영에 대한 고민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고생문이 훤했지. 그 대신 인생에 대해 많이 배웠지. 독립기념관의 임정정부의 밀납상을 다 내가 만들었잖아. ‘사라문화’라고 해서 역사라는 사(史)와 신라의 라(羅)를 써서 역사를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1970년대 말에는 사우디를 거쳐 영국에서 건설회사에 있었어요. 1억불 정도를 만졌어요. 굉장히 사업을 했어요. 내가 82년 말에 들어왔으니까. 한 7년 정도 외국에서 살았어요.”

결국 사업의 실패와 오랜 외국 생활로 인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빚만 늘어 가정은 여러 가지로 힘든 처지에 빠졌다. 아내 손숙이 김대중 대통령의 배려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안을 받았을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 그때 가족투표를 했다고 한다. 김성옥과 손숙 사이에 딸이 셋 있는데 딸 셋 모두 엄마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 정치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도 없고, 만들 만한 능력도 없고, 투자 받을만한 처지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 있을 때 당시 전태홍 목포시장이 김성옥에게 목포시립극단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김성옥이 20년 전에 고향 목포에 내려와 다시 연극계에 발을 디디게 된 계기였다. 그는 6년간 단장을 맡으며 단원들을 고전극 연습을 통해 기초실력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한 성과는 곧 전국연극페스티벌에서 두드러진 실력으로 나타났다. 김성옥은 이후에도 시립극단의 여러 작품의 연출을 맡았다.

“영국에서 돌아와서 서울에 있다가 목포에 온 것이 한 20년 되나? 그 무렵이 김대중 씨 출마 직전인 1997년이니까 딱 20년 전이네. 목포시장 전태홍이가 날 보고 ‘아, 선배님 목포시립극단을 맡아달라’고 해서 내려와 6년인가를 했어. 당시 어머니가 혼자 목포에 계셨기 때문이야. 명칭은 단장이었는데, 단장이란 말을 쓰기 싫어서 예술감독이라고 그랬어. 시에서는 단장이라고 불렀는데 단장이 될 만한 구비가 안 되어 있는데 단장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 구성이 잘 안되어 있었어.”

김성옥은 2005년 목포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데 작은 역할을 하고자 ‘작은문화모임’을 구성해 초대 회장을 맡으며 각계 인사들과 문화 활동을 재기했다. 그런데 시작부터 목포의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구성원들이 ‘작은’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왜 ‘작은’이라는 단어를 쓰냐는 거였다. 크고 거대한 것이 위대하고 멋지다고 생각한 탓이었을까? 그는 결국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라는 격언을 인용하고 설득하면서 이름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문화모임 ‘소리꽃세상’에서 ‘시낭송’ 문화를 보급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2001년 서정주 시인 1주기 기념행사에서 ‘자화상’을 낭송한 김성옥은 이미 시낭송의 교과서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소리꽃세상’ 회원들에게 ‘힘 있게 끊고, 감정을 절제하며, 감동을 줄 수 있는’ 시 낭송을 지도하기도 했다.

“목포의 문화 수준은요 걱정이 됐어요. 내가 ‘작은문화모임’이라고 10년 조금 더 됐구나. 내가 만들었어요. 그때 ‘작은’이라고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성과도 많았죠.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과 「돌아가는 배」를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돌아가는 배」는 김성우 씨라는 한국일보의 유명한 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이에요. 그것을 1시간 10분짜리로 줄여서 혼자서 외워서 낭송을 했어. 사흘 동안 공연을 하는데 MBC 공개홀이 300석 되거든. 바닥에 앉고 문 잠그고 난리가 났어. 노래하는 사람, 무용하는 사람들 중간에 넣어가지고, 시 낭송은 나 혼자 하고……. ‘소리꽃세상’도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는 모임이지요. 이제는 다들 시 낭송의 전문가가 다 됐어요. 참 시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이지요.”

5. 문화의 향기, 목포

목포는 정말 아름다운 해안 항구도시다. 김성옥이 목포에 내려와 생활한지 얼마 안됐을 때인 1990년대 말 신안비치호텔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마침 비가 내렸다. 해질녘인데 마주보이는 바다와 고하도 섬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김성옥은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로비에서 엽서를 요청해 딸에게 글을 띠웠다.

‘목포의 바다가 정말 아름답다. 이곳이 아빠가 태어난 목포다’라고. 그는 이때의 감동을 오래 간직하며, 목포를 찾는 이들에게 그 경험을 나눠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이 가장 효과적인데, 과연 누가 이런 감수성을 공감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 아니,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있을까? 김성옥은 긍정적인 답을 내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목포를 비롯한 남도는 예향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구호만 그럴 뿐이지 현실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조금만 돌아보면 그런 명성에 걸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광주비엔날레 행사장에서 받

은 충격을 다음과 같이 꺼냈다.

“내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광주비엔날레에 최근에 가 본 적이 없어요. 가서 볼수록 볼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 설치미술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 난해한 것도 아니고 심심하니까 하는 것도 많아요. 난해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또 웃기는 얘기로 차범석(1924~2006) 선생이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국무총리가 행사장에 참석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단 위에 앉아야 하니까 이사장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단 밑에 내려와 앉았어. 이사장이 테이프도 끊고, 시상도 해야 하는데 설 자리가 없어. 그날 저녁에 차범석 선생이랑 광주 친구들과 몇이서 술을 마셨어. 이게 뭐냐 도대체. 차 선생이 ‘뭐 어때야…….’ 그러시는데 이게 참 망신스러운 일이었어. 중앙에서 내려온 무슨 국장이다 뭐다 따라 내려온 것들 때문에 정작 이사장을 단 밑으로 내려야겠어요?”

김성옥은 이런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워했다. 광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목포는 다른가? 그렇지 않았다. 목포가 더한 경우가 많았다. 목포의 문화가 앞으로 사회를 이끄는 힘이라는 사상에 공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목포시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문했을 때 ‘전혀 안되어 있다’는 답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목포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모르니까 그런다고 생각되었다. 정말 예향을 아는 사람은 사관이 확실해야 하고, 그 사관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예향이라고 떠드는 경우는 선거꾼들이 출마할 때만 이야기하는 예향뿐이라는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목포의 여러 사회, 문화단체들도 아쉬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목포에서의 문화 활동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믿고 목포의 문화 르네상스를 되찾고 싶었다. 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목포의 내일을 설계하는 데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내가 슬픈 것이 이런 분위기가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야. 이 문화단체의 목표가 뭐냐고 물을 때 문화의 보급이라고? 목포 문화가 있기는 있는 거냐? 오거리 축제한다고 하면서 가설무대 만들어 놓고, 소주 먹고 막걸리 마시면 그게 문화냐? 목포문화가 그렇게 싸구려 문화가 아니다 이거야. 무엇을 보급해야 하는지 알아야지. 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슬프단 말도 못한다는 것이 더 슬퍼. 어쩌다가 목포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목포시의 이야기를 하려면 잊어버린 것을 찾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

문화가 앞으로의 사회를 이끄는 힘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믿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함을 김성옥은 강조했다. 김성옥은 서당에 다녀 본 적은 없지만, 붓을 들어 현판글씨를 쓴 적이 있다. ‘洗

心亭(세심정)', 마음을 닦는 집. 스스로 잘 썼다고 자부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문화적인 자부심의 눈으로 보니 멋진 작품으로 느껴졌다. 이 작품을 호주에 있는 딸에게 보내주며 집 앞에 걸어두라고 했다. 김성옥은 이것이 새로운 문화의 창조라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목포 문화가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소전 선생의 시절이라든지, 남농 시절이라든지. 광주에서 유명한 허백련 선생도 목포에 계셨잖아. 남농 집에 와서 그 양반이 광주에 가면 어른이잖아. 차밭도 만들고. 그 후로도 광주의 유명한 사람도 여기 와서 있었어. 도촌이라고 내 친구 화가도 있어요. 그 제자가 많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농의 할아버지 소치가 돌 아가실 때 미산에게 도회지에 나가서 살아라 그랬단 말이여. 그래서 미산이 이 동네 왔고, 남농이 태어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 글씨 쓰는 사람들이 목포에 살았어. 근데 퇴계는 어땠어요? 의관을 정제하고 옷 다 입고 사랑채에 앉아서 제자들한테 저 매화나무에 물을 줘라.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지금도 먹고사니즘 타령이야. 예전에 비하면 훨씬 먹고 살기 좋은데. 이렇게 가면 100년 후에도 먹고사는 문제에서 한발자국도 못 벗어나요. 무엇이 목포를 발전시키는 것인지 고민해야 돼.”

8·15 해방 직후 목포에 항도여중이 개교했다. 조희관 교장선생은 각지에서 홀륭한 분들을 교사로 모셔와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선생님 댁에는 당시 아주 귀한 피아노가 한 대 있었다. 항도여중 음악선생인 안성현 선생도 그 피아노로 여러 곡을 작곡했다고 들었다. 조희관 선생님의 아들이 김성옥의 친구라 종종 그 집을 방문해 들은 이야기였다. 김성옥은 그때의 기억으로 목포에서 시작한 노래, 그러나 빨치산이 부른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된 ‘부용산’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김성옥은 호주에서 박기동을 만나 부용산 2절을 받아오고, 소프라노 송광선(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을 초대해 목포에서 음악회를 가졌다. 1999년 5월 29일이었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때 ‘빨치산의 노래’로 잘못 알려졌던 가요 ‘부용산’이 부활하고 있다. 29일 오후 6시30분 전남 목포 대안동의 대형 레스토랑 ‘뉴프린스’에서 ‘부용산’을 주제로 한 이색 음악회가 열린다. …… 이 노래가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년여 전부터. ‘부용산’의 진가가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것을 안타까워한 일부 뜻있는 예술·언론인들에 의해서였다. 이에 목포출신 연극인 김성옥씨 등이 수소문 끝에 가사의 주인공 학생과 같은 반이었던 경기대 김효자(67세, 일본어과) 교수로부터 유래, 악보 등을 찾아냈다. 또 호주로 이민 간 작사자 박기동(83세)씨에게 부탁, 원래 없던 2절 가사까지 완

성시켰다. 이번 음악회를 기획한 연극인 김씨는 ‘부용산은 남도의 전설 같은 노래로 목포에 노래비를 세우고 전국 순회공연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⁰⁵⁾

“해방이 되자마자 조희관 선생님이 항도여중을 만들었어. 내 친구 아버지인데 그 댁에 현 피아노가 있었어. 음악선생들이 그 집에 가서 피아노를 치고 만든 것이 「부용산」이야. ‘부용산 오릿길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밭사이 사이로’ 항도여중 교사로 시를 쓴 박기동 선생이 호주에서 살았어. 내가 호주에 가서 만났잖아요. 박 선생이 별교사람이고. 내가 박 선생한테 물었어. 선생이 학생을 사랑했다고 쓴 거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여동생이 일찍 시집을 갔어, 근데 일찍 죽었어. 아주 미인이었는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드라고. 그런데, 6·25 이후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숨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밤이면 울면서 부른 노래야. 그래서 「부용산」 노래가 빨갱이 노래라고 못 부르게 됐어. 순천 사람들은 자기들 노래라고 그래. 우리는 무슨 소리냐, 목포에서 작곡한 것인데. 그러다가 결국 별교에는 「부용산」 ‘시비’를 세우고, 목포에는 「부용산」 ‘노래비’를 세우기로 타협했어.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서 있고. 내가 이걸 찾아야겠다. 왜 이 노래가 빨갱이 노래로 묻혀야 되느냐 그래서. 한국일보의 김성우 씨와 소프라노 송광선이 하고 나하고 셋이서 이것을 찾고, 그 음악회를 목포에서 준비를 한 거야. 그 「부용산」 노래를 발표하는 날 내 부인이 환경부장관 임명장을 받는 날이야. 내가 차를 타고 전주쯤 오는데 마누라한테 전화가 왔어. 장관 취임식하는데 부부가 꼭 같이 와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대통령이 임명장 주는 거래. 이미 12시가 다 됐는데 어떻게 서울까지 가. 그래서 거긴 못 갔지.”

이렇게 애잔한 음의 국민 애창곡 부용산의 논란은 결국 목포와 별교 두 지역이 사이좋게 별도의 비를 세우면서 종료되었다. 그 「부용산 노래비」는 지금도 목포여고 교정 안에 남아 있다. 논란이 많은 「부용산」에 얹힌 내용을 김성옥이 수집한 자료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기동(1917~2004) 시인은 한의사였던 아버지 덕에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만주까지 올라가 고생한 경험이 있었다. 1943년 별교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별교중과 목포항도여중(이후 목포여고에 합병)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부용산 시는 별교로 시집간 누이와 애제자 김정희의 잊따른 죽음으로 만들어졌다. 박기동은 1993년 호주로 이민을 갔다가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다. 작곡가 안성현(1920~2006)은 목포항도여중에서 근무하던 중 박기동 책상 서랍에 있던 시를 읽고

05) 『중앙일보』 1999. 0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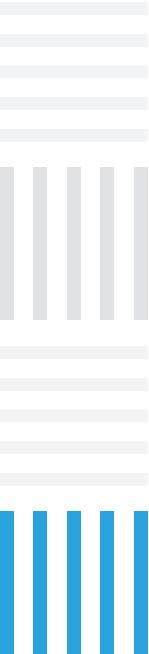
곡을 만들었다. 한국전쟁 이후 지리산에 숨어 활동하던 뱀치산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 뱀치산 노래로 알려지게 됐다. 무용가 최승희의 시댁 조카인 안성현은 아내를 홀로 두고 월북하게 된다. 안성현은 8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북한에서 공훈예술가로 활동하다 세상을 떴다. 안성현의 월북과 뱀치산에 의해 금지곡이 된 부용산은 이렇게 김성옥과 몇 사람들의 노력으로 다시 태어났다.

“문화가 앞으로의 사회를 이끄는 힘이라는 사상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문화는 다른 도시와의 차별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문화의 힘이 없이는 그 도시는 죽은 도시나 같아요. 목포는 남도예향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으며 컸어요. 그것이 목포의 자부심이요 미래란 말입니다. 뱃고동 소리와 더불어 청호(靑湖)라는 호를 가진 도시로서 영원하길 바랍니다. 봄날처럼 아름다운 계절도 있었고 혹독한 추위속의 겨울도 있었지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삶은 항상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이렇게 말을 남긴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소리꽃세상 문화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김성우가 쓴 「돌아가는 배」공연 준비를 위해서라고 했다.

빈 배에 내 생애의 그림자를 달빛처럼 싣고 돌아가리라.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제1절 목포 수필 문학의 산증인

정미영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2절 목포의 선비 시인

고정서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3절 추억의 서점 문화당을 밀하다

정미영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2장 문학을 노래하다

제1절 목포 수필 문학의 산증인

목포는 개항 이래 현재까지 예향의 도시로 많은 문인들을 배출해 냈다. 그 중 목포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과 문학 활동을 50년 넘게 펼쳐 온 김학래는 목포 수필 문단을 조성하고 이끌어온 산 증인이다. 김학래는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에서 1934년에 태어났다. 진도 군내초등학교와 진도중학교를 졸업 후 교원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1954년부터 1966년까지 진도군 관내 초등학교 교사를 지낸다. 산정초등학교 근무 당시 덕인고등학교 야간부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학과 5학년을 졸업한다.

1961년 아내 김윤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3남 1녀를 둔다. 1963년부터 1966년 사이에 수필 3회 입선하고 박화성의 최종 추천으로 추천 완료되어 문단에 등단한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목포시내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고, 1977년부터 1983년까지 신안군 관내 초등학교 교감을 지낸다.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신안·영암·목포교육청 장학사를 지낸다. 도 연구사를 지낸 후 1993년부터 1998년 까지 무안초등학교 교장을 지내고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목포대연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 퇴직한다.

문단경력으로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문인협회 목포지부 지부장을 지냈고, 전남수필문학회 회장을 1990년부터 1992년까지 하였다. 한국문인협회 전남지회장을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영호남수필문학회 회장을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지낸다.

그의 저서(수필집)로는 『겨울밤』(1976), 『다도해의 낭만』(1981), 『초가집』(1983), 『구름처럼 강풀처럼』(1994), 『동창이 밝았느냐』(2006) 등 10권을 출간했으며 평생 세 번의(회갑기념, 교회기념)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그의 수필은 토속적이고 전원적인 소재와 농어민 생활의 애환과 서민 세계의 일

화가 중심이다. 그는 수필가이지만 전남수필문학사, 목포수필문학사 등 논문도 썼다.

수상(문학 관계)으로는 남교예술문화상(1986), 전남문학상(1989), 한국수필문학상(1993), 제9회 한국예총예술문화상(1995), 제2회 전남예총예술상(문학, 1997), 40회 전라남도문화상(문학, 1997), 한림문학상(광주, 2005), 2회 원종린수필문학대상(2006), 영호남수필문학대상(2010), 2013년 올해의 수필인상, 목포문화상(2015)이 있으며, 교원정년으로 받은 국민훈장모란장(1999)이 있다. 문학 심사위원으로도 1998년 전라남도문화상 심사, 2003년 광주문학상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교원, 문인, 사회인을 대상으로 강의와 강연을 통해 문학 및 도덕 등을 알려주는 데에도 힘썼다.

어린 나이에 교단에 입문하여 45년 2개월간 교단생활을 하다 정년하기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일상에서 담아 낼 수 있는 교훈이 담긴 많은 수필 작품을 만들어냈다. 문학의 뿌리가 가르치는 일과 스스로 가르침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정년이 없는’ 수필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포의 대표적인 수필가이다.

1. 어린 시절과 교원자격 검정고시

김학래는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에서 1934년 아버지 김종신과 어머니 이읍단 사이에서 3남 중 맏아이로 태어났다. 진도군 군내초등학교와 진도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상의 문제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교원검정고시를 치루고 어린나이임에도 수석으로 합격한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집이 가난해서 고향에서 중학교를 수석졸업을 했으나 진학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담임교사가 넌 집이 가난하니 국립고등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당시 국립 고등학교가 부산에 있는 체신고등학교 하고 교통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체신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등록금 등 전부다 무료라 해서 합격한 후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비도 내고 입사비도 내라고 해서 부산체신고등학교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교원 시험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교원자격검정고시가 고등학교 학력 수준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전라남도에서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중학교졸업생이 고교학력 수준의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으니 좀 놀랐지요. 당시 800명 넘게 응시했는데 21명이 합격을 했어요. 시험은 3일 동안 열 과목을 광주서석초등학교에서 봤어요. 지원자가 800명이 넘었던 것은 해방 직후 학교가 막 늘어났는데 사범학교 졸업생만 가지고는 교원 수가 부족하니까 중학교만 졸업해도 임시교사라고 발령을 줬던 시절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강사가 되고 나중에 준교사 되고 2급 정교사가 되고 교장 된 사람도 많았어요.”

그는 1961년 진도에서 아내 김윤자를 만나 3남 1녀를 낳는다. 산정초등학교 근무 당시 덕인고등학교 야간반을 진학하여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고 졸업한다. 학력이 미흡함을 느껴 교원생활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학과 5학년을 졸업한다. 그는 가난과 천학이 한이라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결혼은 진도에서 하고 왔어요. 1월에 구혼식으로 마당에 명석 깔고 덕석치고 했지요. 아내가 내게 올 때 눈이 왔고 동네 사람들이 서설이다 라고 하며 잘 살 것이라고 하데요. 2015년 1월 24일에 집사람이 승천하는데 눈이 엄청 내렸어요. 내게 올 때도 갈 때도 눈이 내렸네요. 55년 해로했지요. 집 사람은 진도읍에 살았고 중매로 만났지요. 고향에서 결혼해서 첫째,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딸과 막내아들을 목포에서 낳았어요. 내가 교원이라 군대생활을 1년을 했어요. 결혼하고 바로 군대를 갔고 묘하게 결혼식 날 영장이 나왔고 면서기가 차마 입영통지서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 알려줘서 갔어요.”

2. 수필로 등단하다

진도에서 교원검정고시 합격 후 그는 1954년 첫 발령지인 진도석교초등학교에서의 근무를 시작으로 진도군 관내 초등학교에서 13년간을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1966년도에 목포 산정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는다.

“진도석교초등학교에 봄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너무 어려서 아기 교사로 불리었지요. 호적나이에는 만 17세 전에 들어 간 거지요. 민법상 20세가 되어야 권리를 주는데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발령해 준 것은 그 당시에는 사범학교를 나와야 교사자격증을 주는데 사범학교를 못나온 임시교사가 많았으며 난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리지만 발령해 준 것이에요. 그러곤 쭉 진도에서 초등학교 교원생활을 했지요.”

김학래는 1963~1966년 사이 수필 3회 천료로 등단하였다. 조연현 2회 추천 「새교실」(‘진도개’, ‘동명유죄’)과 박화성의 최종 추천 「월급날」로 등단하였다. 아호는 서예가 김정재가 호를 지어 주어 월제(月齊)라고 썼으나 현재 글을 집필할 때는 고향마을 이름을 따서 월강(月江)이라는 호를 많이 쓰고 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책읽기를 좋아 했어요. 학교에 도서

관도 없고, 학급 문고도 없고 해서 읽고 싶은데 책이 없어서 아버지의 책상에 놓인 통속소설 ‘여학생의 정조’라는 책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 읽었어요.

등단은 빨리 했어요. 진도에서 초등교사 때 원고를 서울에 올리고 3번 입선해서 등단한 것이지요. 나는 박화성 씨와 인연이 있는 것이 바로 제가 1966년에 잡지에서 수필 「월급날」로 등단을 할 때 추천해 주었어요. 1회, 2회, 3회 입선해서 천료를 해야 그때는 작가가 되거든요. 요즘 잡지에서는 입선 한 번하면 기성작가로 인정을 하는데……. 제가 할 때는 문학잡지도 별로 없었고 전국에 『현대문학』, 『자유문학』 밖에 없었고 서울잡지사에 200자 원고지로 수필을 써서 보낸 것이에요. 촌놈이 200자 원고지 써서 수필을 보내고, 보내고 한 것이 3번 입선했죠. 1963년, 1965년, 1966년 한 3~4년에 걸쳐 천료가 되었어요.”

김학래는 진도에서의 교원생활과 목포에서의 교원생활 자체의 활동은 거의 비슷하였다고 기억한다. 1960년 당시의 아이들의 용모나 놀이문화는 도서 지역 아이들과 목포시내 아이들 모두 힘든 사회상을 반영하는 듯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한다.

“진도에서 교원생활을 하고 산정초등학교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의 모습은 별로 다름이 없고 그냥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지요. 진도에서 담임 할 때나 산정에서 담임 할 때나 아이들의 수가 많아서 교실 안이 꽉 찼어요. 아이들이 장난을 하고자 해도 장난할 자리도 없을 정도였지요. 요즘 아이들은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그러는데 그때 아이들은 천덕꾸러기였어요. 세수 할 줄도 모르지요. 매주 수요일에 용의 검사를 합니다. 그땐 손수건도 종이도 없어서 코가 나오면 소매에 묻어서 옷이 빤히 짠짝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여름방학이 약 40일 정도 되었는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9월에 개학을 해서 보면 아이들이 훨씬 약해져서 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살이 빠져서 오고 시커멓져서 오지요. 가정에서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사회가 다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냥 살도록 놔두지요. 굴러다니면서 살도록. 아이들에게 신경쓸만한 여유가 없었지요. 정말 모두가 가난했어요. 이 시기 목포·산정·유달·서부초등학교는 한 학급에 60명 이상 70명이 넘기도 했어요.”

3. 문학서클 목요회와 동인지 창간

1966~1976년 목포 시내 초등학교 교사를 지낸 그의 목포에서의 첫 발령지는 1966년에 근무한 산정초등학교이다. 당시 한 학급에는 70명이 넘을 정도로 학생 수가 많았으며 전교생의 수가 4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진도에서 산정초 발령받을 당시 진도에서 손재형 씨가 만든 옥소호를 타고 왔어요. 옥소호와 진도호가 있었는데 읍에서 타면 옥소호가 있고 벽파진에서는 완도, 제주에서 오는 그 배를 타고 목포로 오기도 했지요. 옥소호를 타고 아내랑 함께 오는데 보통 촌에서 발령을 받으면 가족과 함께 오는 것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목포에 방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별로 없어서 우선 혼자 와서 하숙을 하거나 해서 1년 정도 뒤에나 이사를 했는데 내가 바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처형이 북교동에 방 2개짜리 전셋집을 얻어 주어서 그럴 수 있었지요. 산정초등학교에 1966년 봄에 왔지요. 2시간 수업 끝나면 중간 놀이를 체조를 했는데 운동장이 꽉 차가지고 게으른 담임선생들은 자리를 못 잡을 정도였어요. 산정초등학교 근무 할 때 이사를 일곱 여덟 번은 했어요. 북교동에서 양동으로 마지막으로 산정 2동에서 살았지요.”

김학래는 목포의 초등교원들을 모아 목요회라는 문학서클을 만들어 초대회장을 지낸다. 그는 동인지 『목요회』의 창간호 서문에서 목요회의 특색을 첫째, 한결같이 젊다는 것, 둘째, 여자 회원이 많다는 것, 셋째, 학생시절 영특한 사람들이라 모두 영재 교사들이라는 점을 들어 매주 목요일 문학의 꽃을 피운다고 말했다. 당시 동인으로는 김학래, 최두호, 김관석, 임차랑, 이태웅, 김봉식, 김은정, 이요한, 박옥진, 김운희, 신덕순, 해정미, 윤덕, 박공자, 주민자, 천원주, 김화자, 김순녀, 정성심, 박춘자, 박성천 등이 있었다.⁰¹⁾

“목포는 문인이나 화가가 거의 초·중·고등학교 교사예요. 거의가 그땐 교사였어요. 그때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초까지는 그랬어요. 목요회를 하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목요회』 문학지를 만들었지요. 당시에는 출판시설이 좋지 않아 항도출판사에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목포 시내 초등교원 문학을 좋아하는 문예교사들이 글을 썼고,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국어과 교사들이 모여 협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문학하는 사람들은 내가 별도로 골라서 문학서클을 직접 만든 거지요. 목요일에 만나니까 목요회라고 지었지요. 목요회는 여교사들이 많았고 그때 만해도 좋아하는 것이 음악과 문학이었지요. 요즘 여교사들은 문학을 하지 않아요. 낭만이 예전에 비해 없어요. 1967년 만들어진 목요회는 한 2년 지속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였고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33살에서 34살 정도에 만들었으니까요. 편집하고 교정보고 인쇄하고 하던 때가 가장 즐거웠어요.”

01) 허형만, 「현대 목포의 문학」,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475쪽.

4. 『목포교육』·『목문학』·『어린이 목포』발간에 힘쓰다

1969년 1월 15일에는 『목포교육』⁰²⁾ 창간호가 1969년 5월 10일에는 새로운 동인지 『목문학』이 김학래의 편집, 교정 등의 공으로 창간된다. 1971년 12월 24일 『어린이 목포』⁰³⁾ 창간에도 함께 하는 데 이 시기 거의 모든 인쇄물은 항도출판사를 통하여 출판되었으며 당시의 조판기술이 활자판이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목포교육』은 초등·중등교원들이 쓴 것이고 교육청에서 만들고 신안 교육청 앞 항도출판사에서 했어요. 활판인쇄를 하며 저녁도 인쇄소에서 먹고 바둑도 두고 10시 넘어서까지 했지요. 항도출판사 사장이 술도 밥도 사주면서 돈 얼마 남나 그런 것 생각안하고 문인들이 오면 대접해 주었어요. 남이 시켜서 했으면 못 했을 거예요. 내가 문학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니까 했지요. 목포교육청 연구사로 산정초등학교에 적을 두고 파견근무로 활동하며 『목포교육』 세 권을 3년간 만들었거든요. 차범석 선생 동생인 차재석 씨로 부터 대찬사를 받았지요. 『목포교육』으로 출판기념회도 했습니다. 1969년 그 시절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교정은 누가 수당 주거나 하는 게 아니지만 즐거워서 했고 문선작업을 하는데 7~8명이 해요. 첫판을 짜내면 교정을 해서 다시 뽑으려면 1시간 이상 걸리죠. 혼자 교정을 다했어요. 교사들이 본인의 글이 실리고 하니까 아주 이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듦으로 해서 내가 인기가 좀 있었지요.

그 시절 목문학이 동인회로 있었고 내가 총무를 했어요. 『목포교육』이 만들어지던 해 5월에 『목문학』이 만들어 졌지요. 목문학 동인회할 때는 거의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그들이 결혼식을 할 때 기념품을 사서 줬어요. 밥상에 올리는 식기가 다 들어 있는 반상기를 사주면서 빛을 좀 졌지요. 문학해서 돈 번적은 없으나 친구는 많이 사귀고 나를 좋아하는 후배들이 많지요. 『목문학』은 한 4집까지 만들었으나 4년 정도 했지요 1년에 책 1권을 출판했으니까요. 회장은 박순범 씨 이었어요. 박순범 씨는 문태중학교 교사였는데 회원 중에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았지요. 『목문학』에는 회원들의 작품이 실려 있고 그 당시에는 책 한 권을 만드는 것이 힘들었지요. 활판인쇄로 힘들었지요. 오자나 잘못 쓴 글도 있지만 활자가 나와서 글을 보면 제일 희열을 느끼지요. 내용은 시, 수필이 많고 소설도 있었어요.

02) 1969년 1월 15일 『목포교육』 창간호가 목포시 교육연구소 간행으로 선보임으로써 목포문학의 작품 활동지가 되었는 바 김학래의 계속적인 편집의 공이 커졌고, 5월 10일에는 새로운 동인지 『목문학』이 창간되었다. 『목포교육』·『목문학』의 발간은 박순범, 김학래, 김재희 등이 주축이 되었다(허형만, 앞의 글, 475~476쪽).

03) 1971년 12월 24일 목포시교육장 박찬대가 발행하고 김학래, 김관재, 손수남, 박성천, 김정신 등이 편집한 『어린이 목포』는 동요 동시를 ‘노래 글’, 산문을 ‘줄글’이라는 순수 우리말로 이름지었다. 목포 시내 어린이들의 글 42편을 실어서 목포문학의 새싹 키우기 운동으로 번졌다(허형만, 같은 글, 476쪽).

내가 참여한 것이 또 1년에 하나씩 만들었던 『어린이 목포』도 있는데요. 『어린이 목포』는 아이들이 글을 쓴 것을 교육청에서 발행한 거예요. 이것도 항도출판사에서 했지요. 활자를 문선한다고 하지요. 원고 보고 뽑아내요. 그걸 또 조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판해서 판을 짜는데 나중에 찰카닥 찰카닥 하고 넘어가요. 아주 옛날 기계로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하루에 A4지나 그런 거 여러 장 못 들어요. 우리가 교정본다고 모여서 점심식사도 하고 모여서 또 교정을 보면 사장이 또 술도 사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럴 기회가 없지요. 컴퓨터로 쳐서 기가 막히게 하니까. 옛날 같은 교정이란 것이 없어요. 책을 만드는 기쁨과 보람이 있었어요.”

5. 목포예총의 자부심, 목포예술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목포지회(이하 목포예총)에서 주최하는 목포예술제는 목포예총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였다. 목포문인협회 회원이었던 김학래는 회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참석한 목포예술제를 ‘목포예총 회원임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행사’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목포예술제는 지금도 9월 30일이면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이 목포시민의 날이잖아요. 그 전날 밤에 전야제라고 하는데,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각 부별로 행사를 하거든요. 미술이면 미술, 연극이면 연극, 전날 밤에 하는 행사가 컸어요. 옛날에 차재석씨가 회장 할 때는 전야제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목포예식장에서 하는 큰 행사입니다. 예술인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차재석씨가 덕이 있어요. 예술인들이 행사할 때 음식도 장만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요. 마치 교회신자들이 와서 봉사를 하듯 그렇게 도와줘요. 굉장히 먹을 것도 많이 장만하고요. 목포예식장이 1층, 2층이 있습니다. 1층에는 만찬을 준비해요. 2층에서 행사를 하고 내려옵니다. 1층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그때 내 기억으로 차재석씨가 전야제 할 때는 간혹 전국의 유명 인사를 초청을 하네요. 그때는 예총회원들에게 긍지를 갖도록 해 준거예요. 가슴에 예총마크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벨간 걸 예총회원들에게 입장할 때 가슴에다가 달아줬어요. 전부 달아요. 옛날엔 세상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이 좁은 지역에서 예술인이란 말 듣는 것도 즐거웠거든요.

간단히 개회식을 하고 반드시 짧은 연극공연을 했어요. 연극협회에서는 독창하는 사람이 가곡 같은 거 한사람이 나와서 부르고, 문인협회에서는 시낭송을 하고. 어떻게 되었든 한 보름 동안은 목포에 예술행사가 갖춰있었어요. 미협(목포미술인협회)은 사생대회를 한다던지, 문협(목포문인협회)은 백일장을 한다던지 동화대회를 해요. 1960~1970년대에는 고등학생 토론대회라

는 것이 있었어요. 예술제 안에요. 문인협회 주간으로 있었어요.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나는 목포에서 1966년부터 참여한 거죠. 그때는 8개 부서가 있거든요. 연극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상을 받을 사람도 8명밖에 없거든요. 상을 받는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죠. 지금은 상 받는 사람이 많아요. 한 30명이 받아요.”

6.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목포

목포에는 명예로운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5명이 있다. 소설가 박화성, 극작가 차범석, 서양화가 김환기, 한국화가 허건, 현대무용가 최청자이다. 이 가운데 박화성은 목포의 근대문학을, 차범석은 목포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목포문학은 바다가 품은 감수성과 항구도시의 문화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⁰⁴⁾ 광복 이후 문단 등단이 힘들었던 시기 목포문인들은 한국문단을 파고들었으며 이에 걸맞게 목포시민들 또한 문학의 감수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1952년 차재석이 중심이 되어 시 전문지『시정신』이 창간이 되는가 하면 1960년 목포의 문인들을 결집시킨『목포문학』이 창간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960~1980년대에도 목포 지역은 예향이란 이름에 걸맞게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목포 사람들이 1960년대에는 아무개 시인 간다 하면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문학 애호사상이 컸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요. 그만큼 목포에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유명한 작가들을 서울에서 초청했어요. 목포로 오면 강의를 하고 저녁대접, 재워 주고, 선물 주고 그랬어요. 많은 초청이 행해졌고 박동철이라고 내과원장 하는 사람이나 박순범, 명기환, 최덕원, 이런 사람들이 문학하면서 지원도 못 받아도 서울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서 오신 그 분들에게 그림도 주고 선물도 주고 했지요. 1968년에서 1969년 정도에는 박경리 씨도 중앙극장에 모셨는데 여고생들이 가득 찼어요. 그땐 목포에 있는 극장 중 중앙극장이 가장 크고, 외화를 많이 틀었어요. 남일극장, 평화극장, 목포극장, 호남극장이 있었지요. 밤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외국 영화 왔다고 하면 꼭 가서 봤지요. 그 당시에는 연예인들이 쇼 단을 만들어서 쇼하면 더 인기가 많았고 목포극장이나 평화극장이나 가보면 사람들이 꽉 찼어요. 텔레비전이 나오면서부터 달라졌지요. 그 시절 문화공간이 별로 없어서 공연, 시화전 문화행사를 하면 거의 다방에서 했지요. 제일 많이 한 것이 새마을다방, 황실다방, 밀풀다방이었어요.”

0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항구도시 목포의 추억 1번지, 오거리』, 2013.

청호문학동인회는 1974년에 결성된 문학동인회로 목포 문인들이 향토를 지키면서 목포문학의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기치를 내세우며 만들어졌다. 목포의 옛 이름을 표방하며 청호동인회 사람들의 작품을 모은 동인지인 『청호문학』 제1집이 1976년 2월 20일 발간되었다. 최근까지 멤버는 바뀌었어도 이어지고 있는 장수 동인회로 창간 동인으로는 김학래, 김신철, 김재희, 문성원, 양문열, 박순범, 이태웅, 최일환, 최재환 등이다.

“목문학, 해안선, 보름문학⁰⁵⁾이라는 동인이 있었는데 선의의 경쟁을 하느니 이 둘을 합해서 청호문학 동인회를 만들었지요. 청호문학 초대회장은 최덕원이며 해양대학교 교수했던 사람으로 시인이에요. 나도 청호문학 단체에 들어갔고 청호문학이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되었지요. 청호는 목포의 옛 이름입니다.”

김학래는 1977~1983년 신안군 관내 초등학교 교감을 지내면서 섬에서 문자 미해득자 교육도 실천하고 자료집을 만들어 교육자료 전시회 등을 하며 교원생활을 한다.

“내가 한 6년 동안은 신안에서 교감으로 세 학교를 다녔어요. 각 학교별로 낙도인 우이도는 1년 있었고, 장산에서 3년 지도에서 2년 있었죠. 그 후 서울대 사범대에서 2개월 교장 자격 강습을 받았죠. 요즘은 교원대에서 받아요. 우이도에서 교감을 할 때 교감은 원래 담임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전혀 음정도, 박자도 안 맞고 그 정도로 후진된 데다 문자를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 아이들이 3학년에도 4학년에도 있었죠. 한글 모르는 아이들을 뽑아서 내가 문자 교육을 했어요. 자료집을 만들어 교육자료 전시회도 했어요. 내가 학년 상관없이 한 교실에 모아서 한글교육을 한 거예요. 하루에 4시간 수업을 하는데 넷째 시간에는 시험을 봤어요. 시험 문제를 쉽게 내서 90점 100점을 받도록 합니다. 집에 가서 자랑을 하고 그러죠. 그 아이들이 3~4학년 되는 동안에 무슨 백점을 맞아 봤겠어요. 우이도 학생들은 수가 적었고 6학년 까지 해서 110명 정도였어요. 우이도는 첫 교감이었죠. 목포에서 출발하면 우이도는 멀어서 흑산가는 배를 아침 9시에 타면 도초도 가서 조그마한 배로 바꿔 탔어요. 민간인 배라 5시 되어야 도착했어요. 모두가 우이도를 가려고 하지 않는데 난 1년에 5점주니까 1977년에 1월 1일자 발령이 나서 간 것이에요. 1년간 근무 전화위복으로 우이도 덕에

05) 1967년에 생활 속에서 문학을 찾고, 문학의 길을 가면서 생활하는 생활문학의 시도로 보름문학 동인이 만들어졌고, 『보름문학』이 창간된다. 6호까지 발간되었으며, 의사였던 박동철을 중심으로 이태웅, 정영수, 김관재, 임차량, 박용주, 김봉식, 명기환, 이재용, 임중철, 최덕원, 김충곤, 차원재 등이 참여하였다(최재환, 「근·현대 목포문학과 오거리」, 『항구도시 목포의 추억 1번지, 오거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61쪽).

교장강습을 쉽게 갔어요.”

7. 『목포문학』출판 당시 일화와 수필문학회 회장

목포문학회(현 목포문협)는 1958년 9월 20일에 창립되어 초대회장에 차재석, 부회장에 백두성, 간사에 전승묵, 김영복, 정규남, 정태정 등이 선출됨으로써 명실공히 조직적인 문단활동을 펼치게 된다. 1960년 3월 20일 연간 문예지 『목포문학』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며, 발행인은 차재석, 편집위원은 목포문학회 소속 백두성, 전승묵, 김우정, 권일송, 정규남 등이 선임되었다. 항도출판사에서 총 181쪽의 분량으로 출간된 『목포문학』 창간호는 차범석, 박화성, 천승세, 천승걸, 김재희, 김일로 등의 필진이 눈에 띠며 1960년대 활동했던 문인들을 총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목포문학』은 1960년대부터 목포문인협회에서 매년 1권씩 제작하는 목포문협 기관지이다. 1962년 목포문화협회는 한국예총 목포지부로, 목포문학회도 한국문협 목포지부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른다. 김학래는 1988년 목포문인협회 회장 당시 『목포문학』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는 국판 496페이지 책자를 발간하기 어려워 남양어망 흥순기 사장에게 출판 비용을 지원 받기도 한다.

“『목포문학』을 만드는데 일화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크게 책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출판 비용 때문이에요. 목포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목포문협 회장 할 때인데 남양어망 흥순기 사장을 찾아 갔더니 안 계셔서 편지를 썼지요. ‘내가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출판비가 부족합니다. 사장님 좋은 일을 좀 해주세요.’하고 썼어요. 내 말을 얼른 그 양반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영흥고등학교 이사장인데 내 둘째 아들이 영흥고를 나왔는데 그 당시 수능고사를 봤는데 목포에서 수능 1등을 했거든요. 영흥고등학교에서는 내 아들이 자랑이지요. 제가 그 아들 아비입니다. ‘사장님 조금 봐 주십시오’ 했더니 출판비를 내주었어요. 책 내면서 둘째 아들 덕을 본 것이에요. 당시는 남양어망이 전국적인 어망 회사였지요. 세상이 발달되니까 남양어망식 어망을 만드는 곳이 없지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만드니 남양어망이 중지가 되어버렸지요.”

김학래는 1986년 한국문인협회에 가입하며 목포문인협회 회장을 1987~1990년까지 지낸다. 목포문협 회장 당시 목포문협 자체에서 수여하는 신인상을 만들어 상을 수여하기도 한다.

“내가 처음으로 목포문학 신인상도 주고 했어요. 목포문인협회에서 신인상을 결정하고 상패를 만들면 본인이 신인상 행사비는 부담했지요. 1988년부터 3년간 신인상을 한 명씩 줬어요. 문단 효력

발생은 아니고 시 지부 자체에서 문학의 시작을 했다, 라는 증명의 의미로 신인상을 주었지요. 신인상은 문인협회 이사가 추천을 하고 날짜를 잡아서 시상식을 했어요. 협회에 돈이 없으니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했어요.”

김학래는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신안·영암·목포교육청 장학사를 지낸다. 1989년 그가 문인협회 회장 할 당시인 그해 9월 문인장으로 박순범 시인 장례식이 치러졌다. 박순범 시인을 그는 거울 같은 인성과 성격을 가진 인물로 기억하고 있었다. 박순범 시인은 문인협회 핵심 멤버이기도 하였으며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세종서점은 문인들의 모임 장소 역할을 하였다.

“대략 1988~1989년 내가 장학사를 하면서 문인협회 회장할 때 박순범 시인이 타계(1989년 9월)하셨어요. 박순범 시인을 내가 문인장으로 했어요. MBC 건너편에 천주교회당이 있어요. 거기서 했어요. 나보다 연상자인데 문태중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하는 일이 굽고 이북에서 내려와서 영흥중학교 교사, 문태중학교 교사 그전에는 공립학교 교사, 목포여중 교사였어요. 퇴직하고 사립학교 갔는데 그 양반이 굉장히 큰 그릇 같아요. 박순범 시인은 돈을 잘 써요. 그 양반이 북한에서 온 다른 사람하곤 틀려서 문인들이 모이면 차 값도 당신이 내려고 하고 하여튼 마음이 넓은 분이에요.

목포에도 문인들의 수는 많고 핵심 멤버들이 있어요. 목포에서 모여서 저녁 식사도 하고, 술도, 차도 마시고 그런 사람 중에 박순범 시인이 중심이지요. 아산 박순범 시인의 사모님이 세종서점 했는데 상고 옆에서 했는데 그 집에 문인들이 많이 모여요. 문인들이 모이면 술집이나 다방으로 가는 거죠. 심심하니까 안 온 사람은 전화로 불러내고 했어요. 돌아가신지 10주년 되었을 때 유고집이 나왔어요. 박순범 선생님이 글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림 1 목포문협 지부장시절 신인상 증정 장면



그림 2 11회 한국수필문학상 기념사진(아랫줄 왼쪽에서 두 번째 김학래)

김학래는 1990~1991년에 전남수필문학회 회장, 1993~1995년에 한국문인협회 전남지회장, 1994~1999년에 영호남수필문학회 회장을 역임한다. 김학래는 한국수필문학상(1993) 등 수 없이 많은 상을 향유하지만 그가 탄 상 중 수필가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전국 규모의 ‘2013 올해의 수필인상’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목포수필가들이 전남수필 운동을 시작했고 내가 전남수필문학회 회장 할 때 『전남수필』을 1991년에 만들었어요. 원래 광주에서 전남수필문학이 있었고 나는 목포에서 광주까지 다녔지요. 광주가 행정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광주가 광주수필이라 바꾸니까 내가 전남에서 수필 하는 사람들은 다시 전남수필을 창립하자 해서 전남수필문학회로 창립해서 만들었어요.

영호남 수필은 전남, 광주, 전북, 울산, 부산, 대구 이렇게 6개 지역 수필가들이 조직을 하자 해서 영호남수필문학회를 만들었어요. 6개 지역인데 다섯 군데는 한 번씩 행사를 다 치르고 전남이 할 차례인데 돈이 많이 들어요. 다 모여 놓으면 식사비 등이 드니 내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나는 무안초등학교 교장이라 배짱있게 했지요. 그때 까지만 해도 영호남 수필 회원들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모여서 점심식사 하고 당일 책을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문인들이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하룻밤 자면서 문인들이 이야기도 나누고 술도 먹고 그랬지요. 내가 교장 할 때 1박 2일로 확장을 한 것이지요.

나는 평생 문학상을 10개 넘게 했고, 그 중 제일 큰 것이 2013년에 올해의 수필인상을 했어요. 이것은 한국수필가들이 일 년에 한 번씩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전국적인 것이지요. 수필가로서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가장 영광스럽죠. 내가 목포에서 문단활동을 하면서 후배 10명에게 책을 나누어 주었어요.”

8. 정년 이후의 삶

“목포문화원에 가면 책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내 글이 안 들어간 책이 거의 없어요. 『목포문화사랑』, 『목포문화』에도 제 글이 실려 있어요. 한 60권이 있는데 안 실린 것이 거의 없어요. 『목포문화』는 전국문화원으로 갑니다. 한 300개 넘는 문화원으로 배포가 되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특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죠. 목포의 인물은 다 실었으니까요. 나는 수필집 10권 발행한 후 더 이상 책을 안 만들고 지금까지도 수필은 계속 130편 넘게 쓰고 있어요.

문단에는 정년이 없다고 했거든요. 원고료 받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쓰는 것이 중요해요. 수필은 편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제가 교육자라 그런지 교훈적인 부분의 글이 많아요. 문인도 중앙 중심이지요. 문단도 중앙 중심, 정치도 중앙 중심, 이래선 안 됩니다. 문학도 지방화 시

대가 되어야 하지요. 교육과 문학을 위해서 평생 살았어요. 평생 중요한 것을 모아둔 것을 우리 집 목사보고(첫째 아들) 가지고 있어라 하고 이름까지 써 놓았어요.

내가 고향에서는 30년을 살았지만 목포 와서 51년을 교육과 문학을 하면서 살았는데 목포는 바다도 있고, 낭만도 있고, 멋이 있는 곳이어서 우리에게 주는 정서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것을 선사해 줍니다. 목포에서 살기에 목포를 끌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향 진도는 나를 낳아주었고 목포는 나를 키워주었습니다.”



그림 3 1999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김학래

그는 1996~1998년 3년에 걸쳐 교원대학교 부설 초등교장자격강습반에 ‘교내 갈등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강하여 강의를 하였다. 1999년 목포대연초등학교에서 45년 2개월간의 초등교원 활동을 마무리하며 교장으로 정년했다.

정년 이후 2004년에 산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장을 하였으며, 현재 목포문학관 자문위원, 목포문학상⁰⁶⁾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정년이 없는 수필가의 생을 살아가면서 진솔하고 재미있는 내용의 수필을 끊임없이 쓰고 있다. 좋은 문학은 삶에서 우러나온다는 말을 증명하듯이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교육과 문학’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미영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06) 목포문학상은 2009년 목포 문학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하고 한국 문단을 이끌어갈 참신한 신인 발굴을 목적으로 제정·시상됐다. 목포는 단일 도시로선 몇 안 되는 문학상을 보유하게 됐다.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문학관이 주관하는 이 문학상은 처음엔 총 6개 분야(시, 단편 소설, 희곡, 문학평론, 동화 혹은 동시, 수필)로 나누어 전국의 미등단자 및 등단 5년 이내 신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였는데, 2015년부터 5개 분야(문학평론 제외)로 축소하고, 본상(전국 대상)과 남도작가상(전라남도 대상)으로 상을 구분하였다.

제2절 목포의 선비 시인

최재환은 1942년(호적상) 전남 신안군 지도에서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지도중앙공립국민학교를 5학년까지 마치고 목포로 이주하여 유달국민학교, 제일중학교, 목포상업고등학교와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였다. 1966년부터 해남, 목포, 신안, 장흥, 진도내 중·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였고, 2000년 교장으로 명예퇴직을 하였다. 그는 1976년 청호중학교 재직 당시 중앙일보『소년중앙』에 동시 「고추잠자리」가 당선되었고, 1977년 『시문학』에 천료되었다. 1981년 한정동아동문학상, 2004년 한국현대시인상, 2008년 전남도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는 한국문인협회 목포지부장, 한국현대시인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개인 창작활동을 하면서 문학 강의를 하고 있다. 시집으로 『표구속의 얼굴』, 『종이비행기』, 『귀거래 이후』, 『세월읽기』, 『청계리행』, 『바람에게 길을 묻다』 등 12권이 있다.

1. 책읽기를 좋아하던 소년, 문학 창작활동을 시작하다

최재환은 신안군 지도에서 태어나 지도중앙공립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를 따라 식구가 모두 목포로 이주하게 되면서 유달국민학교에 6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그의 아버지는 4형제 중 셋째로 일제 강점기 일본 해군으로 강제 징용을 당했다. 해방 후 귀국하였지만 고향에 일자리가 없자 목포로 와서 수산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때 일본인 가옥을 구입해 서산동으로 이사를 왔지만 당시 이곳은 식수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었다.

“목포에서 처음 살았던 곳이 서산동이었어요. 지금은 훤히 길이 터졌지요. 입구에 동사무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막 층계로 다녔잖아요. 2단 즈음 되어 있는 데가, 우리 집이었어요. 그리 높은 곳은 아니었어요. 옛날 일본 사람이 살았다는 적산가옥이었는데, 우리 한국식 문은 열고 닫고 하는데, 미닫이도 달려 있고 이런 집이었어. 지붕은 초가지붕이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 말로 표현을 못 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거든. 간단히 말하면 가난을 둘러쓰고 사는 거지. 거기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물이여. 서산동이 목포시내에서 가장 혐악한 것이 물이여. 수도 하나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먹었기 때문에 불과 수돗물 나오는 시간은 두 시간 밖에 안 나와. 물 나올 때 그 물 바깨쓰를 쭈욱 대놓으면 요즘 말해서 2백 미터 쯤 줄을 서요. 앞에 대놓으면 미리서 새치기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밤새 새치기 못하게 누가 지키는 거예요. 물 담으면 당겨가면서 물을 받는데 두 통 모두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것은 말할 수가 없지요. 지게 지고,

그때는 우리가 힘이 있었으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들고도 다니고 그랬는데, 50년대 후반까지도 이어졌죠. 그렇게 힘들었어, 물이. 뭐 나 장가가서도 마누라가 물지게도 지고 그랬는디.”

그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활동하는 것보다 독서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의 집은 책을 살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목포 시내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읽던가, 아니면 일반 책방에서 빌려 읽었다. 그는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당시 학생 잡지는 물론 여러 종류의 책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읽었다.

“국민학교, 중학교 때부터 책을 많이 봤어요. 시골에 책이라는 게 없어. 교과서도 없어 가지고 몇 대에 물려서 책장 편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거 몇 페이지 다 떨어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목포에 오니까 옛날의 고전소설이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어. 그러니까 책을 닥치는 대로 막 읽어버려. 대개 한번 읽으면 머릿속에 거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책은 부지기 수로 봤제. 책 빌려주는 책방들이 있었어요. 고학생들이 요즘 말하면 천 원씩이나 받고 빌려주죠. 다음날 다른 것을 바꿔 보려니까는 하루에 봐야할 것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공부 때려 치고 보는 거여. 날 새기를 해버리제. 그 당시에 ‘부활’이라든가 ‘죄와 벌’은 두껍잖아요. 그걸 하루 밤에 다 봐야 하니까. 그것은 슬렁슬렁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 날마다 그랬지. 이용했던 책방들이 간판이 있는 서점들이 아니고 그때 내가 알기로는 그런 고문서, 고서적을 취급하던 일부 서점들이 있어요. 그때 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당 정도. 문우서점, 대양서점, 국제서점, 그런 정도밖에는 없었어요. 사범학교 다니던 우리 동창들도 그걸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큰 지식들을 안겨준 은인들이죠. 안 그러면 책 볼 기회가 없잖아요. (이름 없는 책방들이) 갑자기 부근에 하나 있고, 공설시장(현 중앙시장) 농협에서 목여고 가는 양쪽 길에 대여섯 개가 있었고 그랬어요. 중간 중간에 목여고 앞에도, 그때는 목여고가 아니라 목중, 목고였지. 요즘같이 2만원이나 3만원 주고 책을 산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어요. 하늘에 별 따는 것이지. 큰 서점이라는 것은 주로 교과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락달락 하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간잡지가 나오면은 거기에 다양한 내용이 실리잖아요. 그 책을 못 사 보니까 책방에 가면은 서서 보는 것은 공짜배기지. 거기서 두어 편은 읽고 다른 데로 옮겨 가고, 미안하니까.”

그는 유달국민학교, 제일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상 인문계가 아닌 목포상업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하였다. 그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문학 활동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학교 동인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목포시내 고등학교 통합 동인지를 조직해 주도해 나가는 등 학생 문학 동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시기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는 시인 이태웅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평론가 박영호 등이 있다.

『여울』이라 하는 동인을 만들었어. 『청도(青濤)』라는 것을 만들고, 동인회를. 『여울』은 목상문예 동인지. 1956년도, 1957년도 우리가 만들었지. 그래 가지고 여기저기서 동인지가 학교마다 생겨. 거기서 종합해서 만든 것이 『청도』여. 사범학교가 『별판』하고 『해솔』. 목고가 『보리수』하고 『밀꽃』이여. 그리고 목여고가 『송사리』. 문태가 『바위』. 동광고(현 흥일고)가 『호박』. 영흥학교가 『감람촌』, 공업학교가 『기건』이라고 있었어, 교지 겸해서. 그런 동인들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동인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각 학교가 모여서 동인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말하자면 『청도』 동인이여. 그때는 10대 말에서 20대 초였지. 인쇄는 못하니까 돈이 없어서. 프린트를 하는데 우리 책은 그때 사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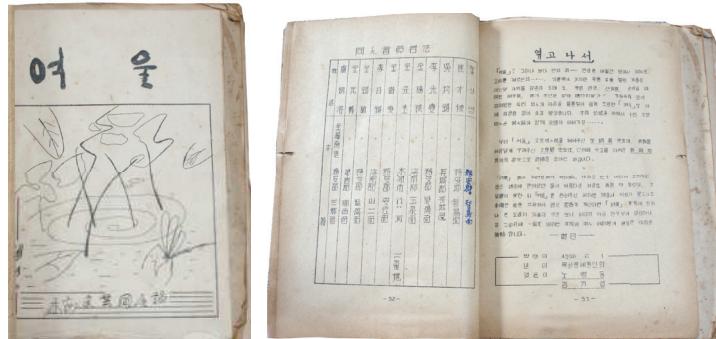


그림 1 목포상업고등학교 동인지 『여울』



그림 2 목포 지역 고등학교 통합 동인지 『청도』 창간호

에 다니는 학생이, 지금 신안교육청 자리가 사범병설중학교였어. 거기 숙직실에서 숙직해주고 잠만 자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그런데 그 친구가 글씨를 잘 썼어. 거기 부탁을 했지. 지 용돈도 벌고 좋잖아. 그래 거기다 맡기고, 안 그러면 우리 『청도』같은 경우는 ‘신신프린트사’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프린트를, 글씨를 잘 썼어. 지금 말하자면 목포문화재단을 내려오면은 동본원사, 오거리 쪽 아니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네거리에서 커브 도는데 오른쪽으로 ‘신신프린트’가 있었어. 다른 학교들은 잘 모르지.”

2. 신춘문예 당선, 시인이 되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동인 활동을 하면서 문학 창작에 전념하게 되자 목포상업고등학교 내 진학반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 특기생으로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다. 처음에는 대학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 대학교 중퇴라는 학력만을 얻고자 하였으나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열망하게 되어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 후 1966년 4월 1일자로 교사 발령이 나는데 첫 부임지는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문내동국민학교였다. 그는 중등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국민학교 교원이 부족하여 강습을 480시간을 받고 강사로 2년간 그곳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이후 목포제일중학교에 강사로 부임하였다가 정교사가 되었다. 이후 해남 황산중학교, 목포청호중학교, 목포유달중학교, 신안군 지도 지명중학교, 신안 임자중학교,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목포고등학교, 신안 비금종합고등학교, 장흥 안흥중학교에서 근무하고, 2000년에 진도관매중학교에서 교장으로 명예 퇴직하였다.

그는 국어과 교사로 능력이 뛰어났다. 전라남도 내 국어과 교사들을 모아 놓고 연구수업을 하였는데 일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와 목포고등학교 재직시절 학교 예술제와 교지 편찬에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참여하기도 하였다.

“벽지 점수 파리 임자도로 들어갔어. 2년 하니까 만기가 되었어, 지도 지명중학교까지 4년차이니까. 내가 나올 무렵이 되니까 제일여고에서 서무과장이 나를 잡으러 왔어. 낚싯대 둘르고 낚시한 척 왔어. 내년 3월에 제일여고로 와야쓰겄네. 유달중학교 서무과장 때 내가 모셨거든. 써먹을 때가 많잖아요. 국어가 제일 복잡하거든. 현대, 고대 문법, 국문학사 할라면 복잡하니까. 그런데 안 할라고 그러제. 자네가 꼭 와야쓰겄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그걸 갚아야지, 갑시다. 그럼 자네가 여기서 내신만 하소, 그래 제일여고로 온 것이 1986년이여. 제일여고 갔더니, 별써 인문 여학교 아니에요. 국어과는 그중에서 꽂이여. 제일여고 가지고 내가 ‘소영예술제’를 만들었지. 지금 제

일여고에 『산다화』라는 동인지가 있어요. 『산다화』를 내가 만들어놨어. 그 동인지도 우리 집에 다 있지요. 그것도 목포시내에서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연극부를 만들어 지도를 했어. ‘소영예술제’도 내가 만들어놨다니까. 소영이 박화성 씨 호(號)여. 소영교지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요. 그리고 연극부 전국대회에 출연해 가지고 최우수상 받아버렸고. 내가 교장하고 쌈하면서. 3학년 담임하면서. 3학년이 하니까 담임들이 싫어하잖아. 3학년을 뽑아갖고 하는디. 근디 그놈들이 대학을 하나도 안 떨어지고 다 들어갔어. 제일여고 다음으로 목고로 갔어요. 기왕 간 김에 전라남도 일번 학교를 가보자 해서 갔죠. 목포고등학교에 지명을 딱 해놓고 거기서 나 청호중학교에 같이 근무하던 국어선생님이 나한테 왔어. 목고 국어선생님이 열두명인데, 다 잘하는데 교지 만드는데 미치겄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거는 내가 전문 아니요. 그래 내가 목고를 와가지고 『미르』 지도를 했어요. 『잠룡』도 내가 만들고. 연극부도 내가 만들고.”

그는 대학시절부터 계속 신춘문예에 도전을 했지만 당선되지 못하다가 그 사이 1976년 1월 중앙일보 『소년중앙』에 동시 「고추잠자리」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시문학』에 문덕수 추천으로 「그림자」라는 시가 실리게 되고, 이듬해에 『시문학』에 천료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 그의 첫 시집인 『표구 속의 얼굴』이 출간되었다. 그가 1976년 신춘문예에 당선될 당시 목포에서 그를 비롯한 두 명이 한꺼번에 당선이 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YMCA 강당에서 당선 기념식을 했다.

“목포가, 전국 문단에, 신춘문예가 어렵잖아요. 어렵고 거기에 나와야 제대로 행세를 하는, 그래서 거기에 매달린 것이 일이여. 목숨을 걸고 했는디. 한 해에, 내가 되던 해에, 76년도 한 해에 세 사람이 되어버렸어. 조승기, 문태중학교에 있던 조승기가 ‘돌을 던지는 여자’ 소설로 당선이 되었고, KBS에서 미국 특파원인가 하는 청년이, 이름은 김청원인데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당히 당선되었습니다. 거기가 희곡으로 당선이 되어버렸는디, 그래서 경사 중에 경사지. 정식으로 세 사람이 딱 당선이 된 경우는 흔하지 않았어. 한 해에 되는 것은 되더라도 가작으로 모두 되고 그런 사람들 몇 사람씩 되고 그랬는디, 1976년도에 한꺼번에 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합동 당선기념회를 하자 해가지고 조그마하게 했던가 그랬지. YMCA에서 했지. 다른 공간이 없어요.”

그는 1981년 제13회 한정동아동문학상을 수상한다. 당시 이 상을 위원회 만장일치로 수여하게 되었는데, 외부로 잘 움직이지 않는 그의 성격을 알고 있던 이 상의 위원회 위원장인 박경종 씨가 아예 상을 목포로 가지고 내려와서 시상식을 하게 되었다.

“한정동아동문학상 위원회에 위원장이 박경종 씨에요. 목포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 가끔 왔어요. 오는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전화가 힘들었지요. 전화가 오면은 바꿔줘야 전화를 받고, 그 전화 하나 가지고 학교에서 돌려쓰니까요. 이번에 한정동아동문학상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내 작품세계의 요절 갖다가 이분이 넣던 것 같아요,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만장일치로 되어버리니까 그걸 받게 되었는데, 내가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걸 알아. 웬만하면 고집이 세어 가지고 상을 준다고 해도 안 가. ‘여기서 번거로우면은 상을 어째 내려갈까’ 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 상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아 이거 참말로 큰일났네. 그때 YMCA, 지금은 평화극장 건너편에 있는데 그때는 지금 교보 건너편에 있었거든. 거기서 그 상을 받는데, 또 KBS 방송국에서 합창단을 내보내주고, 그래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내 평생 문학상이라고는 그 상이 처음이에요. 특히 내가 아동문학을 해본 적도 없고. 시인이 되기 위해서 신춘문예에 18번을, 18년간 작품을 보냈지만 다른 걸로는 내가 한 번도 보낸 적이 없거든. 그 뒤로 쓸 때마다 사람들이 좋게 보네. 그래 이것도 좋다. 그래 신문사에서는 동화를 써 달라 그러거든. 그래 동화도 쓰고, 그리고 중앙일보『소년중앙』이란 게 있어. 거기에 동화도 쓰고. 그래 내 작품집에 보면 아동문학선집이라고 동화도 한 편 들어있고, 동시에 들어있고 그래.”

3. 목포 지역 문학 모임을 결성, 참여하다

1958년에 ‘목포문학회’가 조직되고, 1960년 『목포문학』 창간호가 발간된다. 이후 1974년에 40대 문인들이 향토를 지키면서 문학하는 목포의 풍토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동인회를 결성하였다. 이 동인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작품을 모아 1976년 2월 20일에 발간한 동인지가 『청호(青湖)』이다. ‘청호’는 목포의 옛 이름을 표방한 것이다.

“목포 시내에 현재 ‘목포문인협회’(목포문학회) 창립멤버가 나 하나밖에 없어. 1958년도. 그러면 그때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식 멤버가 아니었어. 나는 심부름이나 해주고 그 정도였지. 창립멤버는 차재석씨, 권일송 씨, 윤종석 씨, 백두성 씨 등이었지. 그리고 『청도』는 3, 4집인가 나오고 말았는디, 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을 가고 다 흘어지잖아. 군대 가고 고향으로 가고 이래 가지고는 더 지속을 못 했어. 그리고 흘어졌는디, 『청호』를 만든 것은, 내가 해남 있다가 이쪽으로 나온 것이 내가 1968년에 제일중학교로 오게 되거든. 그 동안에는 내가 거의 공백이여. 왜 그러냐면 내가 군대를 가고 대학을 가고 이러게 되니까는 자리가 공백이 되어버려. 그사이 목포 활동에서 내가 좀 빠져요. 그런게 ‘목포문학’ 창립을 1958년도에 하는디, 창간을 해놓고



그림 3 문주회 정기총회 기념(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최재환 시인, 2000년 10월 28일)

내가 대학을 가버렸잖아. 그래서 거기 내가 창간호에 가담을 못 해요. 그래서 목포시내에 계신 문학 활동을 하는, 다 등단을 한 사람이 아니고, 그때는 등단한 사람이 많이 없잖아. 등단 안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동인지를 만들자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여. 그래서 『청호』가 결성되었고 목포 문단의 주축이 되었지. 궁께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일부만 들어갔지. 주로 학교 있는 사람들이여. 김신철, 김재희, 문성원, 양문열, 박순범, 이태웅, 최일환, 김학래, 전부 다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여. 목포문단은 『청호』가 거의 이끌다시피 했고. 목포 문단에서 『청호』를 몰라보면 안 돼요.”

1980년에 시인들의 친목단체 조직인 ‘문주회(文酒會)’가 있었다. 황의돈 시인을 주령으로 술을 즐기는 시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창작의욕을 북돋우고자 만든 모임이었다. 이후 시인뿐만 아니라 목포 지역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그 시절에 술 먹는 게 말하자면 전성기였어. 그런데 술을 먹으면은 술값을 항상 내는 사람이 내잖아요. 내가 원 없이 내고 다녔지. 그런데 그때 황의돈 씨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내는 사람이 내는 날 내더라도 한번 모이면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같이 내는 게 좋지 않냐. 우리가 한번 자기 술은 자기가 차고 다니기로 모이자 그래 가지고 해양대학교 뒷산에 등대 밑에서 모여서, 모일 때에는 자기가 술 한 병 하고 자기가 먹을 안주는 차고 가고. 문주회. 원래 창립 멤버는 김엄조, 최재환, 주정연, 최병두, 최건 이 정도여. 목포에서 술 먹는 사람 하면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지. 글월 문자 술 주자 문주회. 회장을 주령이라 하고 총무를 사령이라 했지.”

그는 목포 문학인들을 비롯해 예술인들이 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다방과 선술집에 모여 열정적으로 서로의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밤을 새웠던 것을 기억했다.

“예술인들 나하고 술 안 먹은 사람들이 없지. 내가 술 먹고 어디 떨어져버린 적도 없고. 주로 오거리에서 먹었지. 선술집. 목로주점. 덕인주점도 있고, 동천주점도 있고. 같이 먹었던 사람들은 주정연이, 김엄조, 최병두. 옛날에 목포역 건너편에 황실다방이라고 있었어요. 황실을 주로 이용을 하는디, 저녁에 만나면은 선술집 가가지고 거기 앉으면은 읊기지도 않고 날 새고, 통행금지 되어가지고 못 가고 집에.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에 교감으로 최승열씨라고 있었어요. 그분들 같이 가가지고 선배라놔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런 데 가면 외지고 좋잖아요. 소리 질러도 허튼 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좋고. 대개 외진 데를 많이 가요. 글 쓰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많이 떠들어. 소설 쓰는 사람들은 더 떠들거든. 시 쓰는 사람들은 입을 다무는 편인데.”

최재환은 1951년 고향인 신안군 지도에서 목포로 이주하면서 지금까지 그의 활동무대는 오로지 목포였다. 그는 목포상업고등학교 재학시절 동인지 『여울』을 간행하였고, 목포 지역 고등학교 통합 동인지인 『청도』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그는 대학 졸업 후 해남, 신안, 목포 등 교편생활을 하면서도 창작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국어과 능력이 뛰어나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목포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학교 예술제뿐만 아니라 학교 교지 편찬하는 데에 기여를 했다. 그는 목포 지역 고등학교 동인지 활동부터 목포문인협회 창립, 『목포문학』, 『청호』의 창간까지 참여한 인물로 목포 문단의 역사를 지켜본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현재 그의 자택에는 그가 모아온 목포 문단의 방대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떠한 자리의 얹매임도 없이 본인 스스로가 한만큼만 돌아오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신념대로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런 그의 대쪽 같은 신념 때문에 목포의 선비시인이라 말하는 것 일지도 모른다. 그는 목포 문단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예향의 도시인 목포가 표면적으로만 목포 문화의 중흥을 밀하지 말고 내실 있게 목포 지역의 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제3절 추억의 서점 문화당을 말하다

오늘날의 세상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매체가 다채로워지고 있지만 책은 책대로 그 고유의 영역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그 영역은 어떤 다른 매체가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책을 즐겨볼 수 있는 서점은 목포에도 시대를 달리하며 수많은 서점들이 개설되고 부침하였다. 그 중 1929년 오거리에 세워진 가토문성당서점[加藤文盛堂書店]은 광복 이후 서점 직원 박종석이 인수하여 문화당(文化堂)으로 이름을 바꾼 뒤 운영하였다. 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전문서적을 취급한 문화당서점을 운영했던 아버지 박종석과 어머니 김복임 사이에서 박준상은 1942년 7월 7일 목포시 무안동 8번지에서 태어났으며, 3남 1녀 중 장남이다. 1969년에 아내 이순자와 결혼을 하고 슬하에 2남 1녀를 둔다. 목포 유달초등학교, 유달중학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 독문과를 진학하여 졸업한다. 대학 진학 중 1960년대 시대상을 반영한 시를 작성한 것을 빌미로 군 입대를 하게 되며 그 시기부터 글쓰기를 중단한다. 군 입대 3년과 대학시절을 제외하고는 목포에서 계속 거주하며 1969년부터 2000년에 문화당서점이 문을 닫을 때까지 서점 운영에 전념한다. 문화당서점의 상호는 서점의 문을 닫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2001년 박준상이 조직한 목포문화길잡이를 통해 목포의 잃어버린 사람 찾기와 우리문화 바로잡기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2002년부터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17권의 시집을 출판한다. 2002년부터 한국민족문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이기도 하다. 2013년 도전한국인운동본부 대한민국예술문화인 대상(문학 부문)을 한국문인협회의 추천으로 받는다. 그는 자라나고 성장한 목포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목포 문화의 길라잡이를 추구하고 있다.

1. 어린 시절

박준상은 1942년 7월 7일 목포시 무안동 8번지에 자리한 문화당서점 안집에서 태어났다. 유달초등학교 2학년 당시 6·25전쟁이 일어났으며, 전쟁 당시에도 학생들이 칠판을 들고 유달산 언덕에 올라가 수업을 받았다. 당시 중앙초등학교가 불이 나 유달초등학교에 와서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한다.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유달초등학교 학생들이 유달산에 올라 수업을 했다. 당시 유달초등학교 졸업학생수가 453명으로 한반에 7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한다. 6·25전쟁 당시에는 피난을 가지 않고 목포에서 전쟁을 경험했으며, 1955년 유달초등학교를 졸업한다.



그림 1 유달중학교 졸업사진

“나는 문화당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생겨난 서점이여. 내 집도 함께 있었고, 옛 날 집으로 대지가 80평이 넘었어요. 나는 유달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학생 수가 한 반에 70명 정도로 복도까지 나와서 수업을 했어.⁰¹⁾ 산에서 수업하는 것을 소풍간 것처럼 다들 좋아했어. 6·25전쟁 때는 피난 안 가고 집에 있었어. 내가 11살에서 12살 때인데 지금 용당리 해군 본부 있는 데에 UN군이 와서 비행기로 폭탄 터뜨릴 때 구경 가고 그랬어. 지금 여객선터미널까지 걸어 다니고 폭격 터지고 하는 곳을 구경 가고 그랬어. 미군들이 주는 과자 얻어먹고 그랬어. 미군들이 많이 던져 주었고, 오케이, 오케이 하면 미군들이 먹을 것을 막 던져줘요. 목포로 해서 인천상륙작전을 했으니까 미군들이 목포에 많이 있었지. 내가 최초로 흑인을 그때 봤어. 아버님이 전쟁이 났는데도 고향을 안간 이유는 인민군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야. 종업원들이 주인들을 학살하고 그랬어. 그게 무서우니까 안 갔어. 고향에 가면 머슴들이 완장차고 다니면서 주인들 몰살하고 복수전을 하지. 6·25전쟁은 피난 안 가고 인민군이 5개월 정도 있었어.”

박준상은 고모부가 운영하는 대륙양복점에서 교복을 맞추어 입었으며, 1957년 현 세무서 옆에 자리했던 유달중학교를 졸업하고, 1961년에 목포고등학교를 10회로 졸업한다.

01) 1950년대 교육환경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되어 취학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교 수가 부족해 한 학급의 학생수가 60~90명이나 되었는데, 이것을 콩나물 교실이라 불렀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항구도시 목포의 추억 1번지, 오거리』, 2013, 128쪽).



그림 2 유달중학교 졸업사진(서점 직원과 함께)

“유달중학교를 나온 사람으로 한화갑 씨도 거기를 나오고, 최태옥 외과 원장도 나오고 그랬지. 시험은 자기가 갈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지. 내가 거기를 간 이유는 목포중학교를 가면 상위권이 안 되는데 유달중학교를 가면 상위권이 될 것 같아서 거기를 지원한 거지.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 어딜 가라고 하면 간 거지. 떨어지면 갈 데가 없으니까. 유달중학교에서 실력이 되니 목포고등학교를 가라고 해서 목포고등학교는 갔지.”

박준상은 어린 시절 넉넉한 집안 살림 덕에 오거리 주변 상업·문화시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는 집 앞에 자리한 쌍미사라는 사진관에서 그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문화당서점의 점원들과도 함께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았다.

“학교 다닐 때 사진도 많이 찍었지. 중 2때 우리 집 종업원하고도 찍었어. 아버지가 지금의 홍일고등학교가 그 당시는 동광고등학교인데, 동광고등학교 야간을 제주도 사람인 우리 집 점원을 보내줬지. 아버지가 밤에는 놀면 안 된다고 학교를 보내줬지. 우리 집 종업원들은 학교 다 나왔어. 아버지가 다 보내줬지. 봉급 외로 다 지원해 줬지. 김…… 뭐라 하는데 기억이 잘 안나. 지금 한 82살이나 아파 먹었을 거야. 교모에 고자를 불였잖아 그러면 고등학생이야. 우리 집 종업원들과 사진을 많이 찍었어. 우리 집 앞에가 일제 때부터 있던 쌍미사라는 사진관이 있었어. 내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은 모두 쌍미사에서 찍은 거지. 오거리가 내 집이었으니까. 바로 쌍미사가 내 집 앞 이니까. 그 사람 밑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박종길 교수라고 있어. 오거리에서 장사할 때 김상옥 사진작가가 사진협회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만 사진작가라고 나와.”

1940년대 말 박준상은 초등학생들은 입지 않는 양복을 유행양복점에서 아버지가 맞춰 줘서 입고 다닐 정도로 부유하였으며, 당시 목포에선 보기 힘든 승용차 1대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제 때 한국에서 제일 큰 중화요리 상해식당이 있었어. 거기서 보릿고개 넘을 때 상해식당에서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었다는 나의 「오거리」 시에 적어져 있어. 그때 초등학생은 교복이 없는데

부잣집 아들이라고 특별히 옷을 맞춰주던 집이 유행양복점이여. 멋쟁이들이 유행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춰서 입었어. 나도 아버지가 맞춰줬지. 그 당시에 아버지가 부자였을 때는 목포에는 자가용이 3대 가 있었어. 우리 아버지, 김상길 씨라고 보해양조 양조장이 있었어, 그 다음에 남진이 아버지 이렇게 승용차가 40년대 해방될 때부터 있었어. 우리 집에도 해방될 때부터 차가 있었던 거야. 6·25전쟁 때 저희관들에게 군직용으로 승용차를 헌납을 했지.”

목포에 생겨난 전문적인 영화극장은 1926년에 생긴 목포극장과 1927년에 생긴 평화관(평화극장)이었고 2군데 다 오거리와 가까운 곳에 개관하였다. 극장에서는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뿐만이 아닌 연극, 국극, 국악공연, 변사극 공연도 하였으며, 남진이나 이미자, 유명 영화배우들도 극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는 오거리 본인의 집과 가까웠던 목포극장과 평화극장을 자주 이용하였다고 한다.

“내가 중학교 2학년 그 당시에 임방울이라는 사람이 명창인데 그 사람이 「쑥대머리」를 평화극장에 서 불렀어. 목포극장에서 그때는 영화도 틀고 국악도 하고 이미자, 하춘화가 와서 노래도 하고 연회장 역할을 했어 두 극장 다. 영화도 봤지. 그때 남진이가 한참 나올 때 문희하고 목포에 오면 「미워도 다시 한 번」 3편을 했어. 임춘앵 여성국극단의 「마의태자」나 「화랑 관창」도 듣고 다 기억을 하지. 어른들 손잡고 가면 돈 내고 보고 우리는 공짜였지.”

그는 중학교시절 남녀 교우관계에서 만남의 장소로 단팥죽 집을 많이 이용했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었다고 한다.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넉넉히 받아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풍족하게 쓰고 즐길 수 있었다고 한다.

“중학교 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한국은행자리에 거가 옛날에 단팥죽집이 있어. 거기에 그것을 보고 만든 것이 할머니가 보고 쑥끌레 집을 만든 거야.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는 쑥끌레가 없었고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정명여고 앞에서 쑥끌레 집이 생겼어. 이쪽에가 단팥죽집이 한 다섯 개가 나란히 있었어. 초등학교 때는 남녀혼합이니까 중학교까지 친구관계가 이어지고 그러지. 단팥죽집 말고는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었지. 고등학교 때는 아이스끼리를 얼음을 얼려서 먹었던 것을 많이 먹었지. 길거리 가면서 깡통 메고 다니는 아이들에게서 사서 먹었어. 그걸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 불우청소년들이 많이 팔았어. 그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주 가난한 시절이야 나처럼 돈 잘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 아버지가 용돈을 꼭 줬어. 아버지가 못 찼던 꿈을 아들에게 다 한 거야.”

그는 자신의 집인 문화당에서 접한 전문서적이나 교과서뿐만이 아닌 목포에 있는 현책방을 자주 이용하며 다양한 글을 접하였다고 한다. 목포여자고등학교 옆에 자리한 태백서점은 한국학자들이 읽고자 하는 고서를 취급했다. 문화당에서 취급하지 않던 국내서적이나 일어책, 사무라이 만화책을 접할 수 있는 그곳을 통해 문학 소년의 꿈을 키우며 자란다.

“태백서점이 우리 한국학자들의 창구역할을 했지. 거기에서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책을 그 집에서 볼 수 있었던 거야. 지금 말하면 학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는 옛날 책을 못 구하니까. 그것이 1955년 까지 있었을 거야. 현책방으로 전국적이었어. 국내서적이나 일어 서적이 많았지. 그때 가서 많이 봤지. 많이 가서 봐도 되었고, 그때 가서 본 것이 일본 사무라이 만화책을 많이 보러 갔지.”

2. 대학시절과 비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박준상은 아버지가 서점을 운영했던 덕에 철학책과 거성들이 지은 시나 우리나라 원로들의 시를 많이 접하였고 그때부터 문학에 대한 생각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한 책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 자신의 일생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 또한 괴테나 니체 등의 시를 접하면서 문학을 하는 독문과를 들어가려고 생각하여 1961년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 독문과에 들어간다. 대학생 활동 중 그 시대를 반영한 시를 썼다는 이유로 1963년도에 군 입대를 하여 1966년에 제대를 하고 1967년에 대학교 졸업을 한 뒤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게 된다.

“박정희 정권 때 내가 대학교 1학년생 이었어. 61년도이니까 내가 신춘문예에 글을 잘못 하나 써 가지고 대학생활을 놔 버렸어. 군대는 신춘문예 시 때문에 1963년도에 갔어요. 그때 신춘문예 때에 냈던 작품 제목 이름이 「제급과 권력의 투쟁」이라는 시를 썼어.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거지. 그러니까 1962년에 대학교 2학년 때 썼어. 그래 가지고 너 감방에 갈래 뺏을 할래 해 가지고 불잡혀 안기부 가 가지고 글을 안 쓴다는 조건으로 나를 풀어줬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설득한 거야. 그래 가지고 1966년에 제대하고 바로 그 다음해에 졸업을 1967년에 했지. 졸업 후 바로 내려와서 아버님 밑에서 함께 문화당서점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2000년까지 한 거지. 그러면서 1963년부터 글을 안 쓰기로 한 거지. 1963년에 글을 쓰지 말라고 스승도 말해 준 거야.”

3. 전남 지역 최초의 현대식 서점 문화당

문화당은 출판사에서 펴냈거나 각 대학출판부에서 나온 옹골찬 내용으로 학문적인 무게는 있으면 서도 일반 대중성이 없어 별로 팔리지도 않고 따라서 채산성도 떨어지는 학술서, 특히 국학에 관한 서적들은 거의 공급하였다. 문화당이 아니었다면 목포에서는 수요가 몇 권에 불과한 책들은 좀체 얻어 보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 점에서 문화당은 독자들의 구미에만 이끌려 영업하는 서점은 아니었다. 전남지역 최초의 현대식 서점으로 전문서적을 위주로 출판, 판매하던 서점으로서의 긍지를 가졌으며 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서점이었다.

“우리 집의 특징이 학술서적만 팔았어. 전문서적만. 그건 유일하게 전남권 전체를 공급을 했어. 제 주도까지 말이야. 또 목포대학교 교과서를 우리 집에서 전부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수들을 찾 아다니면서 원고 모집해 가지고 출판사에 주고 했지. 배종무 교수하고 이해준 교수하고도 다 우리 집에 맡겼어. 지종옥 씨 국어교과서라든지……. 우리 집에서 구할 수 있었던 전문서적은 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책들인데 제일 처음은 국문학, 두 번째가 경제학, 세 번째가 정치학. 그리고 지방에서 유 일하게 우리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의대 교과서를 다 취급했어. 그것을 영인본을 가지고 있었지. 우리나라에는 번역본이 없으니까 요즘 말하면 복사물이여. 그것을 전부 했는데 목포 사람들은 그 것을 몰랐어.”

문화당에서는 전문서적뿐만이 아닌 교과서를 출판, 판매하기도 하였다.

“내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 가지고 수업을 했고 다 사서 썼지. 우리 집에서 공급을 했지. 교과서 판권을 공급권을 우리 집이 목포, 무안, 신안 전체를 가지고 있었지.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가 우리 아버지가 주주였어. 책들을 친구들은 다 사서 썼고 그때는 화폐개혁하기 전이라 다 원이여. 그때 책 자체가 나한 테 있어. 왜 교과서를 만들었냐면 UN본부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었어. 일제 때 한국말로 된 책이 있어. 우리 집에 소장되어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 일제 때 쓰던 노트도 있어. 내가 실제 쓰던 교과서와 노트여. 우리 집에서 목포 사람들은 교과서만 한 줄 알아. 학생들은 교과서만 한 줄 알아.”

4. 아버지 박종석이 한 일

박준상의 아버지 박종석은 문화당 서점을 하면서 항도출판사를 직영, 주주활동을 하였다. 항도출

판사를 이끌어 간 사람은 차재석과 조희관으로 그 당시 목포뿐만이 아닌 한국문단에서도 길이 남을 『시정신』이 출판된다. 이후 조희관이 타계하자 항도출판사는 출판사의 기능보다 인쇄소 기능을 부각 시켜 운영된다.

“항도출판사를 함께 이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차범석 씨 동생 차재석 씨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조희관 씨가 사장을 하고, 조희관 씨가 고등학교 교장을 했어. 항도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제일 한국 문화사에 길이 남는 것이 최초로 시문학 잡지인 『시정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 그게 3권까지 나오고 말았는데. 거기에 집필진이 서정주, 이동주, 박흡이라고 한국 문학사에 한 획을 장식하는 사람들이 야. 항도출판사는 지금 목포여자중학교 앞에 위치했었고, 조희관 씨가 돌아가신 뒤에는 출판사라기 보단 인쇄소만 했어. 항도출판사라고는 조희관 씨로 끝난 거여. 그 다음은 인쇄소이고. 항도출판사에 조판기가 있었어. 다 1950년대 이야기야. 아버지가 항도출판사 주주로 그 당시엔 목포에서 부자였어.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교과서를 하고 나면 돈을 굽을 정도로 했지. 나의 생애 중에서 1960년대까지는 목포에선 제일 아름다운 생활을 했지.”

1949년 박준상의 아버지 박종석은 목포서적 주식회사를 만들어 교과서 및 도서 출판을 했다. 유네스코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원조하여 일부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주고, 일부 학생은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한다.

“나의 아버지가 서점을 운영 할 때만 하더라도 광주에서나 제주까지 책을 목탄기차로 실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여기선 발송을 안 해줬어. 발송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 집이 크니까 서점을 놔두고 회사를 또 만들지. 목포서적 주식회사 그것이 제주도, 광주, 전주까지 총 공급을 했어.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우리 아버지여. 국정교과서를 우리 회사에서 찍었고, 나중에는 초등학교까지 그 회사가 가져오지. 얼마 전에 주주 이익금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일년에 한 번씩 주주 배당금을 주거든. 아버지 때로부터 내가 지금은 받지. 얼마 되지는 않아. 목포서적 주식회사도 1957년 즈음까지 유지가 된 거야. 그 당시에 문화당이 창평동으로 옮기고 했지. 내 시에도 그것에 관련된 것이 나와.”

그는 아버지 박종석이 전남대 상대 초대학장을 지낸 정증섭과 함께 6·25전쟁 당시 UN본부 한국지부 목포지국을 1951년에 창립하여 한국의 자유, 독립, 해방을 외치는 행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것을 증명할 만한 사진을 차재석이 빌려갔다가 얼마 뒤 타계

하면서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목포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전남대 상대가 4년 있다가 광주로 갔어. 목포에가 전남대 상대 초대 학장이 정중섭 씨라고 있어. 그때는 UN본부 한국지부 목포지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회장을 정중섭 씨가 하고, 아버지가 총무를 하셨지. 그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여성으론 박화성 씨하고 유후 근 선생이라고 한 20명 정도 되요. 그분들이 창립할 때가 다들 40이 넘은 나이였어. 1951년이니까 내가 11살이고. 그분들이 목포의 원로들이야. 그 당시 목포가 크니까 UN본부 한국지국에서 목포의 원로들을 지명을 해서 만든 것이야. 목포 스스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위에서 하달 되어서 그래서 만든 거야. 그때 다 만든 것이 아니라 전국의 10대 도시들만 만든 거야. 목포는 일제 때부터 유명한 곳이니까 서울, 인천, 그 다음에 부산, 목포 등에서 만들어졌어. 우리가 6·25전쟁 중이니까 북진 통 일을, 우리의 자주 독립을 외치면서 행사를 주관하고 한국의 힘으로 해방이 안 되니까 세계 우방국가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행사를 한 거야. 목포역 광장에서 집회 같은 것을 할 때 선두 지휘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촛불시위 같은 것이지.”

5. 아버지를 이어 문화당을 이끌다

그의 아버지가 이끌던 목포서적주식회사 사업이 몰락한 후 아버지가 경영에서 손을 놓자 박준상은 그의 나이 28살이 되던 해인 1967년부터 문화당을 도맡아 이끌기 시작한다. 그는 문화당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시기인 1969년에 결혼을 하고 슬하에 2남 1녀를 둔다. 문화당은 1964년 오거리 옛 자리에서 창평동 우체국 맞은편 자리로 옮긴 뒤 2호광장에서 하당 등으로 옮겨 다녔다가 현재 자리인 목포시 하당로 60번길 4에 자리하여 2000년에 86년의 역사를 가진 추억의 서점으로 남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문화당이라는 서점의 상호는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아버지가 사업을 안 하시고 세상이 싫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내가 유학을 포기하고 꿈을 접었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잣집 아들로 켰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1958년에 오거리 우리 집에서 쫓겨났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우리 집 살림이 길에 나와 있어. 그래 가지고 할머니는 기절해가지고 계시고 했지. 목포서적 주식회사를 하다가 중간에 사기를 당해서 우리가 망하지. 그래 가지고 그냥 우리 상호만 가지고 이사를 한 여섯 번이나 다녔어. 그때 아버지가 정신을 한 10년 동안 힘들어 하셨다가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또 다시 사람 잘못 만나 가지고……. 인간사라는 것이. 서점 문을 닫지는 않았지. 집을 빠져버리고 전전긍긍 했지.

아버지가 서점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시고 모든 것을 내가 했어. 1964년에 오거리에서 창평동 우체국 맞은편으로 옮긴 것은 아버님이 보증을 서 가지고 옮긴 것이고, 내가 운영할 때 사서 2호광장으로 염치과 자리로 다시 옮긴 것이지. 이곳을 거쳐 1990년경 하당으로 옮기면서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상호만 남긴 거야. 지금도 상호는 등록되어 있어. 하당으로 오면서는 책은 팔았으나 전국 도매만 했지. 하당에서는 노동부 앞에서 운영을 했고 매장은 거기에 있고 지금 이 자리 하당로 60번길 4 사무실에서 도매만 했지. 매장은 노동부 자리에 있었고. 이 자리에서 도매만 한 거야. 도매하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었고, 사무실은 폐쇄하고 2000년 이후에는 내 문학 활동을 하지. 상호는 내가 이 세상을 뜰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1955년부터는 대한통운이 생겨나서 대량의 책들이 개인한테는 운송이 되진 않았으나 지정 상호를 가진 곳은 배달이 되어 전국단위로도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당시에는 문화당에 전화기 다섯 대를 배치하여 전국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받기도 한다.

“책을 운송하는 것은 내가 운영할 때는 소화물이란 것이 대한통운에서 운영하는 것이 생겨. 소화물은 적은 화물이라는 것인데 화물을 인자 운송을 하면서 배달이 된 것이 1955년 정도부터는 목적지까지 배달이 되지. 소매상이 방문도 하고 그때는 백색전화라고 해서 전화를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해. 전화기 자체가 몇 백만 원씩 해요. 전화선이 없어요. 전화기를 배당을 받으면 매매를 할 때는 10배, 20배를 받고 팔았어. 전기도 특선이 있어서 꺼지지 않는 선이라고 해서 돈을 더 주고 그랬지. 1960년대 초까지 그랬어요. 문화당에는 전화기가 다섯 대가 있었지. 전국을 다 받아야 하니까. 이 전화로 오고 저 전화로 오고 그러니까 담당 점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점원이고 서로 했지. 우리 집은 책을 광주에 가져가질 않았어. 서점에서 우리 집에 와서 도매로 가져 갔제. 전부 우리 집에서 거꾸로 갔어.”

박준상은 본격적으로 문화당 운영권을 맡게 된 20대 중반부터 30대에는 흥과 여유를 즐겨 다방을 자주 이용한다. 당시의 다방 위치와 다방문화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문인활동을 하면서 교직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함께 즐겼던 선술집들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었다.

“문화당 있으면서 문인들인 친구가 많았지. 내가 20대 중반 때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 나를 그때 부른 이유는 돈이 많다 보니까 문인들이 거의가 학교 선생이여서 돈이 별로 없고 내가 잘 사니까 그랬지. 목포에서 문인들이 제일 많이 다니던 밀양이라는 선술집이 있는데 11시 반

에 통금 사이렌이 울리면 거기 가서 술 마시고 했지. 그때 어울린 사람이 김이수, 권일송 이라고 있어. 내가 좋아서 부른 게 아니라 술 먹고 싶으면 나를 부른 거여. 그 사람들이 교과서를 나한테 꼭 부탁을 했지. 잘 가던 주점은 국제서점 밑에 동촌주점, 그 다음에 오거리는 지금도 있는 덕인주점, 영흥고 밑에 현유달 아파트자리에 있는데 칠성주점이 있었고, 밀양주점은 없어진 호남극장 옆에 있었지.

서점을 운영하면서 즐겨가던 곳이 다방인데, 목포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목포역을 껴 가지고 다방이 한 30여 개가 있어요. 역전에가 별 다방, 지금도 별 레코드사가 있잖아. 광주은행 있는데 나란히 세 군데가 별다방, 여정다방, 유달다방이 있었어. 그다음에 황실다방. 좀 가서 국민은행 앞에 흑다방. 그 옆에가 바다다방, 거기서 돌면 미로다방, 4·19다방이라고 있어. 그 앞에가 목포에 최초로 생긴 미네르바라는 다방이 있어. 쪽 올라가서 오거리 쪽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배우가 다방아가씨를 했어 거기가 새마을다방이야. 그 여배우가 너무 예쁘니까 해군 장교가 와서 권총을 썼던 이야기가 있어. 새마을다방 옆에가 묵다방이 있고, 그 밑에가 서울다방, 그 밑에가 용다방이 있었지. 목포가 문화 도시다 보니 그런 곳이 많았지. 나는 그 시절 아침 한 10군데 다방을 돌아다니면서 돈 내는 재미로 즐겨 다닌 거여. 내가 20대일 때 재미있어서 다방도 다닌 거지.”

6. 전집류의 등장과 월부판매

1960년대 출판시장에서는 전집물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전집물은 일반 독자들의 독서용이나 장서용으로 많이 활용되어 큰 시장을 형성하면서 출판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베스트셀러가 등장하면서 출판업계의 성황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판매방법에서 폐단과 물의도 있었다. 독서 인구는 증가하였지만 월부판매가 증가하면서 서점의 판로를 저해시키고 서점의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하였다. 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도 월부판매를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이다. 박준상도 이에 부응하듯 1967년부터 월부판매를 시작하여 처음에는 할로상의 문제도 없고 잘 진행되는 듯싶었으나 월부금을 받는 과정 속에서 수입금 가로채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월부판매를 1980년대 초에 접는다.

“내가 결혼하고는 아버지하고 4대가 모여 문화당에서 살았어. 우리 마누라가 열다섯 식구 아침, 점심, 저녁상을 차리는데 종업원들이 우리 집 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 숙식을 다 우리 집에서 생활을 했어.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종업원들이 10명 가까이 되었지. 그 당시가 우리나라 출판 전성기가 1960년 초쯤에 오기 시작해요. 그때 월부판매를 하기 시작했지. 그 당시에 전집류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지. 1964년에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이 이어령 선생님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가 되고, 그 다음에 1965년까지 베스트셀러가 김일엽 역사가 쓴 ‘청춘을 불사르고’이지. 그

때 전집류 때문에 서점에 종업원들이 판매를 해 가지고 돈을 지금은 지로가 있지만 그 당시는 지로가 없으니까 판매한 사람이 수금한 돈을 써버리고 했지. 우리만 까먹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서점을 했던 사람들이나 전집류를 월부 판매한 사람들은 다 망하고 그랬지. 내가 1967년부터 월부판매를 하는데 전부 배달은 직원들이 다 했고 직원이 아주 많을 때는 20명 가까이 되었지. 그때 우리나라가 출판문화가 꽃을 피울 때여. 그때 이광수 전집 등이 나오고 마음의 샘터가 삼중당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백만 부가 팔린 것이여. 김소월 시집이 월부판매로 여덟 군데에서 나와 가지고 팔렸어. 그때는 사람들의 봉급이 적으니까 책값이 10만 원, 20만 원 주고 못 사니까 열 달 나눠서 내고 그랬지. 그것을 종업원들이 다 찾아서 써서 도망가 버리고, 우리 집이 흥망성세를…… 월부판매는 나는 1980년 초까지는 했지. 그때는 아버지가 직원들을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동창들을 많이 썼어. 동창들이 직장을 못 구하니까 썼는데 그놈들이 해 먹고 도망 가버리고…… 그때 내가 종업원을 채용할 때 보증인을 세워 본적도 없었어. 옛날 사람들 중에도 상대를 나온 사람들은 보증을 세우고 하면서 보증한 사람이 다 물어야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는 연고를 가지고 채용을 하다보니까 사업에 실패 한 거지.”

7. 청년시절 목포청년회의소(JCI) 활동

박준상은 문화당서점을 운영하면서 젊은 상공인들의 모임인 목포청년회의소 일명 JCI 활동을 27~35세 동안 한다. 목포청년회의소는 1967년에 만들어졌으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민과 함께 조직의 발전과 지역 사회 개발에 동참하고 대외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목포청년회소에서 그는 사회봉사활동을 주로 하였으며 상인 부회장, 내무 부회장, 외무 부회장을 역임한다.

“문화당 맡으면서 내가 목포청년회의소 부회장을 했지. 보통 젊은 상공인들이 모여서 청년회의소 들어가는 거야. 25세에서 40대 까지가 청년회의소 가입 나이여. 결혼하기 전에부터 청년회의소 사회봉사를 나가는 거지. 사회봉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거니까. 정관에 맞추어서 활동을 하는 거지. 난 뭐든지 회장은 안했어. 회장을 계속하라고 해도 안했어. 부회장을 세 번을 했는데 세 분류가 있어. 상인 부회장, 내무 부회장, 외무 부회장이. 난 각각 다 거쳤지. 40대가 되면 자동 탈퇴가 되고 모임에서 빠져. 특우회라고 나이가 많으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 명예롭지 못한 일을 하면 제명을 시킬 수도 있고, 본인이 탈퇴할 수도 있고 그래. JCI 활동하면서 5·18 당시에 내가 청년회 부회장을 했지. 난폭하게 데모한 사람들 총도 뺏고, 올바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악질들이 나와서 남의 상가 물품도 뺏고 그런 때라 꼭 순수한 것만은 아니야. 그것에 휩쓸려가지고 건달들이 생업으로 돈 벌



그림 3 JCI청년회 활동(왼쪽에서 세 번째 박준상)

어 먹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지. 내가 데모진압을 하면서 폭도로는 남지 말아라 그랬어. 서점이 창평동에 있을 때 내가 청년회 부회장을 할 때이고, 사업이 성공한 시기로 27세에서 35세까지 활동을 했어. 근데 내가 중간에 나와 버렸어. 정치바람이 부니까 회원 중에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고 시의원 된 사람도 있어. 그런 것이 싫고 해서 빠졌어. 청년회의소 활동할 때 문화사업도 많이 했지. 동백도 심고 했어. 오늘날 와서 실패한 것이 전통 동백이 아닌 접동백을 심은 거야. 식물학자들에게 자문도 받고 했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심다보니까 그렇게 못했어.”

8. 시인(詩人)으로 살아가기

박준상은 2000년 서점을 정리하고 2002년부터 공식적인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피천득 교수가 지어준 목심(木謙)이란 호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오거리」라는 시로 2002년에 등단하여 현재까지 17권의 시집을 낸다. 2002년 등단하는 시점에 전남문인협회, 전남시인협회, 목포문인협회를 들어가게 된다.

“내가 회갑 즈음이 되니까 서점은 치웠어. 책이 원체 무거워요. 그래도 이름은 명맥을 잇고 있어요. 지금도 문화당서점이라고 하면 전화가 되요. 지금은 문화당이 없지.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문화당이란 상호를 못 쓰게 하려고 등록은 되어 있어. 폐업신고는 안 되어 있고. 책장사를 안 한지는 17년이 되었어요. 2000년대 서점을 치우면서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뭘 하면 좋겠냐 하니 처음엔 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동창들이 돈 십 원을 못 벌어도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불끈 글 쓸 수 있는 시를 써라 해서 쓰게 되었지. 목포에서는 문학활동을 안하고 서울 중앙에서만 활동을 했지. 허형만 교수하고나 교류하지. 피천득 선생님은 나의 사사신거고. 아버지가 큰 서점을 하니까 교류가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거구. 내가 그분의 영향을 받은 거지. 내가 그분의 영향으로 가장 짧은 시를 쓴 거야. 내 호가 목심인데 내 호를 지어준 사람이 피천득 교수였어. 피천득 교수님이 너는 참 목포 사람이다 해서 대학교 생활 4년, 군대생활 3년을 제외하고는 목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목포 사람이다 해서 호를 아주 예쁘게 지어주셨어요. 나는 「오거리」라는 시로 2002년에 등단을 했어. 오거리라는 시가 세계 최초로 쓴 시여. 오거리 하면 목포의 오거리를 생각해. 목포에 시인들이 그 오거리 시절에 많



그림 4 1985년 서재에서 아내와 함께

았기 때문에 오거리 하면 목포의 오거리 를 떠올리지. 부산으로 보면 광복동을 쓴 거나 마찬가지야.”

박준상은 2001~2005년에 목포문화 길라잡이라는 자생단체를 만들어 운영하 였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민족 문학회 부회장을 하고 있다. 그는 국제펜 클럽 한국본부 회원 활동도 하고 있으며, 2009년에 강강술래가 유네스코에 등록

될 때에 시를 선사하기도 하고, 지역의 인사들에게 시를 선물해주면서 창작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목포를 바르게 알자 해서 목포문화길라잡이라는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회장을 했지. 내가 자비 들여서 그때 한 달에 한번 씩 목포대학 총장을 한 김옹배 씨가 강의를 해 주고, 목포 연극인 김성옥 씨가 강의를 하고, 목포의 지명유래를 쓴 오흥일 선생이 강의하고, 국악이란 무엇인가 이런 강의를 열면서 운영을 했지. 계속하다가 총무가 돈 먹고 도망가 버렸어.

한국민족문학회 부회장은 회원들이 추천을 해서 된 거고, 내가 2002년 글을 쓰면서 들어갔지. 지금까지 부회장이라고 해. 다 전국 모임이여. 서울에가 친구들이 많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은 세계적인 작가를 말하는 거지. 한국에 전국적으로 3000명이 있는데 국제펜클럽 본부는 영국에가 있고 국제 회비를 내야 해. 나도 내지. 2009년에 유네스코에 강강술래 등록될 때 그 시를 쓴 게 바로 나야. 우리나라에서 강강술래를 그때 쓴 사람은 나 하나 뿐이여.”

그는 한국민족문학회 추천을 받아 2013년 도전한국인운동본부 대한민국예술문화인 대상(문학 부문)을 수상한다. 그 외에도 한국민족문학상과 성옥예술문화상을 수상한다.

“대한민국예술문화인 대상을 내가 2013년에 받았지. 그때 반기문 선생도 같이 받았어. 사진 속에 나는 제일 끝에 있어. 제일 끝에 옆에 있는 여성은 한국예총 회장이고, 가운데 최불암, 최수종, 이상용 씨가 있잖아. 한국민족문학상은 남북한 문학인들이 준 상인데 상을 탄지 한 10년 되었어. 한국민족문학회 모임에서 준 거야. 성옥예술문화상은 이훈동 씨가 한 3년 전에 주었어. 예술단체에서 추천 해서 준 거야. 나는 목포에서 목포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고 싶어. 끝까지 목포에서 살면서 목포 문화

에 길라잡이 역할을 할 거야 ”

박준상은 목포문화길라잡이 단체 활동을 통해 목포 사람이라도 잘 모르는 옛 이야기나 우리말 찾기, 목포에서 찾고 있지 인물들을 찾아내고 문화를 바로잡는 운동을 하고자 한다. 그는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문화는 변화한다는 뜻을 품고 있는 ‘문화당’이라는 상호를 죽는 날까지 가지고 목포에 거주하면서 시인으로서, 목포 사람으로서 인생을 마치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

정미영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그림 5 2013대한민국예술문화인대상 시상식 (사진 두 번째 줄 오른쪽 박준상)

